

#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2017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성가족부 |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반짝거리던 여름



반짝거리게 빛나던 감시한 여름이었습니다.  
 자칫 계획을 자세히 짜지 못해 흘러보내게 될 뻔했던 여름방학을  
 이번 프로그램이 활기차고, 알차고,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포청소년수련관 '김예지'

# 아주 특별한 선물



공모사업 활동을 통해 결과에 치우치지 않은 과정을  
 밟아오면서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을 내 품에 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활동 중에서 가장 뜻 깊은 것은 억만금을 쥐도  
 못 얻을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라는 선물과  
 경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조민지'



# 마중물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진' 청소년지도자

나에게 공모사업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 일상의 행복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김문주' 청소년지도자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뜨겁게 달궈진 아이들의 진실된 꿈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방지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과 지도사가 함께 고민한다면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 지역사회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CONTENTS

<p>08</p> <p>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p> <p>08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의 법적 근거</p> <p>08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History</p> <p>10 201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개요</p> <p>11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절차</p> <p>12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결과</p> <p>15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주요 운영결과</p>	<p>23</p> <p>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프로그램</p> <p>23 청소년 활동분야</p> <p>91 청소년 보호분야</p> <p>97 청소년 참여분야</p>	<p>155</p> <p>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활동수기</p> <p>155 청소년 부문</p> <p>209 청소년지도자 부문</p>
---	---	--

## 미래의 발견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서희주' 청소년지도자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빌 그로스는 '발견이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한 힘을 믿게 되었다.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자발적이며 체계화된 청소년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 문성호 외 (2010)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 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 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청소년 프로그램공모사업 History



1999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	-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5				
2006	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7				
2008				
2009				
201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	-
2011				
2012~현재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 201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개요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선정·심사 → 상반기워크숍(1차컨설팅) → 국고보조금 1차 교부 → 사업수행 → 현장방문(2차컨설팅) → 국고보조금 2차 교부 → 하반기 워크숍 → 최종실적보고 → 최종평가 → 우수사례발표 및 시상식

### 개요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기간 : 2017.04.~11.

사업대상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팀

#### 주요내용

-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사업신청 및 선정
-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운영
- 영역별 컨설팅 및 워크숍, 현장방문 운영
- 우수프로그램 선정심사,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시상

### 2017 컨설팅 위원

성명	소속	비고
김선희	명지전문대학	진로
김정주	(주)모든학교 연구소	진로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예술
김호순	대원대학교	역사
유홍식	중앙대학교	과학환경 모험봉사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족인성 건강증진

## 2017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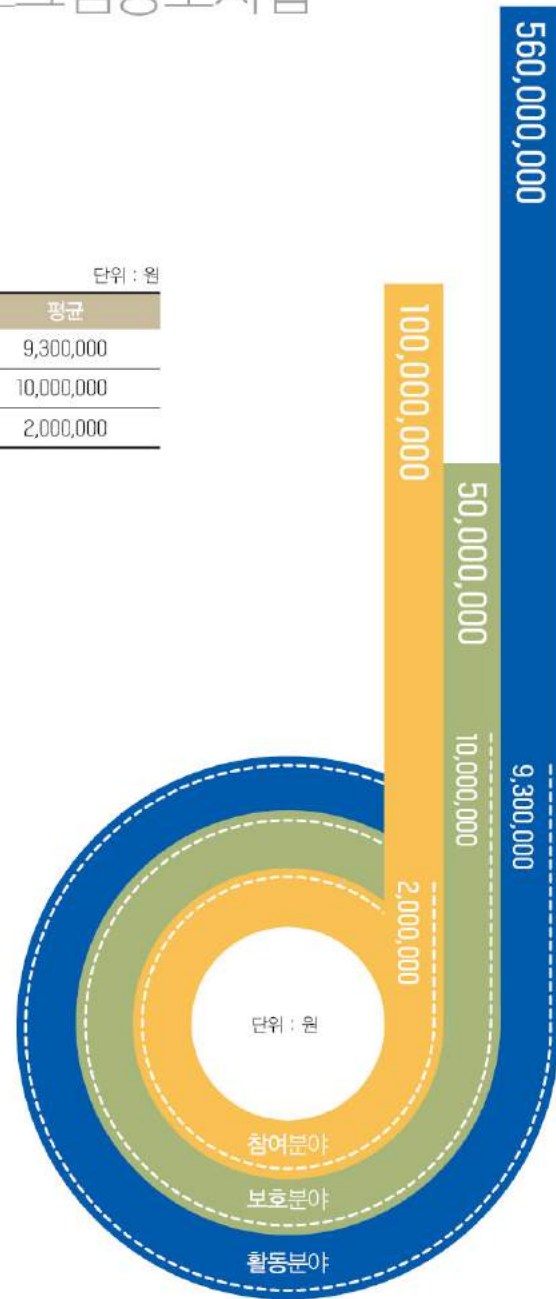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1월	'18년 2월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프로그램 접수		●												
프로그램 선정 심사			●											
선정결과 공고			●											
1차워크숍			●	●										
보조금 1차 교부				●										
사업실시				●	●	●	●	●	●	●	●	●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	●	●	●	●	●	●	●		
사업홍보				●	●	●	●	●	●	●	●	●		
현장방문					●	●	●							
보조금 2차 교부								●						
2차 워크숍(중간보고회)										●				
최종평가												●		
우수프로그램 선정												●		
시상식													●	
우수사례보급													●	●

#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결과

##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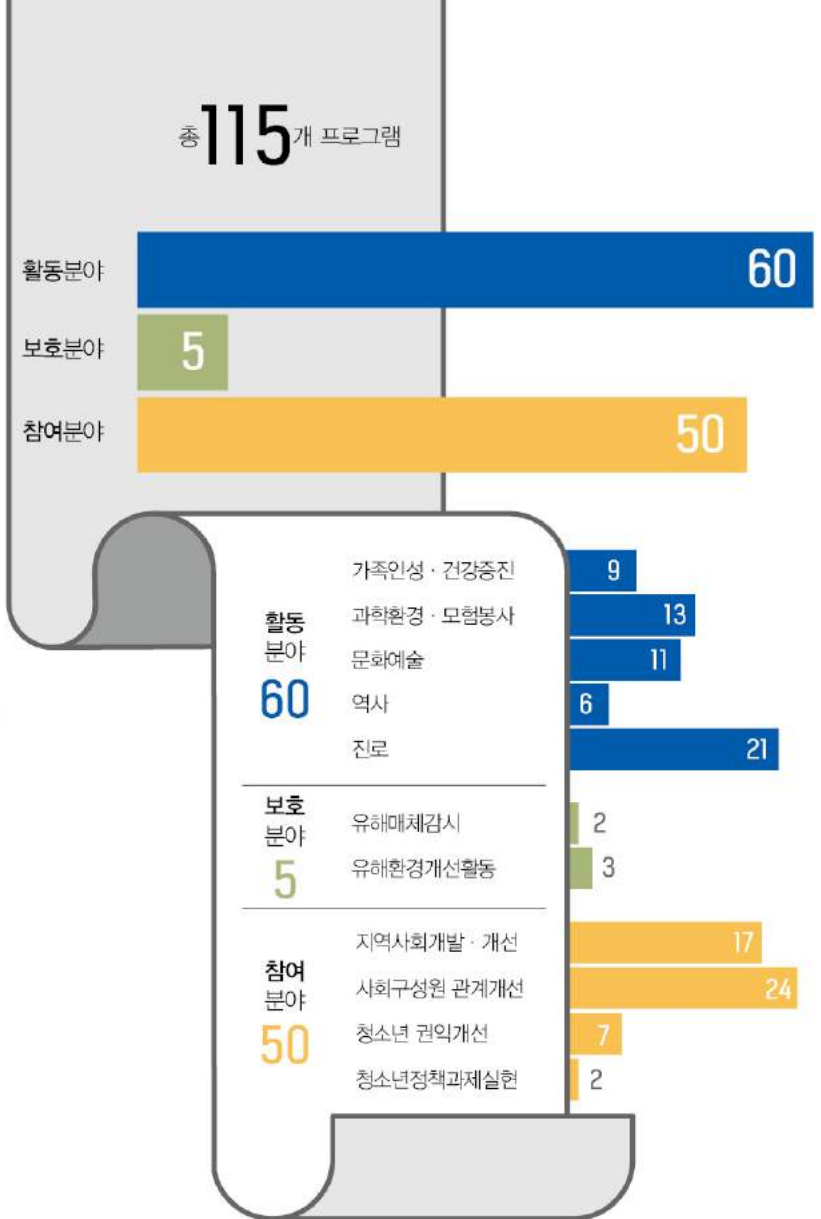
단위 : 원

분야	총 금액	평균
활동분야	560,000,000	9,300,000
보호분야	50,000,000	10,000,000
참여분야	100,000,000	2,000,000



## 지원결과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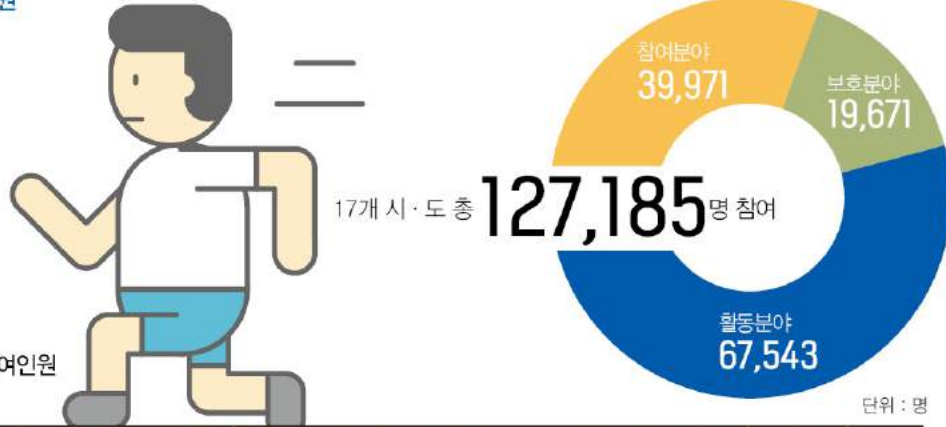


## 지역별 운영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활동	15	4	1	2	1	1	-	-	18	2	2	2	5	2	1	3	1	60
보호	4	-	-	-	-	-	-	-	1	-	-	-	-	-	-	-	-	5
참여	14	1	1	6	-	1	-	1	16	1	1	1	2	2	-	1	2	50
총합	33	5	2	8	1	2	-	1	35	3	3	3	7	4	1	4	3	115

총 참여인원



지역별 참여인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활동	14,753	1,534	477	602	700	0	979	31,412	1,765	0	727	948	3,394	318	8,612	1,164	158	67,543
보호	18,673	0	0	0	0	0	0	998	0	0	0	0	0	0	0	0	0	19,671
참여	17,341	386	135	7,842	0	0	393	10,794	291	189	480	484	319	327	0	230	760	39,971
총합	50,767	1,920	612	8,444	700	0	1,372	43,204	2,056	189	1,207	1,432	3,713	645	8,612	1,394	918	127,185

영역별 참여인원

구분	분야	인원
활동 67,543	가족인성·건강증진	11,732
	과학환경·모험봉사	8,651
	문화예술	10,787
	역사	3,307
	진로	33,066
보호 19,671	유해매체감시	4,316
	유해환경개선활동	15,355
참여 39,971	지역사회개발·개선	15,898
	사회구성원 관계개선	10,024
	청소년 권익개선	11,994
	청소년 정책과제 실현	2,055

단위 : 명

##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주요 운영 결과

사업공고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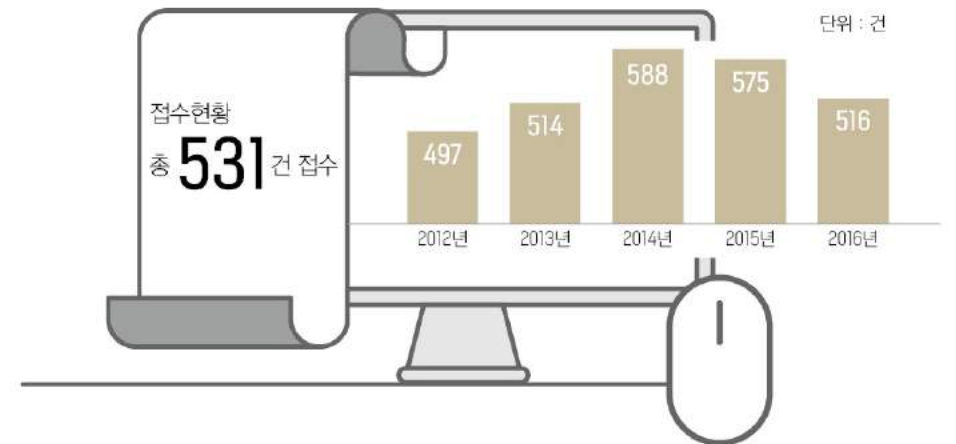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2.2.(목) 14:00
- 장소 : 카톨릭청년회관(다리)5층
- 주요내용 : 2017 공모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프로그램 접수

- 일시 : 2017.2.10.(금) ~ 15.(수)
- 접수방법 : 공모시스템(wsp.mogef.go.kr)을 통한 접수



- 프로그램 선정심사 회의**
- 일시 : 2017. 2.16.(목) ~ 28.(금)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회의실
  - 선정현황 및 심사위원

선정현황

단위 : 건

활동 접수 선정	진로직업	21	95
	모험·봉사	8	40
	문화예술·역사	17	98
	가족·인성·건강증진	9	93
	과학·환경	5	25
<b>총계</b>	<b>60</b>	<b>351</b>	
보호 접수 선정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2	20
	유해매체 감시 등	3	12
	<b>총계</b>	<b>5</b>	<b>32</b>
참여 접수 선정	지역사회개발개선	24	69
	사회구성원관계개선	17	51
	청소년권익개선	7	24
	청소년 정책과제 실현 (신설)	2	4
	<b>총계</b>	<b>50</b>	<b>148</b>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

심사일정	심사위원(소속)	심사분야(영역)
2.20.	조남익 교수 / 광운대학교	참여분야
	좌동훈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경 사무관 / 여성가족부	
2.21.	권혁도 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진로직업, 모험, 봉사, 과학, 환경
	김선희 교수 / 명지전문대학	
	문성호 교수 / 중앙대학교	
2.22.	유홍식 교수 / 중앙대학교	보호분야
	김성곤 사무관 / 여성가족부	
	권혁도 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23.	김지연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화예술, 역사, 가족, 인성, 건강증진
	김태동 주무관 / 여성가족부	
	권혁도 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28.	김진호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체 통합 심사
	김호순 교수 / 대원대학교	
	임희진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	김성곤 사무관 / 여성가족부	전체 통합 심사
	권혁도 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성호 교수 / 중앙대학교	
2.28.	유홍식 교수 / 중앙대학교	전체 통합 심사
	임희진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혁도 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선정기관 대상 설명회  
및 1차 워크숍

- 일시 : 2017.3.21.(화) ~ 30.(목)
- 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서울 종로)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연간일정 및 운영안내, 영역별 프로그램 컨설팅



현장방문

- 일시 : 2017. 6월 ~ 8월 (65개 기관)
- 장소 : 운영기관 사무실 및 프로그램 활동 현장
- 주요내용 : 활동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2차 컨설팅 실시



중간보고회

- 일시 : 2017.10.17.(화) ~ 19.(목)
- 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서울 종로)
- 주요내용 : 하반기 운영안내 및 중간 운영보고 (3차 컨설팅)



최종 평가

- 일시 : 2017.12.8.(금) ~ 20.(수)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우수프로그램 및 활동수기 심사
  - (우수프로그램) 최우수 12점, 우수12점, 총 24점 선정
  - (활동수기) 최우수 2점, 우수 4점, 총 6점 선정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선정심사결과

훈격 구분	사업명	기관명	지역
활동	가족행복프로젝트 우리마을 행복공예家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경기
	M.C.S (Multi Cultural Supporters)다문화 서포터즈	(사)함께하는공동체	강원
	청소년문화감성충진소 Crush On Art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경기
	'별' 붙일 있는 도봉 - 천사(천문역사)를 찾아서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
보호	4차 산업혁명 쏘~옥 진로 내비게이션	권선청소년수련관	경기
	소(상공인유위험종(요)한 노래「UP로드」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경기
최우수상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공간이야기 '세이프로드 Season2'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경기
	우리는 Youth 2642(이웃사이)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인천
참여	너와나 내가 만드는 '다이어리' - 다른 우리가 꿈을 이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려	중원청소년수련관	경기
	신명나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노바디 얼쑤'	세종시청소년문화의집	세종
	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안다.미로 시장 여행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경기
활동	우리동네 생생(生) 명인통(通)	서산문화복지센터	충남
	건강한 몸! 할 수 있다! 미래행복 프로젝트 'GOOD HEALTH'	서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서울
	꿈을 품은 마을 '우리동네 사(四)생활'	만안청소년문화의집	경기
	경go 보go 즐기는 길거리 Fun Around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경기
보호	물밭의 길목속에서 이바구와 함께하는 포켓 Talk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
	세프의 품격 - 중식편	광교청소년수련관	경기
우수상	청소년 직업체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덕신마을학교'	진해청소년수련관	경남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프로젝트 '알면 바뀌는 생활'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
	'울.화.동!' (우리 화합하고 소통해요!)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서울
	강정바다쓰기100점!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제주
참여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 프로그램 '망원동을 부탁해 시즌2'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서울
	버리지말개(犬) - 유기동물 보호 예방 프로젝트-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대전
	우리동네 아름다운 재능기부가 그린 벽화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경기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활동수기  
선정심사결과

훈격	부문	수기명	기관명	이름
최우수상	청소년	주·마·등 (주짓수, 마을을 지키는 등불)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권한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한 신발로 새로운 희망을 가늠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전희주
우수상	청소년	기억이 머문 풍경과 함께, 나는 이제 시작이다.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주빈
		그들도 우리처럼	중원청소년수련관	지수빈
	청소년지도자	미래앞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기까지 동행!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유라
		초짜배기 신입 청소년지도사, 가치 발견의 힘을 맛보다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서희주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

구분	심사위원
활동 · 보호	김선희 교수 명지전문대학
	김정주 박사 ㈜ 모든학교 연구소
	김지연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호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호순 교수 대원대학교
	유홍식 교수 중앙대학교
	임희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	좌동훈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경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혁도 부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번외

제2회 Y.P.A  
(Youth Program Awards)  
시상식

- 일시 : 2017.1.20.(금) 14:00~18:00
- 장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1부 : 개회식, 공모사업·문화예술 경과보고, 심사총평 및 시상식
  - 2부 : 우수사례 발표(공모사업2, 문화예술3) 및 정보교류 시간

구분	시간(분)	내용
1부	오프닝	14:00 ~ 14:15 • 오프닝 영상시청 • 오프닝공연 ※광고청소년수련관 상상학교 팀
	개회	14:15 ~ 14:30 • 국민의례 및 애국가제창, 묵념 • 개회식 - 개회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축 사 : 여성가족부
	경과보고	14:30 ~ 14:40 • 경과보고 - 2016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 2016 청소년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총평 및 시상식	14:40 ~ 15:30 • 심사총평 - (공모) 명지전문대학 김선희 교수 • 시상 -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총 26점) - 청소년문화예술지원사업 (총 26점)
	휴식	15:30 ~ 15:50 • 휴식
2부	사례발표	16:00 ~ 16:30 • 사례발표 - 공모사업 활동분야 - 공모사업 참여분야 - 문화예술 수기발표
	정보교류	16:45 ~ 17:45 • 정보교류의 시간 • 축하공연 ※샌드아트 (주제: 청소년활동)

※ 제3회 Y.P.A 시상식은 '18년도 1월에 진행됩니다.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가족인성건강증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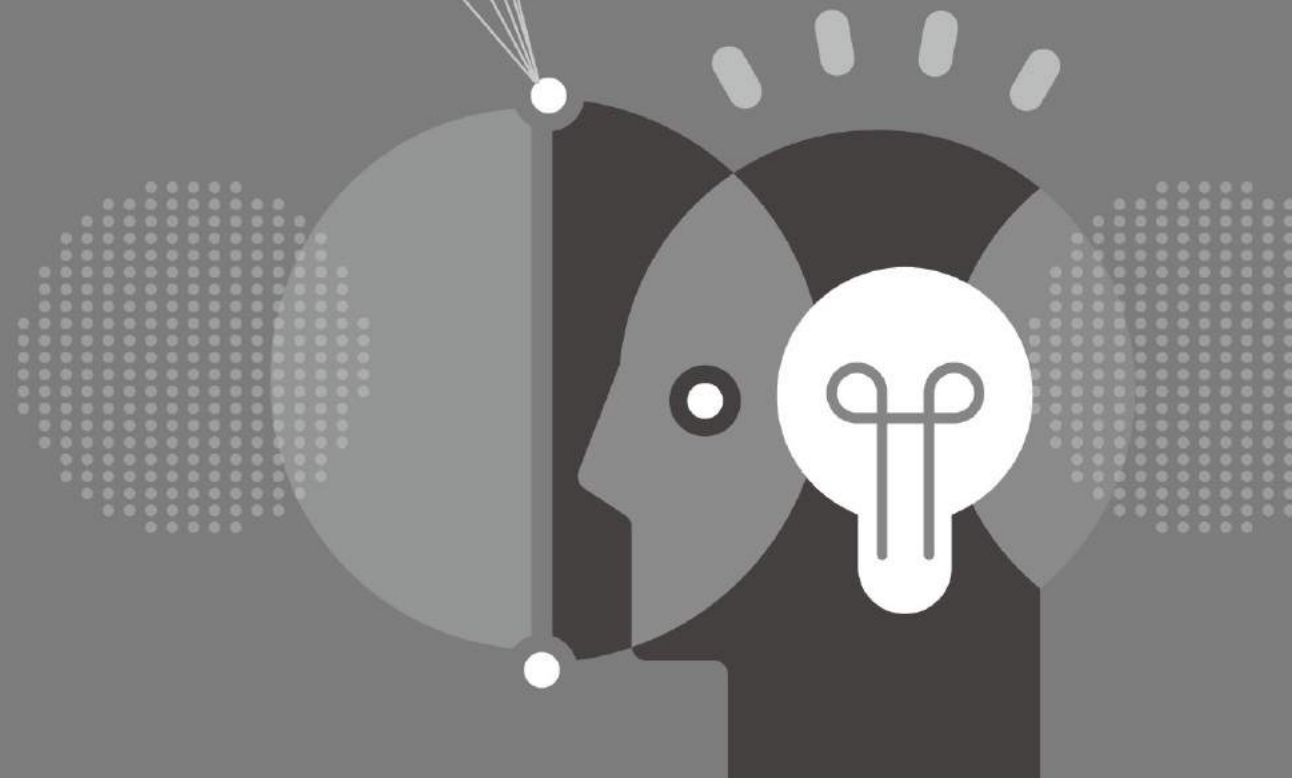
과학환경모험봉사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진로 영역

# 청소년 활동분야



# 청소년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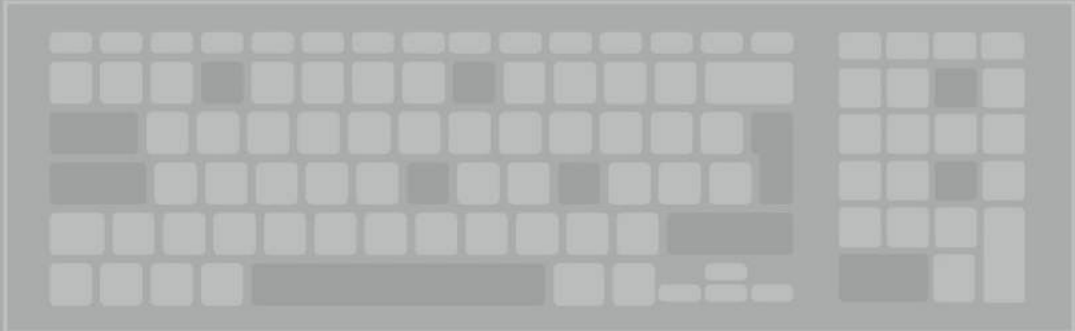
가족인성건강증진 영역

과학환경모험봉사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진로 영역



# 가족행복프로젝트 '우리마을 행복공예家'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예활동으로 가족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 11. | 참여인원 268명 | 참가대상 참가자 10가족 33명

- 주요내용
- 예술 공예 활동
  - 목공예 활동
  - 재능기부 활동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1252 석수1동주민센터 4층  
 전화번호 | 031-471-0833  
 대표자 | 이석구  
 실무자 | 심미보

# 건강한 몸! 할 수 있다! 미래행복 프로젝트 GOOD HEALTH



신체적·정신적으로 변화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건강 가치관 현성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사업기간 2017. 04. 22. ~ 12. 06. | 참여인원 5,800명 | 참가대상 아동·청소년·성인

- 주요내용
- 청소년건강지킴이 'Healer'
  -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 청소년 건강 특강
  - 청소년 건강 캠페인
  - 청소년 건강 축제 등



기관명 | 서울시립회곡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곰달레로57가길 26  
 전화번호 | 02)2061-1318  
 대표자 | 정상영  
 실무자 | 유현서

10공공통 디자인영  
10공공통 디자인영  
10공공통 디자인영

# 가족애(愛)로 호흡하는 가족만들기 [애.호.가]프로젝트

가족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가족식'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가지며, 가족응집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과 가족모두가 행복 할 수 있게함

사업기간 2017.04. ~ 11. | 참여인원 1,233명 | 참가대상 9세~24세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족 및 청소년,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만남'활동 (가족성격검사, 가족공동체활동)
- '호흡'활동 (가족반지 만들기, 가족사진촬영)
- '가족식'활동 (가족 서약서 낭독, 가족반지 교환, 가족증 수여 등)
- [애.호.가]프로젝트 '나눔축제' (가족사진 촬영, 가족팔찌 만들기, 홍보 포토존 등)



기관명 |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일로 9  
 전화번호 | 02-6673-8113  
 대표자 | 고흥복  
 실무자 | 김진수

# 청소년 인성도 아트하게!

지역사회 학교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1,778명 | 참가대상 초·중학교 청소년

### 주요내용

- 청소년인성워크숍
- 인성트라이앵글(인성역량 강화 프로젝트)
- 청소년 인성함양 캠페인
- 청소년 인성도감 제작
- 청소년 인성축제



기관명 |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76  
 전화번호 | 031-390-1470  
 대표자 | 배석근  
 실무자 | 이보라

# 청소년 건강리더단

대구 북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또래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건강의 중요성 알리고 건강증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청소년  
건강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 11.

참여인원 리더단 40명  
누계인원 477명

참가대상 중학생  
1학년~3학년

### 주요내용

- 청소년 건강리더단 발대식(1회)
- 오리엔테이션(1회)
- 리더양성교육(2회)
- 또래멘토활동(3회)
- 건강교실(2회), 건강부스(2회), 캠프준비(1회)
- 건강실천캠프(1회), 활동평가회(1회)



기관명 | 대구광역시북구청청소년회관  
 기관주소 | 대구 북구 검단로 71-17  
 전화번호 | 053)384-1317  
 대표자 | 최원제  
 실무자 | 이소영

# Dr.스트레스

창의적인 자기표현 방법 및 정신적 건강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건강증진지원단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 12.

참여인원 979명

참가대상 청소년  
건강증진기획단 31명

### 주요내용

- 그냥 있는 대회
- F.F.F(이색 걷기 대회)
- 워커툐는 당나귀 귀 (고민상담, 음성변조)



기관명 | 대전청소년워커툐센터  
 기관주소 |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08번지  
 전화번호 | 042-222-0924  
 대표자 | 권부남  
 실무자 | 박호건

#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H-STEAM

인성창의융합 H-STEAM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증진 및 상호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동체 창의체험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학생 525명  
학부모 235명

참가대상 초 5 ~ 고2, 학부모

### 주요내용

- H-STEAM 공동체 창의체험활동
  - '상호존중'활동: 나의 상징물, LED꽃밭
  - '공동체역사'활동: 친구고민상담소, 갈등해결 브레인스토밍, 공동체 피라미드
  - '세상 속의 나'활동: 미래기술 가상현실, 미래 생활 증강현실
- 부모교육: 창의적인 자녀를 위한 창의적인 부모 되기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기관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191 가길 34, 602호(공릉동)  
 전화번호 | 02) 938-1111  
 대표자 | 조청원  
 실무자 | 임주영

# 삶의예술학교 청년힐링캠프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 생명의 힘을 기르고,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나'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려움과 수치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업기간 2017. 03. 15. ~ 11. 30.

참여인원 34명

참가대상 중1~대2

### 주요내용

- 시간여행, 생명의 힘 등 내면 치유 프로세스
- 한라산 등반, 스노클링 및 카약 등 아웃팅
- 경청, 감사하기, 자존감업그레이드 등 관계증진 프로그램



기관명 | 삶의예술문화원  
 기관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남길 37  
 전화번호 | 064) 784-6850  
 대표자 | 이재형  
 실무자 | 송지호

# 세대공감 러브모션

–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니어웨딩 황혼의 로맨스

어르신 부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리마인드 웨딩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증진과 세대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8. ~ 09.** | 참여인원 **248명** | 참가대상 **15~23세  
청소년 30명,  
어르신 10명**



### 주요내용

- 세대공감 교육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웨딩플래너교육
- 어르신 라이프스토리 인터뷰 및 스토리보드 발표
- 사진교육 및 어르신 컨셉 데이트 촬영
- 황혼 결혼식 기획 및 진행



기관명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전화번호 | 031-328-9823  
 대표자 | 백소영  
 실무자 | 최정원

## 청소년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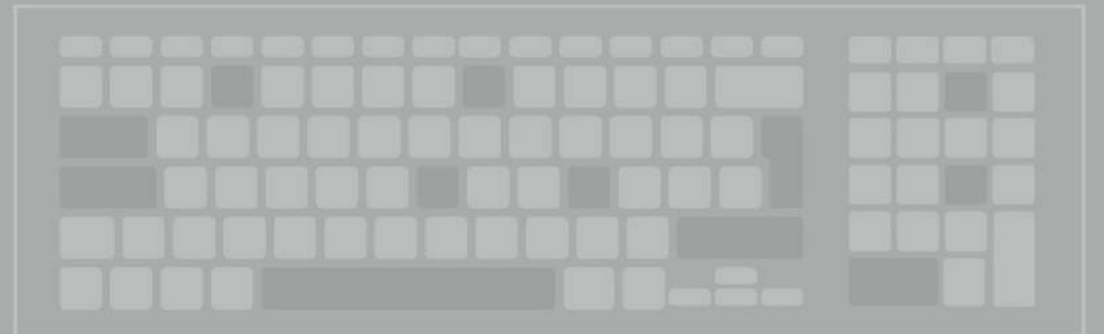
가족인성건강증진 영역

과학환경모험봉사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진로 영역



# M.C.S (Multi Cultural Supporters) 다문화 서포터즈



다문화, 이주 청소년 과 선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연 1,250명 | **참가대상** 9세~24세 다문화, 이주 청소년 및 선주민청소년

### 주요내용

- 흙길음 학교 - 다문화 청소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 다문화 캠프
- 이인삼각(二人三脚) - 이주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소통프로그램
- 이주민탐험대



기관명 |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기관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143-7  
 전화번호 | 070-7521-8097  
 대표자 | 최철영  
 실무자 | 최성실

# 꿈을 품은 마을 “우리 동네 사(四)생활”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견문도 넓혀 적성과 꿈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봉사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29. ~ 11. 18. | **참여인원** 390명 | **참가대상** 고등학교 1~2학년 26명

### 주요내용

- 독서활동(소리책 제작 및 전달)
- 예술활동(지역 벽화)
- 문화활동(마을 축제)
- 나눔활동(김장 체험 및 배부)



기관명 | 안양시만안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50,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 | 031-443-5774  
 대표자 | 이필운(운영대표자 : 박영미)  
 실무자 | 오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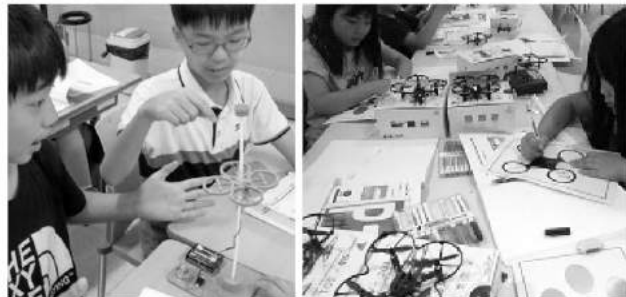
# 미래형 융합인재양성프로젝트

## - 꿈, 날개를 달자! Fly Drone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소외,배려계층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체험형 과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직업에 관한 꿈과 희망을 기를 수 있다.


**사업기간** 2017. 4. 20. ~ 11. 30.
 
**참여인원** 100명
 
**참가대상** 초3~중2

- 주요내용**
- 비행이론
  - 드론조립
  - 드론조종법
  - 안전교육
  - 비행대회
  - 포트폴리오 작성



기관명 |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협회  
 기관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9길8 223호  
 전화번호 | 02-2672-2146  
 대표자 | 안미경  
 실무자 | 장정문

# 지구를 살리는 적정기술 프로젝트

## 지구별 프로젝트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마을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개선시켜 청소년과 마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사업기간** 2017. 08. 23. ~ 11. 08.
 
**참여인원** 실인원 35명  
연인원 700명
 
**참가대상** 고1~2

- 주요내용**
- 지구시민교육 진행
  - 지구별프로젝트 진행(문과별 - 벽화, 놀이, 휴집)
  - 프로젝트 전시 및 부스 운영(마을 축제)
  - 평가회



기관명 |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39  
 전화번호 | 062971-5533  
 대표자 | 이재웅 관장  
 실무자 | 최승호

100명 청소년 대상  
100명 청소년 대상  
100명 청소년 대상

## 청소년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플라스틱 신드롬'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 환경문제와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 자원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문제해결 참여 유도


**사업기간** 2017. 04. 29. ~ 11. 11.
 
**참여인원** 연 670명
 
**참가대상** 마포구 관내 중학생 27명

###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 1회
- 프로그램 소양 교육 및 키트 실습 3회
- 소재 개발 및 홍보 활동(캠페인) 3회
- 업사이클 디자인 연습 2회
- 재생펠트 디자인 실습 4회
- 플라스틱신드롬 전시회 사전준비 1회
- 업사이클링 체험부스 1회
- 플라스틱신드롬 전시회 나눔활동 1회
- 최종 평가회의 1회



기관명 |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64  
 전화번호 | 02-332-2541  
 대표자 | 이희수  
 실무자 | 조진영

## 우주항공체험 '우주(Would You) 스페이스'

미래항공우주산업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대표적 항공기인 글라이더, 로켓, 헬리콥터 모형을 제작 및 체험하는 즐거운 과학 활동을 전개하고 비행원리 및 각 항공기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는 항공우주과학체험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520명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1, 2, 3학년

### 주요내용

- 뜬다뜬다 열기구-중학생 1, 2, 3 학년/120명(4회차)활동
- 활공하라 글라이더-중학생 1, 2, 3 학년/240명(8회차)활동
- 솟아올라 물로켓-중학생 1, 2, 3 학년/120명(4회차)활동
- 청소년 우주체험단-기 참가자 40명/40명(1회차)국립중앙과학관 방문하여 우주와 실생활3D 천체돔 체험학습활동 진행



활공하라 글라이더

솟아올라 물로켓

뜬다뜬다 열기구

기관명 |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기관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전화번호 | 063) 273-7993  
 대표자 | 이상준  
 실무자 | 안이순

# 도시양봉 프로젝트 Plan Bee

인류가 짓밟고 있는 환경과 생태를 위한 활동으로 벌을 키우고, 꿀을 따는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환경 관련 진로에 대한 탐색 활동

사업기간 2017. 05. ~ 11. | 참여인원 240명 | 참가대상 중학생 15명



- 주요내용**
- 양봉 실습 활동
  - 봉산물(꿀, 밀랍, 프로폴리스) 공예
  - 환경인식 및 활동 체험부스 운영

기관명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송림동 56-1)  
 전화번호 | 032-777-7942  
 대표자 | 김희량  
 실무자 | 강민준



# 청소년나눔리더양성사업 '위대한 탄생'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나눔캠페인, 나눔장터 등 나눔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미래세대 청소년나눔리더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210명 | 참가대상 16~18세 청소년

- 주요내용**
- 청소년 나눔스쿨
  - 나눔봉사활동
  - 나눔캠페인
  - 나눔캠프
  - 나눔장터



기관명 |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  
 기관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  
 전화번호 | 061-761-4438  
 대표자 | 이종용  
 실무자 | 감성경

## 생태지도 파부루

- 파주부루마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연생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부루마블 판을 제작하여 지역의 자연생태에 대해 홍보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235명 320명 | 참가대상 중 1, 2

### 주요내용

- 지역 자연생태 관찰
- 바다유리목걸이, 딱따구리 소리소품 제작
- 매미허물표본 제작
- 팀별 미션
- 사진 및 부루마블 판 전시회



기관명 |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전화번호 | 031-947-7942  
 대표자 | 박종훈  
 실무자 | 한수진

## 청소년재능기부프로그램 “문(문화기획)재(재능기부)적 아이들” 시즌2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잠재된 재능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을 지역 내 청소년 및 주민과 함께 나누며 청소년들만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01. ~ 11. 25. | 참여인원 1,833명 | 참가대상 중 · 고등학생

### 주요내용

- 나눔교육 및 기획회의
- 재능Upgrade(공예, 과학, 요리 등 팀별 재능교육)
- 청소년 재능나눔 활동 나눔 Day & 반짝체험
-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

기관명 | 마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19  
 전화번호 | 02-443-0100  
 대표자 | 연윤희  
 실무자 | 박현주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젝트 무지개빛, 봉사를 높여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함께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찾고, 관심분야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

재능기부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함.


**사업기간** 2017. 05. 13. ~ 12. 16.
 
**참여인원** 165명
 
**참가대상** 중도입국청소년/  
대학생

- 주요내용**
- 정기회의
  - 봉사기획활동
  - 수련관 내 재능기부 공연

**기관명** |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전화번호** | 02-2167-0100  
**대표자** | 이영의  
**실무자** | 김민정



## 둘이 또 같이(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병영체험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1대1로 짝을 이루어 실제 군부대에 들어가 몸소 군대를 체험. 군복입기, 장비설명, 병영에서 식사 등 군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소와 물건을 관찰 및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3. 01.~11. 30.
 
**참여인원** 144명
 
**참가대상** 장애인

- 주요내용**
- 당일 병영체험 연간 총 4회 진행
  - 전반기 2회, 후반기 2회

**기관명** |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기관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36  
 김안교병원 망막병원 지하 1층 저시력상담실  
**전화번호** | 02-2677-4662  
**대표자** | 미영순  
**실무자** | 서준열



# 제7회 DMZ미래길 걷기대회

DMZ에 대한 새로운지식(안보,통일,역사,환경)을습득하게하고 또한 전적지 견학과 병영체험을 통해 투철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고, 3박4일간의 단체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독립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함



2017. 08. 09. ~ 11.  
사업기간 (3박4일간)



남자 40명  
여자 40명  
총원 80명



참가대상  
국 내,외 중학교  
2학년 재학생 80명

### 주요내용

- 1일차 제4땅굴견학, 평화의담 통일의종 타종
- 2일차 병영입소, 남방한계선 트레킹, GOP (칠성전망대)견학, 전차부대견학,반합취사
- 3일차 작은음악회, 생존수영
- 4일차 해단식

기관명 | 사단법인 디엔지 미래연합

기관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 1019호(논현동 거평타운)

전화번호 | 02-482-3894

대표자 | 이준호

실무자 | 사무국장 김종한



## 청소년 활동분야

가족인성건강증진 영역

과학환경모험동사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진로 영역

# 청소년문화감성충전소 Crush On Art



소설, 영화, 뮤지컬 등 문학을 통해 얻은 문화감수성을 창작활동, 캠페인 봉사활동, 작은도서관 재능나눔활동, 토크쇼 기획활동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특화 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15. ~ 11. 18.

참여인원 연인원 901명

참가대상 고등 17~19세

### 주요내용

- L-Crush(문학에 몰들다) : 소설, 영화, 뮤지컬을 보고 문학토론 실시
- C-Crush(창작에 몰들다) : 문학토론을 기반으로 한 공예활동 실시
- V-Crush(봉사에 몰들다) :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부스 운영
- S-Crush(나눔에 몰들다) : 작은 도서관 재능 나눔 활동 전개
- T-Crush(대화에 몰들다) :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토크쇼 기획 및 운영



기관명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전화번호 | 031-485-1318  
 대표자 | 양애지(운영법인대표자) / 황혜정(시설운영대표자)  
 실무자 | 서희주

# 걷go 보go 즐기는 길거리 Fun-Around



정적이고 노후된 마을 길거리를 예술문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내 예술적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보행객들에게 시각적 유희 거리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기간 2017. 03. 25. ~ 11. 25.

참여인원 연인원 1,468명

참가대상 중·고등·대학생

### 주요내용

- 단원 역량강화 활동
- 소규모 미술봉사 프로젝트
-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관명 |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 6층  
 전화번호 | 031-729-9800  
 대표자 | 변호용  
 실무자 | 장은지

10공공미술사업  
10공공미술사업  
10공공미술사업

## 소외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우수성 인식과 민족적 동질성 함양



사업기간 2017. 03. ~ 07.



참여인원 300명



참가대상

중도입국, 탈북, 다문화 및  
농산촌청소년  
초중고 및 대학생

### 주요내용

- 전통 소금문화 체험(염전체험, 자염체험)
- 전통음식 체험(장아찌, 칼국수, 빈대떡, 떡메치기)
- 전통놀이 체험(웃놀이, 제기차기, 봉잡기, 팽이돌리기)



기관명 |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기관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18, 2층  
전화번호 | 043-221-2918  
대표자 | 김영희  
실무자 | 이한국

## 마을의 버려진 신발로 만드는 유스메이커무브먼트 「소하리 희망로드」

청소년의 창의성향상과 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버려진 신발로 정크아트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15. ~ 11. 11.



참여인원 2,710명



참가대상 관내 12세~24세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주요내용

- 메이커무브먼트에 관한 이론 교육 및 정크아트 제작교육
- 청소년 스스로 정크아트 제작 활동
-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크아트 갤러리
- 청소년이 배움을 나누고 공유하는 메이커페어

기관명 | 디딤청소년활동센터  
기관주소 | 광명시 성채로 52, 소하2동주민센터 4층  
전화번호 | 02-6332-0550  
대표자 | 박사라  
실무자 | 전희주



## 청소년감성소통 댄스컬 코리아-ura



자기표현력의 결핍의 청소년들에게 댄스컬이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 감정표현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소통력 증진 및 공감 능력 배양



사업기간 2017. 07. ~ 11.



참여인원 1,337명



참가대상 초 5 ~ 고 2학년

### 주요내용

- 표현과 소통 : 자기표현법 훈련을 통한 표현력 향상으로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

목 표 1	추진목표	목표회차	진행회차
프로그램 1	오리엔테이션	1회	1회
프로그램 2	자존감 및 자기표현검사 / 자기표현훈련을 통한 감성소통 활동	3회	3회

- 소통과 공감 : 감성소통 댄스컬을 통해 표현하는 세상이야기

목 표 2	추진목표	목표회차	진행회차
프로그램 3	전문 댄스컬 공연관람	1회	1회
프로그램 4	지역 내 청소년 감성소통 창구 '소통라디오'	2회	2회
프로그램 5	감성소통 댄스컬 창작활동 : 댄스컬 창작활동은 계획 회차로만은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가 회차를 진행해달라는 청소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확보 및 진행 회차 확대.	8회	18회

- 세상과의 소통 : 감성소통 창작 댄스컬 '소통'발표를 통한 사회적 연대감 신장 및 주체적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 수행

목 표 3	추진목표	목표회차	진행회차
프로그램 6	대한민국 축제 운영 - 민족 감성소통 댄스컬 '울림'발표회 1회	2회	7회
	- 공연, 체험, 캠페인 부스 운영 : 대한민국축제 준비를 위한 회차를 추가 확보하여, 체험부스 준비 및 친조립 섭외 등 청소년들이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참가자 평가회의		

기관명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대로 51-47  
전화번호 | 031-560-1530~1538  
대표자 | 박찬경  
실무자 | 윤소영

## 청소년 놀이문화 전파 프로젝트 “안테나 투어”

전파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찾아 청소년들만의 놀이문화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래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안테나 투어, 즉 여행을 통해 놀이 문화를 전파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187명



참가대상 고등학생  
1학년 ~ 3학년



### 주요내용

- 여행 가이드 교육
- 안테나 투어 전 구간 답사 2회 진행
- 안테나 투어 리허설 2회 진행
- 안테나 투어 전파활동 3회
- 안테나 투어 2회 진행



기관명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59번길 19  
전화번호 | 055-273-2117  
대표자 | 임영복  
실무자 | 최현진

#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진을 매개로 한 상담 및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이루고 사진첩 제작, 사진전시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취경험을 하여 청소년 개별 성장에 초점을 맞춘 활동

사업기간 2017. 04. 01. ~ 12. 01. | 참여인원 연인원 94명 | 참가대상 학교 밖 청소년

### 주요내용

- 멘토와 1:1 목표설정
- 사진을 활용한 개인상담 진행
- 참여자 직접 촬영 사진으로 사진첩 제작 및 사진전 진행



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주소 | 부산시 사하구 동메로 161 1층  
 전화번호 | 051-207-7179  
 대표자 | 황윤미  
 실무자 | 홍유라

# 서대문미래유산을 찾아 떠나는 인사이드서대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 내 유·무형의 자원을 발견하고 미래세대에게 전달을 하기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정서적 공유를 위해 미래유산 설문조사와 활동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278명 | 참가대상 중1~3



### 주요내용

- 기초소양교육(지역사회이해교육)
- 미래유산모니터링8회
- 서대문미래유산 TOP10 선정 리서치
- 미래유산 책자발간



기관명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연희동)  
 전화번호 | 02)334-0080(내선398)  
 대표자 | 황인국  
 실무자 | 오상봉

# 솔내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용기(龍旗)를 부딪혀보자”

청소년 “용기(龍旗)를 부딪혀보자” 프로그램은 용기놀이, 용기 부딪히기, 용기 이어 달리기 등의 활동성 있는 운동을 결합한 놀이이면서 계룡농악의 연주를 통해 기접놀이를 재현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연인원 1,000명 | 참가대상 초등학교 4~6학년

- 주요내용
- 계룡농악 장단 연습, 용기놀이 연습
  - 집중워크숍, 공연관람
  - 기접놀이 결과발표회

기관명 | 솔내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전화번호 | 063-278-8588  
대표자 | 김관우  
실무자 | 강진욱



# 이끼로 그리는 문화유산, 자라나라 수원화성

수원화성에 관련된 주요 역사스토리를 이해하고, 모스그래피티(이끼아트)를 통해 수원화성에 관련된 역사를 벽화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29. ~ 11. 04. | 참여인원 320명 | 참가대상 수원시 중, 고등학생 20명



- 주요내용
- 수원화성 역사교육
  - 모스그래피티 교육
  - 벽화 제작



기관명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기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전화번호 | 031-218-0400  
대표자 | 연구철  
실무자 | 윤효중

# 청소년문화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행복한 우리동네 놀이터”

“놀이터”공간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지역 청소년동아리연계 및 다양한 놀이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 11.** | 참여인원 **1,247명** | 참가대상 **지역 아동·청소년 및 주민**

운영단 : 지역 청소년동아리(중·고생)  
일반참가자 : 지역 아동·청소년 및 주민

### 주요내용

- 놀이터 프로그램 발대식
- 놀이터 활동기획단 소양교육 및 회기별 사전회의
- 놀이터 1~4회기 운영 (회기별 주제 상상, 소통, 공감)
- 놀이터 최종평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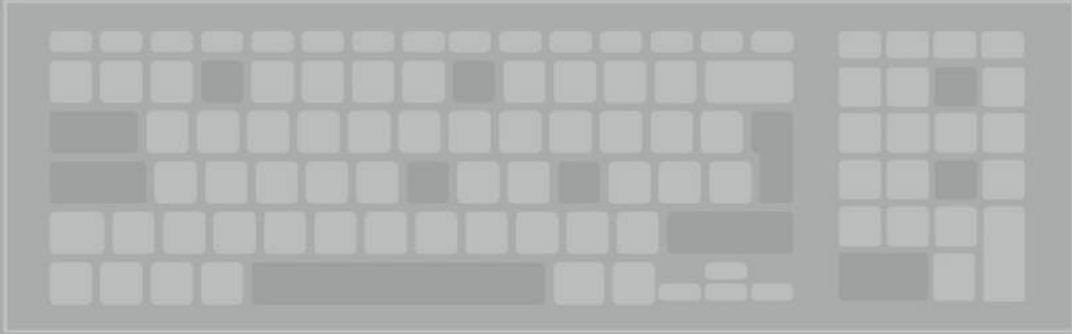


기관명 |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기관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50-3  
 전화번호 | 02-2604-7485  
 대표자 | 강석연  
 실무자 | 배준석

선정  
프로그램

## 청소년 활동분야

- 가족인성건강증진 영역
- 과학환경모험동사 영역
- 문화예술 영역
- 역사 영역**
- 진로 영역



# 별(★)볼 일 있는 도봉 - 천사(천문역사)를 찾아서



지루한 역사교육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색 천문 역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



2017.  
5. 13. ~ 9. 23.



참여인원 476명



참가대상 초등학교 4~6학년

###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 우리나라 천문역사교육
- 서울천문역사투어 및 천문역사캠프
- 미래 천문학 특강 및 활동 보고회



기관명 | 청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2길 89  
전화번호 | 02-908-0924  
대표자 | 하중래  
실무자 | 김영조

# 풀밭의 길목(초량)에서 이바구와 함께하는 포켓 Talk~(주머니 속 이야기)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통한 내고장 초량의 역사이해 증진 및  
문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2017. 06. ~ 11.



참여인원 423명



참가대상 초 4 ~ 중 3

### 주요내용

- 포켓셋뚜(초량) : 거꾸로 흐르는 시간나무 만들기, 10컷 사진 속 역사를 찾아 스토리 만들기
- 포켓몽을 향해 : 10컷 사진 속 장소 탐방(이바구길), 앙케이트 조사 활동
- 포켓 남 : 지금도 살아숨쉬고 있는 역사의 현장속으로(부산 최초 근대식 종합병원→ 현재 커피숍)
- 포켓 톡 : 초량과 우리의 이야기 (도시 조경화 만들기)
- 또다른 시각으로 보는 '초량' : 애니메이션 제작



기관명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전화번호 | 051-868-0750  
대표자 | 박용하  
실무자 | 안재민

## 애기애타(愛己愛他)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애국심을 함양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위한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3. ~ 08.

참여인원 490명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 주요내용

- 역사유적지 견학
- 토론활동
- 캠프활동



기관명 |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234  
 (방화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전화번호 | 02-2662-7360  
 대표자 | 차광선 총제  
 실무자 | 성효진 간사

## 움직이는 박물관학교

전라도와 지역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이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와 역사를 기억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역사의 흥미와 욕구를 가질수 있도록 역사요리활동, 역사탐험활동과 역사골든벨까지 연결고리를 응용하여 청소년들이 지루함이 없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수 있도록 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4. 26 ~ 10. 14.

참여인원 연인원 640명

참가대상 초 5. 6학년 ~ 중 1. 2학년

### 주요내용

- 역사놀이기행
- 역사요리기행
- 역사탐방기행
- 역사 골든벨 및 수료식



기관명 |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전북 남원시 관서당길 35  
 전화번호 | 063) 625-3312  
 대표자 | 류진호  
 실무자 | 황주연

## 2017 청소년이 만드는 “대담한 역사”시즌2 (대마도를 담은 한국역사)

대마도를 담습니다. 한국 역사를 담습니다.  
대마도에 있는,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한국 역사를 담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합니다.


**사업기간** 2017. 06. 17. ~ 11. 25.
 
**참여인원** 348명
 
**참가대상** 14세~17세  
중·고등학생 30명

- 주요내용**
- 역사동기화 교육
  - 대마도 내의 한국 역사 유적지 탐방
  - 활동 캠페인
  - 활동 나눔 및 활동 전시회



**기관명** |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전화번호** | 041)900-0776  
**대표자** | 유준수  
**실무자** | 이병우



## 역사GO!

청소년들이 역사를 학문적, 어려운 접근이 아닌  
문화·예술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604명
 
**참가대상** 중1~고3

- 주요내용**
- 역사기념관관람 · 교육
  - 연기 · 연극 교육프로그램
  - 역사적 퍼포먼스 진행
  - 역사 창작극 진행



**기관명**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261  
**전화번호** | 041-566-0179  
**대표자** | 윤여송  
**실무자** | 김은솔

# 청소년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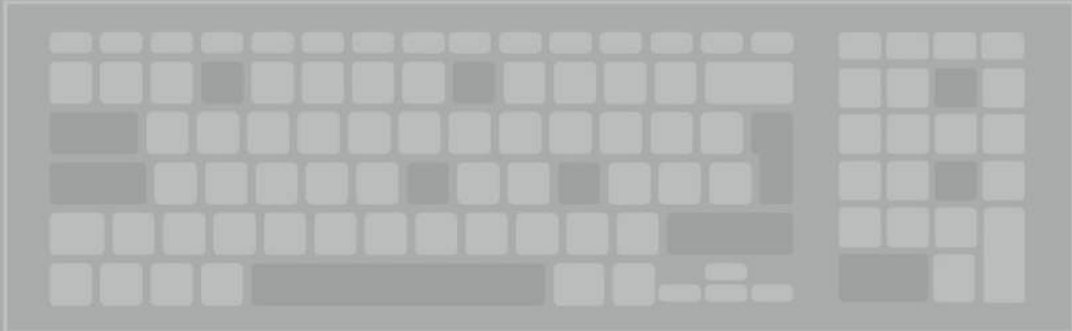
가족인생건강증진 영역

과학환경모험봉사 영역

문화예술 영역

역사 영역

진로 영역



# 4차 산업혁명 쏘~옥 진로내비게이션



'지금 내가 원하는 직업이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맞춰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

사업기간 2017. 04. ~ 10. | 참여인원 680명 |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



- 주요내용
- 진로전문교육(4차산업혁명의 이해, 창작활동 등)
  - 유비쿼터스의 이해 및 중요성 체험
  - 창의제품 기획 및 발표하기
  - 직접 만들어 보는 VR기기 및 VR 기어체험

기관명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권선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1번길 42  
 전화번호 | 031-226-1601  
 대표자 | 김정수  
 실무자 | 정유진



# 소(상공인을위한)중(요)한 노래 「UP로드」



'음악매체-로고송(CM송)'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4가지 직업(편곡가, 보컬트레이너, 영상편집가, 음악감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형태로 운영된 활동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20. ~ 11. 30. | 참여인원 1,879명 |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 24명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진로네트워크 구축
  - 자기이해, 진로탐색·설계, 직업체험(현장실습)
  - 진로캠프, 진로활동(자유학기제)
  - 연간 활동 성과발표회



기관명 |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5  
 전화번호 | 031-8045-4900  
 대표자 | 이석규  
 실무자 | 김문주

## 셰프의 품격 - 중식편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요리에 대한 막연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프로그램



2017.  
04. 15 ~ 11. 25



참여인원 458명



참가대상 14~18세 청소년

### 주요내용

- 중식요리 전문교육
- 요리나눔 봉사활동
- 진로·직업체험처 탐방
- 작품발표회

기관명 | 광고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24  
 전화번호 | 031-216-0756  
 대표자 | 변효정  
 실무자 | 강정근



## 청소년 직업체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덕산마을학교'



마을에 다양한 현장직업체험처를 마련하여 마을학교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현장직업체험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직업 인식과 가치관 확립



2017. 4 ~ 11.



참여인원 782명



참가대상 중학생



### 주요내용

- 마을학교 선생님 모집 및 협의체 구성
- 자문위원회 운영
-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업체험참여

기관명 | 진해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전화번호 | 055-540-0127  
 대표자 | 서영옥  
 실무자 | 김창울



## 우리 지역 직업찾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및 직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경험함으로써 직업 경험에 갈증을 해소하고 비전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 07.
 
**참여인원** 테마별 20명
 
**참가대상** 13세~19세 청소년 및 중고교생 20명

### 주요내용

- 감천문화마을가이드
- 장제사
- 신발피혁연구원
- 영화감독
- 산복도로 이바구꾼
- 어묵연구가
- 해양연구원



기관명 | 사단법인 심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  
 기관주소 | 부산 중구 대영로 242번길 1, 심대의벗  
 전화번호 | 051)462-7179  
 대표자 | 황신애  
 실무자 | 염상석

## 미디어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MVP(Media Vision Project)

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여 방송과 미디어관련 적성과 진로를 알아가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3. ~ 09.
 
**참여인원** 388명
 
**참가대상** 중 1~3

### 주요내용

- 미디어교육(영상 기획, 촬영, 편집, 시사화)
- 서울 방송국 체험(MBC, JTBC, YTN)
- 뉴스제작체험 활동(미포청소년수련관)
- MVP캠프(현직 PD, 촬영감독 특강, 라디오제작체험, 카메라만들기 체험, VR체험)

기관명 |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기관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산성빌로 89  
 전화번호 | 033-251-4004  
 대표자 | 원용훈  
 실무자 | 박미영



# 안동내기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진로체험 여행

안동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진로박람회를 통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5. ~ 11. | 참여인원 95명 | 참가대상 중, 고등학생 16명

### 주요내용

- 안동의 특색있는 직업군 탐색
  - 안동 목화당 목화솜 체험
  - 흑막 속의 하회탈 (하회탈만들기 명인)
  - 하회별신굿탈놀이 체험 (전수자)
  - 안동 전통음식(안동식혜, 장뚝뚝이) 체험
  - 안동포짜기 체험 (안동 무형문화재)
  - 안동 수애당 고택체험
- 진로체험여행 지도 제작, 홍보영상 제작
- 진로박람회 진로체험부스 운영
  - 진로체험 기회제공, 지도배포(홍보)



기관명 | (재)교운청소년재단  
 기관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33  
 전화번호 | 054-841-2324  
 대표자 | 김형수  
 실무자 | 한승도, 이건희

# 성·장 진로놀이터

[성(性)평등한 진로탐색을 넓히는 터전(張)]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꿈을 '성평등'한  
사회에서 맘껏 디자인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진로동아리 활동

사업기간 2017. 04. 06. ~ 11. 11. | 참여인원 246명 | 참가대상 중1~3학년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 주요내용

- 진로포트폴리오, 홀랜드 분석 활동
- 성평등교육, 성평등진로교육
- 직업체험
- 직업인과의 만남(남자간호사, 여자경찰관)

기관명 | 군포탁틴내일  
 기관주소 | 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34, 명동상가 4층 군포탁틴내일  
 전화번호 | 031-393-4141  
 대표자 | 김순천  
 실무자 | 고혜미



# 온(마을로) 통(하는) 행복한 꿈

“온(마을로) 통(하는) 행복한 꿈”사업은 50개의 꿈이룸 동아리 청소년들과 50명의 꿈이룸 멘토가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멋진 진로를 설계해 나갈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교육사업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여 우리마을과 진로진학정보를 공유하는 사업

**사업기간** 2017. 4. ~ 12.

**참여인원** 13,707명

**참가대상** 꿈이룸동아리, 꿈이룸멘토, 일반수혜청소년, 서포터즈

- 주요내용**
- 프로젝트1, 꿈이룸 동아리와 꿈이룸 지원단 '마주하다'
    - 꿈이룸동아리 멘티 멘토 매칭, 개별 인터뷰 등
  - 프로젝트2, 꿈이룸 동아리와 지원단, 우리마을 골목멘토를 '찾아가다'
    - 동아리별 멘토링 운영, 현장일터체험활동 운영 지원, 멘토링데이, 진로교육페스티벌 기획 운영
  - 프로젝트3, 우리마을 모두가 함께 큰잔치를 '벌이다'
    - 우리마을 진로진학큰잔치 기획 및 운영



기관명 | 김포시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전화번호 | 031-980-1660  
 대표자 | 유영록  
 실무자 | 이정호

# 청춘만세 (만화로꿈꾸는세상)

청소년들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은 만화 영역에서 만화동아리활동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만화Shop을 운영

**사업기간** 2017. 07.21~10.28

**참여인원** 195명

**참가대상**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만화동아리 블루스타 소속인 고등학생 10명 & 만화에 관심있는 청소년(공개모집) 5명 = 총15명

- 주요내용**
- 만화,애니메이션관련 직업의 세계, 관련학과 소개
  - 캐릭터그리기, 만화원고제작
  - 경제교육, 판매전계획서작성
  - 만화shop 준비 및 판매전 진행
  - 만화판매전 결과발표 및 소감나누기



기관명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남7길 12(청계동 12-9)  
 전화번호 | 055-252-8319  
 대표자 | 김양화  
 실무자 | 김슬아

10공공통과사업  
10공공통과사업  
10공공통과사업

# 청소년진로 · 직업체험 프로그램 “세계로 향한 비상! - 드론 -”

드론이라는 첨단산업의 시작단계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다.

사업기간 2017. 04. ~ 10. | 참여인원 13명 | 참가대상 중학교 2학년

- 주요내용
- 드론 기초이론교육
  - 드론 제작법
  - 드론조종 실습
  - 최고의 드론 정비사



기관명 | 박달재청소년수련원  
 기관주소 | 충북 제천시 박달로 256-46  
 전화번호 | 043-652-9222  
 대표자 | 이종진  
 실무자 | 문인수

# 꿈을 job자

위기(가능)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7. 14. ~ 10. 27. | 참여인원 연인원 194명 | 참가대상 본 센터 입 · 퇴소청소년

- 주요내용
- 사전교육(진로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이미지메이킹)
  - 직업체험프로그램(바리스타, 제과제빵, 슈가크래프트, 메이크업, 네일아트)
  - 취업지원프로그램(잡월드 견학, 모의면접, 진로멘토인터뷰, 미래설계서 작성)
  - 지역사회나눔활동 5회



기관명 | 부산광역시서버지단기청소년센터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8  
 전화번호 | 051)756-0924  
 대표자 | 정한숙  
 실무자 | 박혜은

# 청소년협동조합 창업 프로젝트 협.UP

협동조합 이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창업활동으로 진로 역량 개발

**사업기간** 2017. 06. 03. ~ 11. 11.

**참여인원** 연인원 362명

**참가대상** 고1~2 청소년



- 주요내용**
- 협동조합 강의 및 이용, 견학
  - 협동조합 창업 준비활동
  - 토크콘서트 창업 경진대회

기관명 |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전화번호 | 032-500-2200  
 대표자 | 관장 주정연  
 실무자 | 청소년활동팀 김상협



# 자유학년제 참여청소년 자기성장프로젝트 지역은 살아있는 학교! 그로잉-업(Growing-up)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배우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진로 멘토와 만남과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사업기간** 2017. 04. ~ 12.

**참여인원** 연인원 1,801명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

- 주요내용**
- 종합 진로 인프라(진로 멘토, 대학생멘토단, 공간) 구축
  - 기업 와디즈와 연계한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운영
  - 중학교 1학년 대상의 맞춤형 진로워크북 기획 및 제작

기관명 |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만교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5번길 37  
 전화번호 | 031-729-9600  
 대표자 | 김진명  
 실무자 | 김선화



# 2017 청소년 뉴미디어 진로체험 사.기.캐(사춘기의 기발한 캐스트)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를 기획·제작·공유하는 능동적 진로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미디어 진로역량 향상

사업기간 2017. 08. 29. ~ 11. 16. 11회기

참여인원 연인원 512명

참가대상 자유학기제 청소년 30명

### 주요내용

- 진로활동 동기부여
- 미디어의 이해 및 방송기획의 구성
- 미디어 기획·제작·편집
- 1인 미디어의 이해 및 스마트폰 활용법
- 공개방송



기관명 | 서울특별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전화번호 | 6252-1300  
대표자 | 한기호  
실무자 | 양은영

#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우리함께! 씽씽볼

성남시체육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포츠 분야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 및 이해하고,  
더불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6. 05 ~ 11. 27

참여인원 15명

참가대상 학교 밖 청소년

### 주요내용

- 펜싱, 복싱, 볼링 활동 (각 4회, 총 12회)
- 현장체험 (태릉선수촌 방문, 부스운영, 전국체전관람 등)
- 멘토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등

기관명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9 3층  
전화번호 | 031-756-1388  
대표자 | 한신수  
실무자 | 김효림



# 농산어촌 청소년-대학생 진로멘토링프로그램 '나'에게로 가는 길(진로)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대학생 연간 지속적인 진로멘토링(멘토링, 진로콘서트, 대학교탐방, 비전설계, 학과박람회, 청소년진로콘서트)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 고민 및 갈등, 경험 등을 나누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여 바람직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탐색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3. ~ 11.



참여인원 연인원 1,203명



참가대상 고등학생 250명, 대학생 30명

### 주요내용

- 대학생 역량강화활동 및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 2박 3일 진로멘토링 서울 진로캠프
- 찾아가는 1박 2일 여수 진로캠프

기관명 | 서울특별시립 미포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미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번호 | 02-3153-5900  
 대표자 | 한성우  
 실무자 | 설윤정



# 우리 동네 완주 기네스타 (Guinness Story Town)



'우리 동네 완주 기네스타'는 완주군 내 1세대 3세대 진로직업의 직접적 참여와 관심을 통한 지역이 키우는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꿈 독려로 로컬 기네스 명인명사의 이야기를 담은 해당 전문분야의 직무내용,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 전망 등을 소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200명



참가대상 중 1~2학년 20명

### 주요내용

- 진로인터뷰 : 진로검사(직업흥미/다중지능) 및 진로상담전문가 특강
- 우리 동네 로컬기네스 탐색 : 완주군 내 이야기를 담은 로컬 기네스 명인명사 발굴
- 로컬 기네스레터 제작 : 1세대 3세대 로컬 기네스 진로직업 체험을 통한 이야기를 담은 로컬 기네스레터 제작



기관명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하보상길 18-9  
 전화번호 | 063)262-7942  
 대표자 | 이종하  
 실무자 | 이희영

## 요리쿡(cook), 조리쿡(cook)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 사회적 능력을 기르며,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분배와 양보, 배려 등의 개념을 알게 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요리에 대한 흥미 유발과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



사업기간 2017. 03. ~ 11.



참여인원 108명



참가대상 중1~3

### 주요내용

- 진로 탐색을 위한 요리 활동
- 요리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및 협동심 고양
- 청소년축제 '즐거락' 요리나눔 부스 운영
-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 과일나눔'



기관명 |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전남 장흥군, 읍 흥성로 37-23  
 전화번호 | 061-863-0250  
 대표자 | 위명운  
 실무자 | 하주자

## 청각장애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꿈! Job! Go!

진로교육을 통해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미래설계를 준비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3. ~ 11.



참여인원 167명



국립서울농학교에 재학중인  
 청각장애청소년  
 고등1~2학년 9명



### 주요내용

- 실내 진로교육(직업흥미검사, 직무알기, 직업창작 활동 등)
- 청각장애인 선배와의 만남
- 진로체험 활동

기관명 | 종로장애인복지관  
 기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89 3층  
 전화번호 | 02-6395-7070  
 대표자 | 이화준  
 실무자 | 신정미



# 청소년이 미래다! We Are The Future!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하고 체험하여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0. | 참여인원 128명 | 참가대상 13~16세 중학생 20명

### 주요내용

- 직업탐색활동(미래유망직업 탐색 및 타임캡슐 제작)
- 직업체험활동(한국잡월드 탐방 및 다양한 미래직업탐색)
- 진로비전(미래 이력서 및 명함 제작/ 발표회)

기관명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전화번호 | 063-236-7142  
 대표자 | 김은수  
 실무자 | 김소라



# 청소년 보호분야



##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공간이야기 『세이프로드 Season2』



셉티드 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청소년 활동

사업기간 2017. 04. 26. ~ 11. 29. | 참여인원 269명 | 참가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사회 탐사 활동
- 셉티드 디자인 교육
- 바닥화 그리기(도안 및 그림)
- 안전 캠페인 활동

기관명 |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냇천로 31번길 33

전화번호 | 031-470-4700

대표자 | 이호석

실무자 | 손민지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프로젝트 알(면)바(꾸는)생(활)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환경보호단을 구성하여 대국민 캠페인 활동과 정기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5. 22. ~ 10. 28. | 참여인원 1,291명 | 참가대상 14세-24세 청소년, 강북권 사업주(성인)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
- 활동 보고회

기관명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89

전화번호 | 02-908-0924

대표자 | 하중래

실무자 | 김영조

##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학업중단등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사업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검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기간** 2017. 03. 13. ~ 11. 30.
 
**참여인원** 3,570명
 
**참가대상** 3,570명



### 주요내용

- 흡연예방교육
- 금연학교
- 체험부스
- 템플스테이
- 인성캠프

**기관명**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  
**기관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6  
 대성빌딩 606호  
**전화번호** | 02-747-1388  
**대표자** | 이병화  
**실무자** | 이복근



## 청소년 인터넷방송 감시활동

청소년 인터넷방송 감시활동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사업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1,902명
 
**참가대상** 중1~고2



### 주요내용

- 인터넷방송의 이해 기본교육
- 청소년 인터넷방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청소년 인터넷방송 바로보기 인터넷방송물 제작
- 청소년 인터넷방송 바로보기 교육
- 청소년 인터넷방송 바로보기 지킴 홍보물 배포 및 확산

**기관명** | 강남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전화번호** | 02-544-9725  
**대표자** | 강민아  
**실무자** | 김수진



# 건강한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안을 제작하고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예방특강 실시함과 더불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도박문제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미디어문화를 확산 함



사업기간 2017. 03. ~ 12.



참여인원 13,066명



참가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지도사, 일반시민

## 주요내용

-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교육안 개발 및 자문
-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강사 전문교육 /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포레상담자 집단상담

기관명 | 서울시립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기관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번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슬기동 2층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전화번호 | 02-836-1385~8

대표자 | 박세라

실무자 | 김희주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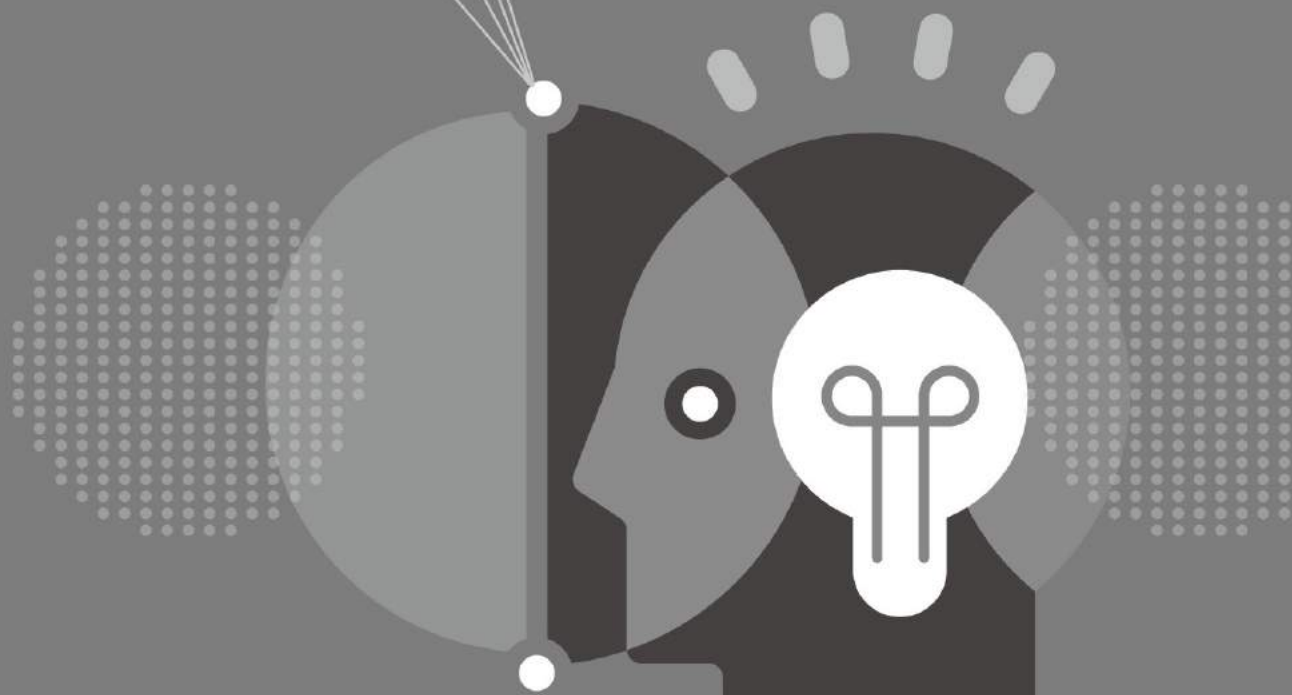
# 청소년 참여분야

사회구성원관계개선 영역

사회구성원관계개선 영역

청소년권익개선 영역

청소년정책과제실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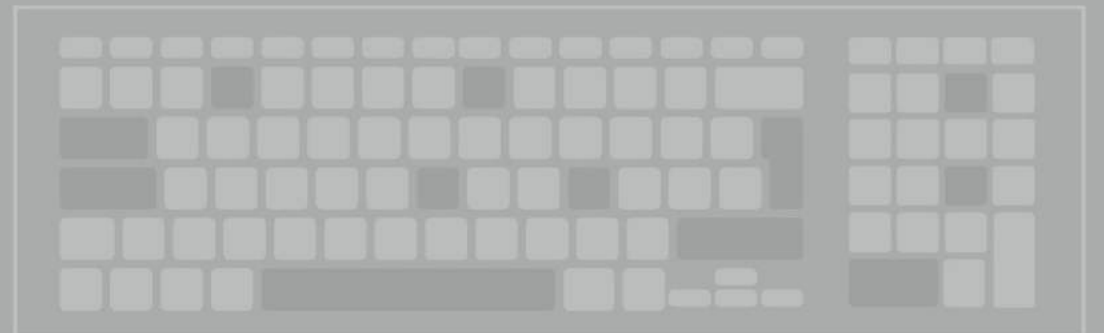
# 청소년 참여분야

사회구성원관계개선 영역

지역사회개발개선 영역

청소년권익개선 영역

청소년정책과제실천 영역



#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



지역사회 내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몸소 실천, 인식개선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함


**사업기간** 2017. 05. 13 ~ 12. 23.
 
**참여인원** 1,372명
 
**참가대상** 중2~고3

### 주요내용

- 경비원 인식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 대상 서명운동 및 캠페인 활동
- 경비원 대상 나눔의 2642활동(부채, 간식, 장갑 전달)
- "이웃사랑 아파트" 4곳 선정 후 현판전달식



**기관명**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 | 032-580-1190  
**대표자** | 박소영  
**실무자** | 김경미



# 너와 내가 만드는 '다이어리'



청소년자원봉사단이 직접 기획한 다문화 교육봉사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초등학교, 중·고 청소년, 전공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세계여행과 직업여행을 테마로 진행하는 교육봉사 및 캠페인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625명
 
**참가대상** 초·중·고·대학생 청소년

### 주요내용

- 다이어리 기획단 회의 (7회)
- 다이어리 캠페인 (3회)
- 세계문화체험 활동 (6회)
- 직업체험 활동 (6회)



**기관명** | 중원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전화번호** | 031-729-8300  
**대표자** | 정영숙  
**실무자** | 최은진



# 신명나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노(는 물을 달라도)·바(라는 대로 서로의)·디(뎀돌이 되어보자) 얼썬!!”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민요&난타”로 구성되어  
세대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 함



사업기간 2017. 04. ~ 09.



참여인원 189명



참가대상 고등학생 1~2학년  
어르신 65세이상

### 주요내용

- 민요의 역사와 장단 알아보기
- 노랫가락, 소리배우기
- 난타의 기본에 대해 알고 박자 익히기
- 민요&난타 공연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22  
전화번호 | 044) 867-7939  
대표자 | 송지호  
실무자 | 이윤희

# 울.화.통! - 우리 화합하고 소통해요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세대 간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08. ~ 11. 18.



참여인원 388명



참가대상 중2~고3

### 주요내용

- 기본교육 및 정기회의
- 경로당연계 및 방문활동 진행
- 홀몸어르신 댁 연계 및 방문활동 진행
- 장수떡국잔치



기관명 |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서울 마포구 도화2길 77  
전화번호 | 02-6925-2684  
대표자 | 홍영식  
실무자 | 이슬

# 청소년 지친마음 안아주기 Project

## 「포(기하지 않는 그대를) 옹(호합니다.)」

사회 및 개인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긍정적 자아 형성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15. ~ 11. 25. | 참여인원 280명 | 참가대상 중1 ~ 고3

### 주요내용

- 자존감 증진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및 결과 도출
- 달콤창고 개설 및 운영, 홍보 활동
- 프리허그, 지문서약나무 만들기 등 캠페인 활동
- 활동 결과물 UCC 홍보 자료 제작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견단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88번길 3  
전화번호 | 032-569-2335  
대표자 | 윤지상  
실무자 | 서기원



# 소원을 말해봐

소외계층인 학교밖청소년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선순환적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22. ~ 11. 29. | 참여인원 연인원 195명 | 참가대상 13세~19세

### 주요내용

- 천연비누, 석고방향제 제작법 습득 및 생산
- 지역의 축제기간에 맞춰 생산 물품 판매 활동
- 판매수익금을 활용한 독거어르신 소원 들어기 프로젝트



기관명 |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관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3층  
전화번호 | 061-363-9586  
대표자 | 이흥주  
실무자 | 이용진

# 패밀리GO

AR(증강현실)게임 패밀리고 제작 및  
게임대회를 운영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



사업기간 2017.  
03. 18. ~ 11. 18.

참여인원 20명753

참가대상 중1~고3

## 주요내용

- 가족이 함께하는 AR(증강현실)게임개발
- 지역문화축제 게임대회 운영
- 가족사랑 캠페인 운영

기관명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중동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길포로 76  
전화번호 | 031-980-1616  
대표자 | 유영록  
실무자 | 판창훈



# 미담- 대신-전달 해드립니다.

지역사회 소소한 미담거리를 제보 받아  
대청마루 기획단이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대상자들에게 돌려주는 미담 대신 전달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 12.

참여인원 134명

참가대상 고등학교 2학년 ~  
대학교2학년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미담 제보
- 미담 프로그램 만들기
- 미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 평가회의

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  
전화번호 | 053-639-7014  
대표자 | 서영우  
실무자 | 이용희

# 텃밭 가꾸기로 겪는 성장통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텃밭을 가꾸어 소통하고 문화동 내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 문화동 주민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 시키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8. ~ 11. | 참여인원 250여명 | 참가대상 중3~고2

- 주요내용**
-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활동 진행
  -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소통카페 '당신이 먹는 사이에'

기관명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7길 12  
 전화번호 | 065-252-8319  
 대표자 | 김양화  
 실무자 | 류지영



# “춤”바람 부는 동네

문래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의 댄스 나눔 활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안무를 창작하고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에게 댄스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의 역량 강화와 문화 격차의 해소, 구성원 간 관계 개선에 이바지 함

사업기간 2017. 05. 21. ~ 11. 26. | 참여인원 391명 | 참가대상 중/고/대학생



- 주요내용**
- 정기모임 및 연습
  - 수련관 내 재능기부 공연
  - 문화 재능기부활동 (댄스교육봉사)

기관명 |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전화번호 | 02-2167-0100  
 대표자 | 이영희  
 실무자 | 장은지

10권10장 10권10장 10권10장 10권10장 10권10장

## 다정하고 정답게 하나되는 우리(다정하리)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청소년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480명 | 참가대상 고1~고3

### 주요내용

- 어린이주말프로그램
- 앙로원 주말프로그램
- 벽화봉사활동

기관명 | 산남부영사랑으로작은도서관  
 기관주소 |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동원흥로14  
 전화번호 | 043-298-0442  
 대표자 | 박완희  
 실무자 | 박병준



## 토요일의 다양한 즐거움 토.다.락

다양한 체험 거리 및 놀이, 공연 등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즐기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축제

사업기간 2017. 08. 26.~11. 30. | 참여인원 1,245명 | 참가대상 청소년 및 동반 가족 누구나

### 주요내용

- 기획 회의
- 토다락 진행
- 평가 회의

기관명 | 서화청소년문화센터  
 기관주소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전화번호 | 031-637-6591  
 대표자 | 조계형  
 실무자 | 조성우



## 찾아가는 안전한 대리어카 프로젝트

안전키트 배포와 캠페인을 통한 폐지수거 어르신의  
안전한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내 긍정 인식 확산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771명 |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청소년 23명, 폐지수거 어르신



### 주요내용

- 안전메뉴얼·안전키트 제작 및 배포활동
- 사랑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수익금으로 폐지수거 어르신 방한용품 구입 및 배포
- 폐지수거 어르신 명함제작 및 지역상점 내 배포
- 지역사회 내 폐지수거 어르신 인식개선 캠페인



기관명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2  
 전화번호 | 031-471-0833  
 대표자 | 이석규  
 실무자 | 박영지

## 청소년과 어르신의 소통과 공감의 장 '우리의 유쾌한 시간'

문화/예술/학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노인관련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공예체험, 문화체험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함

사업기간 2017. 09. 20. ~ 11. 29 | 참여인원 연인원 140명 |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주요내용

- 자원봉사 소양 교육
-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공예체험, 문화체험, 예술체험 등)
- 활동 보고 및 평가

기관명 | 영월군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전화번호 | 033-813-1388  
 대표자 | 박금성  
 실무자 | 박승기





# 다(함께하는) 문(화활동), 화(합의 장을 향해서) 프로젝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적응을 위한 한글교육,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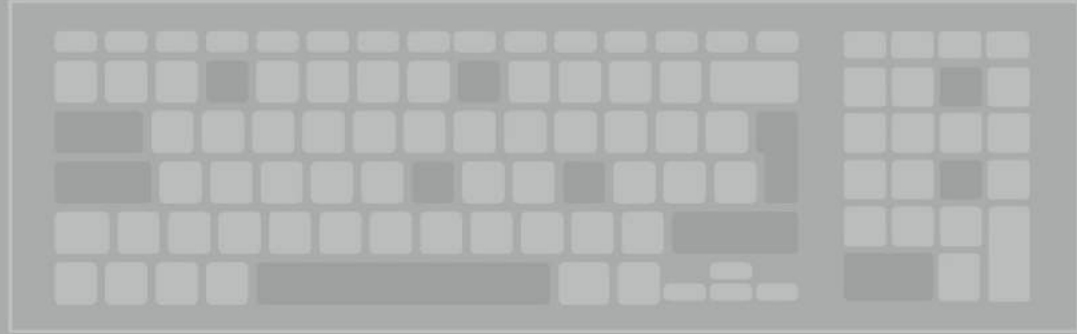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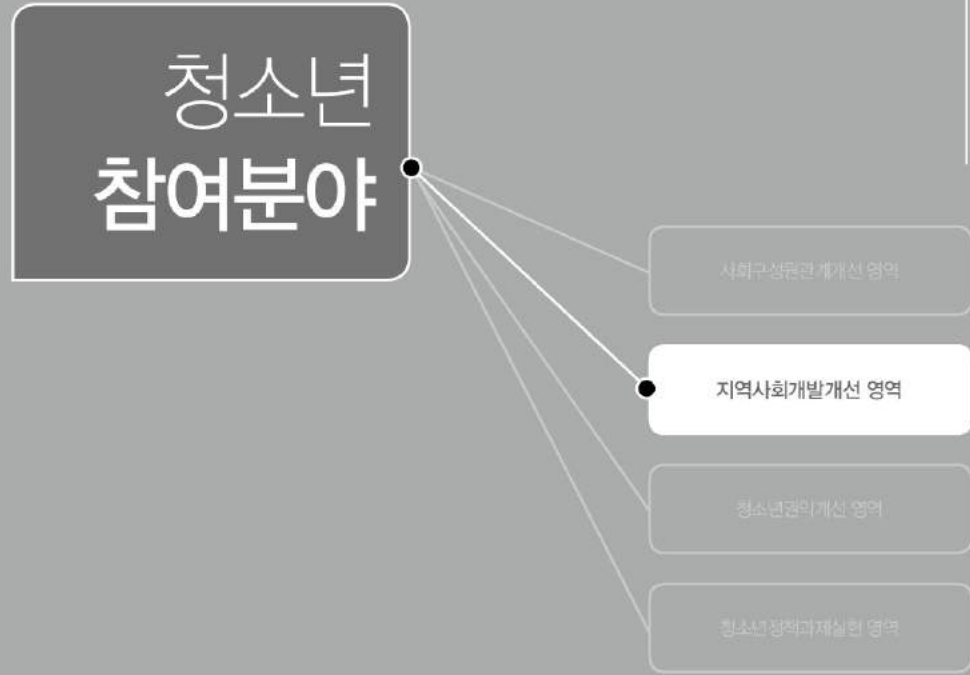
참여인원 25명 (연인원 276명)

참가대상 이주배경청소년(초등) 중1~고3

- 주요내용
-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 멘토-멘티 한글교육
  - 한국적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외갓집체험마을 탐방)



기관명 |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동진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10-30 2층  
 전화번호 | 031)997-5165  
 대표자 | 함선영  
 실무자 | 김지민



#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안다.미로 시장여행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홍보, 재능나눔, 문화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참여활동

사업기간 2017. 05. 13. ~ 11. 28. | 참여인원 792명 | 참가대상 중, 고등학생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인식조사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
- 재능나눔마켓 운영
- 시장 환경개선 벽화제작



기관명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07번길 12  
 전화번호 | 031-729-9550  
 대표자 | 최경환  
 실무자 | 양우미

# 우리 동네 생생(生生) 명인통(通)



지역사회 전통문화의 명인을 찾아 교류활동을 하며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잊혀진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알리기 위한 활동

사업기간 2017. 04. 15. ~ 11. 04. | 참여인원 484명 | 참가대상 중2~고2

### 주요내용

- 명인과의 교류활동 I 전통문화 소재지 견학
- 명인과의 교류활동 II 전통요리체험
- 지역사회 전통문화 포트폴리오 작성 및 홍보영상 제작
- 우리 것을 알리자! 지역 페스티벌 홍보 활동 전개



기관명 | 서산문화복지센터  
 기관주소 | 충남 서산시 서령로 136  
 전화번호 | 041)660-0210  
 대표자 | 김완중  
 실무자 | 이미진

# 강정바다쓰기 100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정바다 와 올레길 정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강정바다쓰기 100점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환경운동 전파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200명	참가대상	중1~고3
------	-----------------	------	------	------	-------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참여의식 확대로 진정한 방향설정과 청소년시설활성화 도모

- 보컬트레이닝을 비롯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청소년요가 전파 사업
-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 사업

기관명 | 강정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동물로 112  
 전화번호 | 064)739-0046  
 대표자 | 조경철  
 실무자 | 고민희



#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 프로그램 '망원동을 부탁해'시즌2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의 주거공간 및 외부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 취약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4. 29. ~ 11. 25.	참여인원	연 416명	참가대상	14~19세 중·고등학생 21명
------	-------------------------	------	--------	------	----------------------



### 주요내용

- 독거어르신 주거공간 개선활동 (도배·장판 시공 및 청소, 가구 리폼활동 등)
- 주거취약지역 외부환경 개선활동 (우편함 디자인 및 제작, 공유물품 '의자'제작)
-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독거어르신 점심 대접, 디퓨저 및 트리 제작, 사진 전시 및 포토존 운영)

기관명 |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기관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64  
 전화번호 | 02-332-2541  
 대표자 | 이희수  
 실무자 | 조진영

# 버리지 말개(犬) - 유기동물보호예방프로젝트



버리지말개(犬) 프로그램은 추위와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유기동물들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유기동물보호예방을 위한 캠페인활동



사업기간 2017. 04. 08. ~ 11. 30. | 참여인원 393명 |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 주요내용

- 참가 청소년을 위한 유기동물 관련 교육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교육
- 지역사회 유기동물보호예방 캠페인 활동
- 학교 유기동물보호예방 캠페인 활동
- 도솔청소년문화의집 유기동물보호예방 캠페인 활동 및 홍보물 상설운영



기관명 |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97번길41(도마동)  
전화번호 | 042-525-1913  
대표자 | 김기철  
실무자 | 김영란

# 우리동네 아름다운재(능기부)가 그린 벽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농촌 벽화마을 조성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 참여인원 연인원 295명 | 참가대상 고등1~3학년

### 주요내용

- 벽화마을 탐방
-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마을 조성
- 벽화 활동 및 재능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



기관명 |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10-30, 2층  
전화번호 | 031) 997-5165  
대표자 | 함선영  
실무자 | 김선연



## G - G 프로젝트

(그랑환경탐사단 - 그린시티하남 프로젝트)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생태환경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생태환경활동을 체험 및 봉사활동으로 실천하여 푸른 청정도시 - 하남시로 만들고자 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3. 25. ~ 11. 25.
 
**참여인원** 217명
 
**참가대상** 중1~고1

### 주요내용

- 하천정화작업 활동(EM 흙공 만들기 및 하천에 던지기)
- 유해식물제거작업
- 생태캠프
- 부추기끼페스티벌 및 생태환경지킴이 캠페인



기관명 |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12, 3층  
 전화번호 | 031-794-7142  
 대표자 | 조재영  
 실무자 | 조경준

## 문전성시

(부제: 재래시장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동구지역 청소년의 참여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자치적으로 찾아 실천하고 시장에서의 각종 경제행위, 상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5. 04. ~ 2017. 11.
 
**참여인원** 300명
 
**참가대상** 고 1~2학년

### 주요내용

- 시장모니터링 및 상인인터뷰
- 시장지도 수정 및 시장 환경정화 활동
- 일일상인체험 및 장보기도우미 활동
- 시장미션레이스
- 시장활성화캠페인



기관명 | 인천동구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인천 동구 솔빛로 82 (동구 송림동 56-1)  
 전화번호 | 032)777-7942  
 대표자 | 김화량  
 실무자 | 박수민



## 정이 가득한 중랑구 전통시장과 만나기 '마켓팅(Market+Meeting)'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기지단이 중랑구 내 전통시장을 알리고 각 점포들의 색다른 이야기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통시장 내 사람들의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를 모아 소식지를 발간하고 배포함으로써 지역 시장 상권 강화에 이바지함


**사업기간** 2017. 06. 10. ~ 11. 25.
 
**참여인원** 90명
 
**참가대상** 중1~고3



###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
- 6월 취재 'MAPPING'(시장 지도 만들기)
- 7~8월 취재 'MEETING'(집중 인터뷰)
- 9월 취재 'CASTING'(시장 이용 시민 앙케이트)
- 소식지 제작 및 배부



기관명 | 시립양우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전화번호 | 02-492-7942  
 대표자 | 신종원  
 실무자 | 양대성

##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안전한 우리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You익 You해 청소년전파단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내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으로 개선


**사업기간** 2017. 06. 03. ~ 11. 11.
 
**참여인원** 1,276명
 
**참가대상** 중, 고등학생 청소년



### 주요내용

- 지역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양천구 지역 조사 활동
- 청소년 유익 유해 환경 알리기 캠페인 활동
- 양천구 유익 유해 환경 지도 제작 및 배포



기관명 |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전화번호 | 02-2642-1318  
 대표자 | 맹길재  
 실무자 | 김선아

# 우리의 재능으로 골목을 바꾼다! 골목의 귀재

중구 토박이 청소년들이 골목 리모델링 및 이웃 간 관계형성에 기여,  
골목 인식 개선을 주도적으로 하는 지역참여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2.



참여인원 1,020명



참가대상 너와나봉사단 15명,  
지역주민

### 주요내용

- 초등생 대상 골목체험활동 '골목 런닝맨' 운영
- 골목 인식개선 지역참여 캠페인 전개
- 골목 리모델링 및 골목 소통 축제 운영



기관명 | 서울중구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http://www.j-youth.org/>  
전화번호 | 02-2250-0500  
대표자 | 박현수  
실무자 | 변선아

# 청소년 여행길잡이 “전주 꽃심 투어”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관광도시 특색을 살려 청소년이 직접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여행하며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여행정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사회를 홍보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6. ~ 10.



참여인원 100명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20명



### 주요내용

- 블로그 제작 및 여행정보 및 활동 게시
- 멘토와의 만남(여행작가, 블로그기자단)
- 전주명소 출사(전주 덕진공원, 한옥마을)
- 타 지역 청소년 초청 일일여행가이드 진행

기관명 | 솔내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전화번호 | 063-278-8588  
대표자 | 김관우 관장  
실무자 | 김규현 청소년지도사



## 한성백제 문화재를 지키는 기운 센 청소년들(한성백제 문.지.기)

'한성백제 문지기'는 역사동아리 '역동'의 청소년들이 송파구의 역사유적인 한성백제를 알리고자 직접 탐방하여 알아보고 청소년문화해설사가 되어 다른 청소년들에게 한성백제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성백제의 역사를 전파하고자 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4. 22. ~ 11. 25. | **참여인원** 연인원 300명 |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 주요내용

- 역사유적 탐구 : 사전 실내조사, 현장 탐방조사
- 한성백제 교육 : 관련 박물관 문화해설사를 통한 교육 진행
- 한성백제 전파 : 청소년문화해설사가 되어 또래 청소년에게 전파



기관명 | 송파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수련관  
 전화번호 | 02-449-0500  
 대표자 | 홍승현  
 실무자 | 김혜지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벽화 캠페인 “밝은 모퉁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과 벽화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 및 참여 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3. ~ 11. | **참여인원** 1,999명 | **참가대상** 중, 고등학생 20명

### 주요내용

- 기획회의 및 친목 활동
- 청소년 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 청소년 폭력 예방 벽화 봉사 활동 진행
- 청소년 축제 및 벽화 사진전 진행



기관명 |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 광진청소년수련관  
 전화번호 | 02-2204-3130  
 대표자 | 오광진  
 실무자 | 최서율

## (대)한국인을 (홍)보하는 (청)소년 봉사(단)

내·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문화 홍보와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외국인은 물론 청소년 스스로의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임

사업기간 2017. 03. 11. ~ 11. 11. | 참여인원 368명 | 참가대상 중1~고3

### 주요내용

- 홍보기획 및 자료조사
- 홍보 및 리서치 자료 제작
- 내·외국인대상 홍보활동 (인사동, 명동)
- 중간평가 및 자료 보충 작업
- 자체평가 및 결과도출



기관명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전화번호 | 02-2264-2510  
대표자 | 김규범  
실무자 | 이선혜



## 주·마·등 (주짓수 마을을 지키는 등불)

학교밖, 장애청소년, 일반청소년이 함께 주짓수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으며 빗물받이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에 일조함

사업기간 2017. 02. 01. ~ 11. 30. | 참여인원 697명 | 참가대상 13세~21세

### 주요내용

- 주짓수 신체단련
- 안전사각기대 청소년지킴이 활동
- 시민의식 개선 빗물받이 정화활동
- 2017용인시전국주짓수대회 우승, 3위 입상
- 문화놀이터 감쪽매점 자원봉사 활동



기관명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  
양지동주민센터 6층(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 | 031-729-9813  
대표자 | 변호용  
실무자 | 정해원



## 역발상

(역사를 발견하여 영상을 만드는 청소년들)

김포시 문화유산, 역사, 현충시설을 알아보고, 올바른 청소년 역사인식 함양도모하고  
청소년, 시민에게 UCC,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알려 역사의 소중함 인식개선

사업기간 2017.  
04. 29. ~ 11. 25.  
/ 11회

참여인원 연 713명  
(G.T.A 218명,  
체험부스 495명)

참가대상 G.T.A 중2~고3  
20명

### 주요내용

- 김포시 문화유산, 현충시설 탐방
- 김포시 역사 관련 UCC 제작하기
- 현충일, 광복절, 동아리 기획활동,  
청소년 다정다감 축제 체험부스 운영



기관명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양촌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30번길 46, 2층  
전화번호 | 031-996-6275  
대표자 | 성영모  
실무자 | 이계현 031-996-6277

## 청소년 만세

(만들어가는 세상)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29. ~ 12. 02.

참여인원 384명

참가대상 중1 ~ 대1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모니터링
- 지역사회 참여 활동
- 공공정책 발굴 및 제안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264  
전화번호 | 032-561-5566  
대표자 | 윤지상  
실무자 | 김지혜



## 『붓-topia』 제주의 꿈을 그린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매브러쉬팀'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노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POP(예쁜손글씨) 및 제주문화 전문교육을 받아 지역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어게시물 및 메뉴판을 주문받아 무료로 제작,배부하는 청소년 지역참여형 재능기부 프로그램



2017.  
03. 12 ~ 11. 05.



참여인원 30명



참가대상 중1~중2

### 주요내용

- POP(예쁜손글씨) 및 제주문화 교육을 통한 작품제작 활동
- 상,하반기 구도심권 업체 답사 및 작품 주문활동
- 제작작품 및 기부금 저금통 전달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부 기부금 전달
- 상,하반기 평가회의

기관명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매브러쉬"

기관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사리봉 동길 21-1 (건입동)

전화번호 | 064-728-1511

대표자 | 민수빈

실무자 | 김선미



## 도봉구 전시장(전통시장) 갈래?

청소년들이 도봉구내 전통시장을 조사하고 탐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전통시장의 역할을 알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물을 제작 및 전통시장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 활동



2017.  
04. 15. ~ 11. 04.



참여인원 156명



참가대상 중1~중2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조사 및 탐방
-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 지역축제 및 청소년축제 참여하여 전통시장 홍보

기관명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62길 89

전화번호 | 02)908-0924

대표자 | 하중래

실무자 | 황예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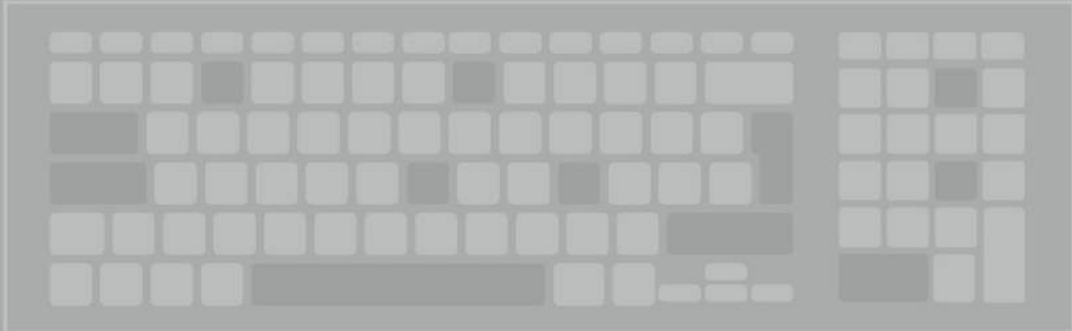
# 청소년 참여분야

사회구성원관계개선 영역

지역사회개발개선 영역

**청소년권익개선 영역**

청소년정책과제실현 영역



## 청소년알바 알지(알바지킴이)!

청소년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알바 지킴이 '알지'어플을 제작하여  
알바인권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함



사업기간 2017. 05. ~ 11. | 참여인원 116명 | 참가대상 고등학생

### 주요내용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어플 제작 교육 및 기획
- 어플 홍보 및 알바지킴이 캠페인



기관명 |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70  
전화번호 | 032-453-2640  
대표자 | 김지숙  
실무자 | 최성용

## 나루미디어 - 공공의 편

청소년과 사회의 관심이 되거 있는 선거연령 낮추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선거연령낮추기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홍보함

사업기간 2017. 04. 08. ~ 11. 18. | 참여인원 연인원 421명 | 참가대상 13~19세 청소년 13명



### 주요내용

- 선거연령낮추기 공익광고 제작 및 영상시사회 및 게릴라 홍보활동



기관명 | 마포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번호 | 02-3153-5961  
대표자 | 한성우  
실무자 | 김해숙

# 정정당당, 우리들의 권리

청소년들이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반기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개선시키고 질적 향상을 위해 '정정당당, 우리들의 권리' 프로그램을 진행



사업기간 2017. 03. ~ 11.



참여인원 386명



참가대상 청소년 누구나

### 주요내용

- 활동 사전 준비회의 및 오리엔테이션
- 아웃리치(캠페인 부스 운영)
- 청소년 권리 UCC 제작
- 찾아가는 청소년 권리교육
- 권리교육 후 함께하는 아웃리치(캠페인 부스 운영)



기관명 |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28번길 62(전포동)  
 전화번호 | 051-805-3114  
 대표자 | 윤경선  
 실무자 | 정미영

# 니모를 찾아서 (You가 모르는 권리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you가 모르는 권리를 찾아서)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권익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5. 26. ~ 08. 26.



참여인원 연인원 651명



참가대상 청소년 초·중·고 대학생



### 주요내용

- 청소년 인권교육
- 청소년증 안내 및 발급
- 대학생 멘토 전문 교육(사진촬영, 영상편집)
- 청소년증을 활용한 청소년 권익개선 활동
- 니모를 찾아서 발표회



기관명 |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기관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전화번호 | 02)898-4943  
 대표자 | 김정숙  
 실무자 | 이권희

# 강서구 놀이공간 랜드마크! 강서구 놀.ZONE

「강서구 놀이공간 랜드마크! 강서구 놀.ZONE」 프로그램이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놀 권리 향유를 위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캠페인, 놀이공간 운영 등을 통하여 권리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에 따른 활동으로 청소년 놀이와 여가문화 확산 및 청소년 놀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 도모

사업기간 2017. 05. 13. ~ 11. 25. | 연인원 5,927명 | 참여인원 | 참가대상 고등학생 2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놀 권리 홍보 활동
- Play Zone(신체, 두뇌, 전통) 운영
- 청소년 권리 라디오 운영
- 찾아가는 놀 권리 ZONE 등

기관명 | 서울시립화국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전화번호 | 02-2061-1318  
 대표자 | 정상영  
 실무자 | 이성은



# 인권도 나이순인가요?

여러 환경속에서 억압받는 청소년의 인권을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관심 확대와 권리보장을 도모함



사업기간 2017. 06. 03. ~ 11. 24. | 참여인원 4,682명 | 참가대상 중1~고1



### 주요내용

- 사업 체계성 및 주도적 태도 함양을 위한 워크숍
-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
- 캠페인 부스 운영
- 설문조사 분석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칼럼 및 개선사항 작성
- 활동책자 제작

기관명 |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전화번호 | 032-577-7979  
 대표자 | 윤지상  
 실무자 | 김용희



#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알바툰

아르바이트 사연을 제보 받아 웹툰으로 제작,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소년의 참여를 유발하고 청소년 스스로 근로 인권에 대해 알아 가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4. ~ 11.

**참여인원** 477명  
(청운위 150명, 캠페인 참가자327명)

**참가대상** 중·고등 청소년 20명

### 주요내용

- 웹툰 이론 학습 및 실습
- 알바 사연 접수를 통한 웹툰 제작 및 업로드
- 알바 10계명 알리기 캠페인
- 착한 알바 업소 선정 및 명패 전달

**기관명**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중동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중동청소년수련관  
**전화번호** | 031-980-1616  
**대표자** | 유명록  
**실무자** | 전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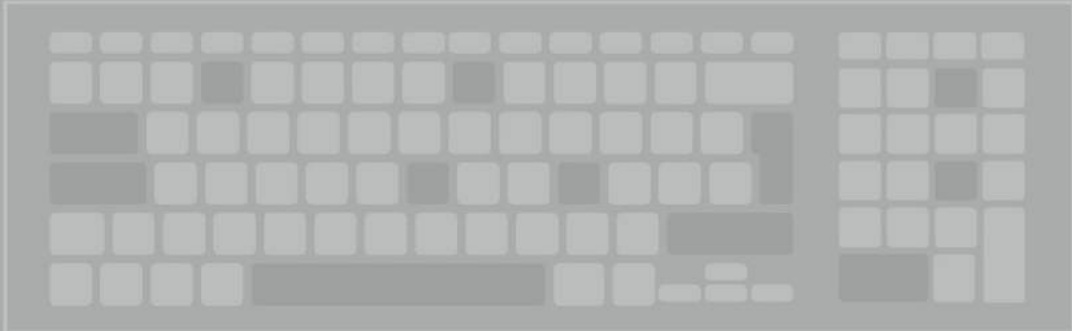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 청소년 참여분야

- 사회구성원관계개선 영역
- 지역사회개발개선 영역
- 청소년경력개선 영역
- 청소년정책과제실현 영역**



## MC Advneture Time!

지역 내 놀이터를 활동공간의 주 무대로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사업기간** 2017. 04. 01. ~ 11. 25.
 
**참여인원** 605명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13명

### 주요내용

- 놀이터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모니터링 3회
- MC Advneture Time! 놀이문화 제공 4회
- 평가회 1회

**기관명** | 마천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19  
**전화번호** | 02-443-0100  
**대표자** | 연용희  
**실무자** | 박연주



## 청정구역

(청소년의정책을실현하는역발상)

국가 청소년정책(청소년증)이 지역사회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 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실현하는 활동


**사업기간** 2017. 03. ~ 11.
 
**참여인원** 1,450명
 
**참가대상** 중3 ~ 고3

### 주요내용

- 전문소양교육(사회참여활동 이해교육, 홍보교육)
- 청소년증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
- 청소년증 홍보영상제작 및 SNS홍보활동
-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발굴 및 연계
- 청소년증 발급이벤트 및 단체발급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  
**기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천로 31번길 33(안양동)  
**전화번호** | 031-470-4726  
**대표자** | 이호석  
**실무자** | 방자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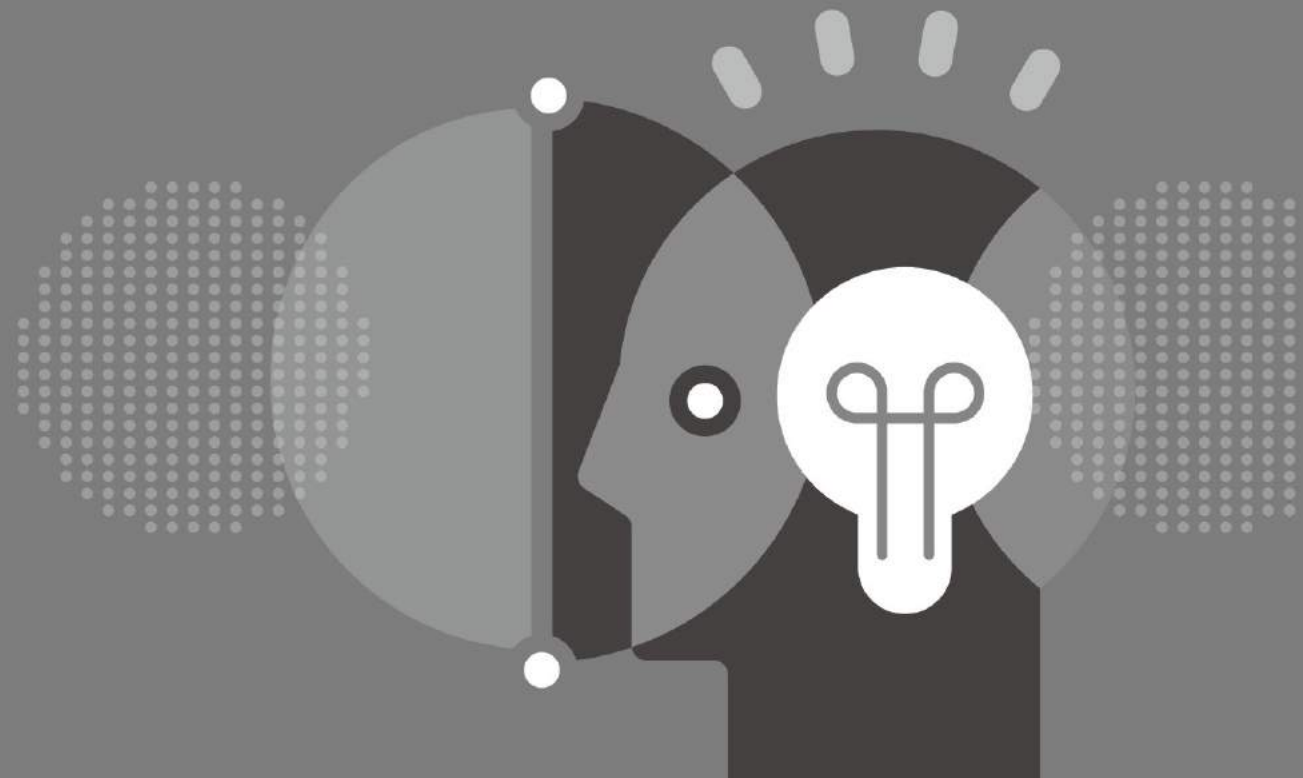


02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활동수기

# 청소년 부문



# 주·마·등

(주짓수, 마을을 지키는 등불!)



권한진 |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나는 제 작년에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마·등(주짓수, 마을을 지키는 등불!)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 보는 주짓수라는 운동의 사진이 새로워 보였고 왜소했던 나는 운동을 해서 체격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나는 학교에서 소히 말하는 왕따였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서 강해지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는 주마등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격이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나는 처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였지만 나도 한번 운동해보고 싶은 마음에 주·마·등에 들어가게 되었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의 추천으로 단장이 되었다.

처음 주·마·등에 들어갔을 때 학교밖 무서운 형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형들도 있어서 좀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주짓수를 하면서 빨리 친해졌고, 주마등활동이 단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쉬는 날이나 방학 때 집밖은 귀찮아 나가지도 않던 나에게 시간은 내어 봉사하라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주짓수 운동에 점차 빠지면서 주·마·등 활동이 점점 재미있어졌고, 자연스럽게 청소년지킴이활동과 시민의식개선 빗물받이 정화활동 등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우리의 미션은 동네를 돌아다니다 위험한곳이나 보수가 필요한곳은 사진을 찍어 모으는 것이었다. 그 모아진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사진 중에 유독 더러워 보이는 빗물받이를 보게 되었고, 알아보니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장마철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물이 넘친다는 것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빗물받이 정화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빗물받이 위, 아래로 캐릭터와 인식개선 문구를 붙임으로서 빗물받이 정화활동을 시행하였다. 빗물받이 정화 활동을 하기 전 우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우리 동네의 CCTV위치, 편익점, 파출소등의 위치를 포함한 우리 동네 안전지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빗물받이 정화 활동을 총 6회(사전탐색활동 포함) 진행하였다.

준비하는 동안 귀찮을 때도 있고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지만 밖에 나가 작업을 할 때 어른신 분들이 관심도 갖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었다. 뿐만 아니라 동네를 돌아다닐 때 마다 우리가 해둔 것 을 보며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1차 빗물받이 정화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우리 마을의 또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을에 골목들이 많고 그 골목들이 낮에는 고즈넉한 골목이지만 해가지면 불량학생 혹은 범죄에 취약한 구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했어도 우리끼리 청소년지킴이활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마을의 양지동어머니 방법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총4번의 청소년지킴이활동을 하게 되었다.

마을을 위해 여러 일을 하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마을에 평범한 아침을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하며 봉사가 그리 귀찮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하며 주·마·등 활동한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갔고 연초에 나왔다 사라진 대회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평소엔 힘도 강하고 운동도 잘하던 형이나 친구들이 나갈 줄만 알았다. 나는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감이 그리 많지도 않았다. 그래서 시합은 상상도 안 해 보았지만 어디선가 자신감이 올라와 "지면 어메!!"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준비기간 동안 친구들과 같이 더 열심히 밭도 더 많이 흘리고 우정도 쌓을 수 있던 짧지만 좋은 시간 이었다.

시간이 흘러 시합당일이 되었고,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시합장으로 향했다. 시합장에 도착 했을때 경기장의 기운에 압도당하는 느낌 이었다.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와 붙을 선수는 누구인지 눈치를 보며 시합을 준비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선생님의 지시를 하나씩 들으며 그 동안 연습해 왔던 기술들을 시도하고 한명씩 한명씩 이겨가며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금메달을 만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상대 위에 올라갔을 때 실감이 되었다. 올 일년은 나에게 친구들과의 우정도 쌓이고 운동과 단장의 자리덕분에 책임감과 자신감도 생기고 봉사의 참 의미와 뿌듯함도 알게 되는 귀중하고 값진 시간 이었다.

나는 주·마·등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신체와 자신감을 얻었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 학교밖 무서운 형들에 대해 인식 개선과, 장애를 가진 형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개선 되었다. 이제 알 것 같다.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며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주짓수로 메달도 따고 자원봉사도 하는 것이 학교에서 꽤 알려져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 주마등에 들어오고 싶어서 내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다. 학교생활도 즐겁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며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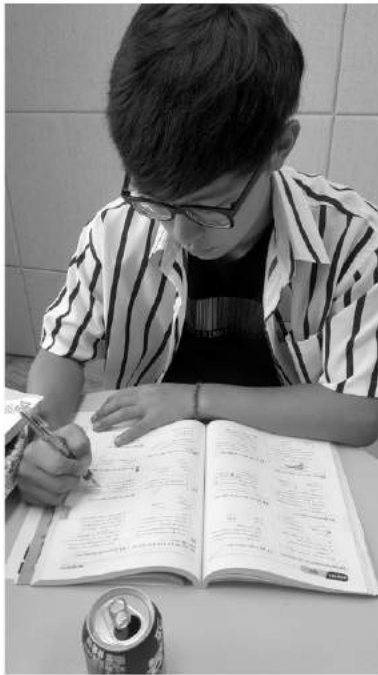


# 기억이 머문 풍경과 함께, 나는 이제 시작이다!



임주빈 | 사하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나는 사랑받는 외동아들이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은 내가 중학교에 들어서부터 삐걱되기 시작하였다. 밤늦게까지 놀고, 담배를 피우고 가출을 자주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나는 그런 모습이 싫어 더 늦게 집에 들어가고, 더 나쁘게 행동했다. 부모님과 의견 충돌은 점점 심해졌다. 그때 나는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고, 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 될 줄 알았다. 2014년 10월 13일 그렇게 집을 나왔다.

그렇게 나온 집을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기집 주방일부터 공사장 일까지 눈뜨고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고 생활했다. 먹고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이렇게 못 살 것같아 일을 그만뒀다. 배가 너무 고프고, 잘 곳이 필요했다. 배고픔에 못 견뎌 처음으로 도둑질을 해보았다. 나는 곧 도둑질에 익숙해졌고, 죄책감은 멀어져갔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나는 그렇게 점점 어둠의 길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점점 변해갔고 그런 변해버린 내 모습이 무섭고 이런 나의 모습을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결국은 집에 돌아와 생활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나는

이대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어딜가야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던 것 같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들어오고 나서도 문제였다. 나의 그동안의 못된 행동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고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2016년 8월 26일 재판이 열렸다. 9호 처분을 받고 대구 소년원에서 6개월을 보냈다. 소년원에 있는 동안 부산에서 대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다. 면회를 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웃으며 괜찮다고 하였지만 나는 사실 소년원을 나가면 무엇을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돌아오고나서 나는 가출한 당시 알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꿈드림이

생각났고, 사하구에도 꿈드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하구 꿈드림에 전화한 첫날,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그날 당장 갈 수 있냐고 묻고 찾아갔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꿈드림 선생님은 상담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면서 사하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매주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 그리고 상담선생님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다.

“동행”프로그램은 낯설었다. 다시 새로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특히 어색했고 솔직히 수많게 지나갔던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밝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나는 가출을 해서도, 소년원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순간도 고민하고 있는 당장 오늘 내일 무엇을 해야할지 하는 고민을 나누기로 생각했다. 선생님은 가출과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으셨고 그저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셨다. 그때 나는 사실 가출 전에도 지금도 가지고 있었던 엄마의 간섭과 불편함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나의 불편감을 온전히 안아주셨으나 나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선생님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을 권유했고 나는 물에 다 젖어버린 휴지조각을 사진으로 찍었다. 찍고보니 짜증났던 내 마음을 그 사진이 표현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동행”활동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김정고시를 안내해주셨다. 일단, 단기 목표가 생겼다. 나는 김정고시 응시는 뭐, 좋았다. 응시하면되지. 그런데 문제는 나의 나태해진 생활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런 나에게 동행 선생님은 아쉽게 내가 일어났는지 확인해주고, 공부를 얼마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감독선생님이 되어주셨다. 꾸준한 생활관리를 해주시는 덕에 나는 검정고시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기 시작했다. 아마 생활관리를 통해 보여주신 감독선생님의 모습만이었다면 나는 동행이 살짝 거리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한다.

하지만 동행 선생님은 동행 첫 활동에이어 나의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 하고 살았는지 물어봐주었다.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갔었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함께 찾아가보았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상했다. 선생님은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을 보채지도 않고 그저 지켜봐주셨고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남겨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셨다. 그 이후는 이제 어색했던 선생님과 "동행"은 없었다. 선생님은 나의 이야기를 언제나 포용해주셨고 나는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보고 나누면서, 나는 그렇게 길을 가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했고 "동행"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끝이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동행" 프로그램은 나와 내 삶을 "동행"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알고보니 "동행"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은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이라고 했다. 내가 여태까지 나만의 장소를 다녀보고 사진을 촬영하며 표현했던 나의 사진들과 이야기로 사진첩이 만들어졌다. 책자로 보는 나의 삶은 또 달랐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지... 하며 돌아보는 내 인생은 나의 감성을 일으키며 잔잔한 감동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동행선생님의 독리로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에 참여하여 2018년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 합격 후 나는 이제 동행 선생님과 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도 함께 알아보고 항상 같이 의논하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선생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다. 동행선생님은 정말 수시로 나에게 연락하셨다. 동행 활동으로 나는 선생님과 밖에서 만나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사하구에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생각 할 수 없었던 활동이었다. 동행선생님과 함께 다니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다. 지난주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 함께 가서 산책을 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엄마같이 따뜻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좋았다. 함께 다니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치료되는 기분을 느끼고, 나에게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느꼈던 기억들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나는 꿈드림을 다니면서 추억을 하나 하나 쌓아가고 있다. 불과 1년 전에는 범죄자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년원을 갔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비록 학교는 다니지 않지만 꿈드림을 다니며 "동행"활동을 통해 나를 돌아봤고, 이제는 내 꿈을 찾아가고 있다.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최근에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의 삶은 더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해서 월급을 부모님께 드려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도와주는 동행 선생님, 부모님이 내 인생과 "동행"해주고 계시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이런 수많은 기억들이 머문 시간들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다!!

## 그들도 '우리'처럼



지수빈 | 중원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 대부분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사회 문화적 충돌과 언어장벽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치며 사회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또한 주변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면 "안녕 너의 이름이 뭐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는 따뜻한 첫인사를 건네기보다는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니?", "너 이런 거 아니?" 라는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경향의 질문을 건네고는 한다. 이런 무분별한 질문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하면 위축감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다른 우리가 꿈을 이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려' 라는 뜻을 지닌 '다이어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 잘 다가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날 우리와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 걸어올 때 나조차 조금은 신기하였고 '저 아이는 어느 나라 친구이며, 과연 말은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라는 단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던 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어색하기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서로 이런 생각 때문인지 우리를 견제하며 작은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매주 그들을 만나 활동하며 점차 서로에 대한 어색함은 허물어져 갔고 그들도 우리가 편해졌는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차이점 그리고 그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것들에 대해 답해주었다. 그러면서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활동에 참여한 아이 중 정말 장난기 많은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옳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했지만 그리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고 우리는 점점 지쳐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감동받았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활동을 끝마치면서 기획단 친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하었는데 이때 한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준비하기까지 "과연 다른 언어를 지닌 우리와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그들이 겪었을 많은 차별로 인해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차마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되어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이번 다문화 친구들을 위한 멘토 활동을 통해 나 자신도 한층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다.

차후에도 다문화 친구들을 위한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하나가 될 것이다.



## 경비원 인식 개선 변화 프로젝트!



김혁진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올해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기회의 때 우리가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 가운데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여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 경비원 관련해서 나포함 다른 위원들까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였고, 그렇게 해서 경비원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경비원 분들도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불합리한 처우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존중하고, 배려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들의 활동을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던 캠페인활동에 접목시켜 서명운동과 설문지배포를 통해 좀 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경비원 인식개선과 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 흔쾌하게 서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도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 문항 중에 "경비원의 업무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문항이 있는데 직업명대로 아파트 내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보다는 그 외 부수적인 업무들 때문에 경비원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일을 한 만큼 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 교묘한 수법으로 휴게시간이라는 말이 안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임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고쳐나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닌 척, 관심 없는 척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해결해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를 진행하면서 많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면 점점 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데, 이 아파트 경비원들 분께 여름에 부채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간식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서 어리둥절 하셨는데, 경비원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얘기보다는 사랑과 감사함을 전달하러 왔다고 하니깐, 고맙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접 우리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보니 우리 지역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작은 활동이지만 이 활동이 더 큰 바람이 되어서 꼭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일들이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우리 모두 이웃입니다.

이신호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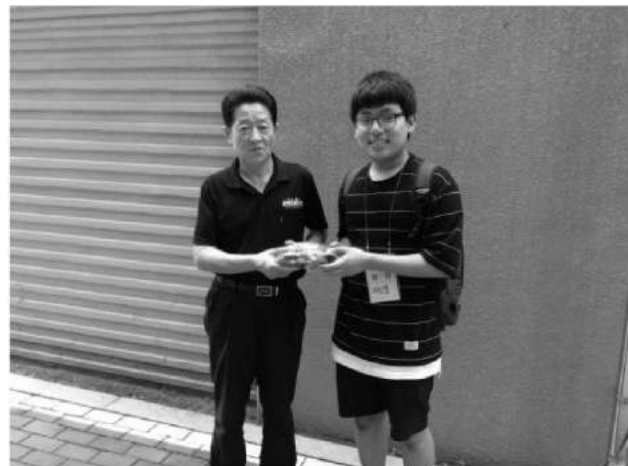
“경비원분들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었다.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 바쁘게 나올 때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 오늘도 즐거운 날 돼요.”라고 인사를 건네주는 경비원분이 계셨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를 가고 있었다. 경비원은 그날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계셨다. 앞을 가는 란 학생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학생은 안 들린다는 듯이 무시하고 지나갔다. 평소에 내가 하던 행동들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니 경비원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았다.

내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니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된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는Youth 2642(이웃사이)” 시작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먼저 평소에 사람들이 경비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친구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질문 내용에는 경비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 경비원들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보았는데 대부분이 경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업무의 주 목적은 아파트 경비와 안전에 관련된 업무인데 설문조사 코딩결과, 분리수거나, 택배 일이 경비원의 주된 업무라고 표시된 문항이 생각보다 많았었다.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일 먼저 경비원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경비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서명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른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하지?’라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경비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으니 동참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말들에도 변함없이 자신이 왜 해야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절하고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몇 분께서는 처음에는



싫어하셨지만 생각을 바꾸고 서명운동에 동참하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뿌듯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깨워 준 다음 고생하시는 경비원들을 위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활동을 하였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조금은 시원하시라고 부채를 드렸고, 가을에는 당 충전을 위해 간식을 드렸으며, 겨울에는 따뜻하시라고 장갑을 드렸다. 가장 먼저 드린 부채는 직접 디자인을 한 부채였다. 그냥 사서 드리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조금 멋이 없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부채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직접 디자인을 하였다. 두 번째로 드린 간식은 경비원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포장하여 드렸다. 요즘 주민들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지 않고 경비원에게 주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간식을 드릴 때에는 유통기한을 꼭 말씀드리며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갑을 드렸다. 요즘 겨울이 더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라고 장갑을 드렸다.

“우리는 Youth 2642(이웃사이)”를 하면서 경비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마 경비원들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채, 간식, 장갑 등을 나누어 드리면서 느낀 점은 남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등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위로를 해 주듯이,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내 마음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나쁜만 아니라 같이 활동했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우리가 했던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침마다 좋은 하루가 되라고 먼저 인사해주는 경비원분에게 내가 먼저 “좋은 하루되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하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경비원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어떤까?

##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최하은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나는 학교에서 축제시스템으로 4년 동안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 해 왔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대는, 그리고 백스테이지의 풍경은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약 5개월 간 '코리아우라'를 통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내 인생의 경험에서 더욱 크고 강렬했던 것 같다.

습관적으로 감정보다는 생각을 먼저 얘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꿈보다는 진학과 대학이라는

것을 먼저 걱정했던 나에게 내 감정과 꿈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춤은 '자기표현'의 방법 중 하나였고 단순히 좋아한다기 보다는 지칠 때 위로 받을 수 있는 해소용 같은 것이었다.

처음 모집공고를 봤을 때는 춤을 배우는 것과, 무대 위의 내 모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 그동안 시간과 공부라는 현실 앞에서 춤은 배워본 적도 없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춤 실력이 늘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첫 시작부터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서로 웃긴 동작과 역할극을 할 때 솔직히 '이런 활동을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색하고 뻘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많이 친해지고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것 같다.

코리아우라 활동을 통해서 춤 실력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된 것은 '소통'이라는 것 이었다. 이번 댄스컬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을 볼수 있게 된거 같다. 그동안은 학교축제나 발표회공연을 준비할 때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뽑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코리아-ura는 초등학교생인 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끌어주는 방법도 조금은 배운 것 같다. 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댄스컬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였다. 아쉬운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볼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해볼 만 한 것 같기도 하다. 다음에 또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기회가되면 청소년의 사랑에 대해 연기해보고 싶다.

또 한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나는 밀알두레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교복을 입지 않는데, 댄스컬 공연을 할 때 교복을 입고 무대에 서게 되었다. 어색했지만 교복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았다.

댄스컬 코리아-ura는 나에게 있어 단순한 댄스 공연을 준비했던 시간 그 이상의 경험들을 준거 같다.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멘토로서, 감사하게 빛났던 여름.

김예지 |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반짝거리게 빛나던 감사한 여름이었습니다. 자칫 계획을 자세히 짜지 못해 흘러보내게 될 뻔했던 여름방학을 이번 프로그램이 활기차고, 알차고,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유스나루 소속 동아리인 학과스토리텔러라는 멘토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학과선택에 대한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 학과를 소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한 것이 선발되어 학생들의 멘토로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아탐색을 위한 진로캠프를 '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화양고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진로캠프를 더 효과적으로 남기기 위해 한번은 학생들이 서울로, 한번은 멘토들이 여수로 내려가는 방식을 선택해 총 2회의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합하면 총 5일인 캠프에 저는 멘토로서 참여했습니다. 화양고등학교 학생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5일을 위해 50일을 준비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5일 간의 캠프에서 지도사 선생님과 멘토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애착이 가고 정이 간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멘토 '선생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한 5일은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나에게로 떠나는 길은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그 동기를 자극할 프로그램들로 구성했습니다. 대학생에 대해

궁금할 것들과 진로교육 및 재학생이 직접 해주는 대학탐방과 서울구경 등 3일을 알차게 채워 구성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준비하는 멘토들과 이런 저런 회의도 거치고 시간을 맞추어 연습도 하며 바쁘게 보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워크북에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말을 남겨주고 3일간 모인 추억들을 동영상으로 밤을 새며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찾아간 여수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학과박람회와 진로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더 흥미롭고 쉽게 자신들의 학과를 알려주기 위해 더 나은 부스 체험거리를 개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 준비한 우리들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울림을 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 학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활동을 즐겨워하는지도 모두 진로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멘토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의 마음가짐에서, 감사했다고 꼭 다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해주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나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해 여름, 가장 반짝이고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멘토라는 이름아래에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교감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방학은 저에게 감사하게 빛났던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활동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기뻐고, 행복했습니다.



##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노정민 |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어요.”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대학생멘토단 '진로스토리텔러'로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의를 나갈 때마다 꼭 한 두 명씩은 이런 메시지를 제게 남기곤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 좋은 사람이란 힘이 되는 조언, 따뜻한 위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런 멘토로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매 강의마다 들었던 그 말을, 이번 캠프에서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좋은 멘토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여수화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7명은 밝고 웃음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이 캠프를 통해서 도움 받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생들처럼 ‘성적’, ‘입시’에 대해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답을 제가 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내내 입시문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선뜻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연세대학교를 투어하기로 한 저희들은 학교 투어가 끝나고 신촌,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대신에 카메라를 들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로 순간순간 아이들이 즐겨워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는 아니지만, ‘우리’멘토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캠프 내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언,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한 멘토였으니까요.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 펼친 아이들의 롤링페이퍼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저희 모습을 담아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속에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진 않았지만, 그 속에는 왠지 ‘당신은 좋은 멘토였습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건, 꼭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나니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그 때 이 말을 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해주었던 좋은 친구들이었다고.’

## 화양고와 함께하는 나에게로 가는 길

박상민 |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올해 저는 마포청소년수련관 학과스토리텔러로서 수도권 초·중·고등학교로 기계공학부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으로 여수 화양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서울진로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 또한 경상북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서울권 대학 탐방의 기회가 흔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학생들의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캠프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전보다 다양하고 많아졌지만 농·어촌 지역은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수 화양고학생들에게 누구보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있었습니다.

캠프일정은 여수에서 올라온 화양고 학생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대학교 탐방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준비한 콘서트와 진로 강연,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투어도 하면서 무조건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해야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캠프 시작 전, 대학생 멘토들은 미리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성적, 인간관계 고민이 많아서 콘서트 때 재미있게 풀어 고민해결도 해주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가까워졌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엔 본격적인 대학교 탐방과 서울투어를 했습니다. 저희 조는 중앙대에 갔으며 단순히 대학교 정문과 캠퍼스만 구경하는 거 외에도 대학교 학생증을 통해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도서관 출입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꼭 중앙대로 진학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친구를 위해 다 함께 서브웨이에 가서 나눠먹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가서 단체쇼핑도 하고,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까지 견학했습니다. 올해 바뀐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감작스럽게 가게 되었지만, 저 역시 자주 오지 못하는 청와대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엔 2박 3일 동안 우리의 캠프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멘토들이 밤새 만든 동영상과 그 동안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보고, 멘토-멘티와의 속마음까지 말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쉬움이 컸던 만큼 2박 3일 동안의 캠프가 서로에게 좋은 의미로 마무리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내신, 수능공부만 하는 것보다 짧게나마 직접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것들을 보며 느끼고, 원하는 것을 할수록 공부할 의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좋은 청소년활동지원프로그램이 있다면 청소년들의 부담은 줄고 멘토인 대학생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화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소중한 추억과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힘써주시고 캠프 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신 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멘토로서의 의무는 넘쳤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쉬웠고, 긍정적인 에너지 잘 받아간다면 말해준 우리 화양고 멘티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할게요!!!!!!~^^



## 성급한 변화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한송이 | 민간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동아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세이프로드>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하여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각각의 아이디어가 모여 반짝이는 결과물이 나온 것은 기뻐다. 첫 시간에 세이프로드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겠다.”생각이 들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위험요소는 어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선별하고 발표를 하였을 때 뭔지 모를 기쁨이 돌아나고 있었고 직접 인양1번가를 나가서

팻말을 들고 다니며 “~합시다!”라고 말해주는 활동도 좋았다. 각각을 돌아다니며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어둡고 사방에는 담배꽂초가 널 부러져 있고 곳곳에 무서워 보이는(인상착의가)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그곳을 피한 적이 있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범죄를 예방할까?’나의 결론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만한 가게들을 많이 차리고, 곳곳에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치우며 거리를 예쁘게 꾸며서 차마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생각은 나만의 것이 아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생각인 것이다. 우리는 변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때 여성의 말이 아닌 범죄자의 핑계(애가 아하게 입으니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범죄자가 아닌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정관념이 쭉쭉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는 성급한 변화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보다 성숙한 시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안심할 수 있는 골목. 우리가 만든다.

이동규 | 민간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우리들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경찰과 마을 순찰대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있지만 아직도 아무도 없는 밤의 골목길이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양시 골목길 주변 주변에 ‘세이프로드’프로젝트로 바닥에 하나의 보드게임을 크게 그려주었고,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문구들과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조명을 바닥에 쬐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드게임을 하였고, 밤에는 고등학생들이 야자나 방과 후 때문에 늦게 끝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을 때가 많은데 나름 센스 있는 문구들과 귀여운 캐릭터를 보며 안심하면서도 걸을 수 있고 또 감동적인 문구들로 지친 하루에 위안이 되곤 합니다.

‘세이프로드’에 관심이 생겼을 즈음 꾸준히 다니고 있던 민간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께서 저가 소속되어 있던 [안양예술고등학교 융합예술창작동아리 U. N. I (Unique New Idea)] 에게 세이프로드를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재미있는 활동일 것 같아 바로 동아리 부원들을 설득 후 ‘세이프로드’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융합예술창작동아리는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사진영상과, 문예창작과, 미술과 3개 과가 융합하여 예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부딪쳐보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세이프로드’프로젝트에서 <바닥 화 그리기>를 담당하였고 동아리에서 미술과 학생들이 주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바닥 화 그리기> 행사 당일 미술과 학생들도 ‘바닥 화’는 처음인지라 시작할 때에는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청소년수련관의 선생님과 봉사를 나와 주신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습득이 빨랐고 이어서 바로 문예창작과 와 사진영상과



학생들에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술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들도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쉽게 바닥 화를 그리게 되었고, 미술과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바닥화의 수준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융합예술창작동아리 U, N, I를 제외한 약 40명의 중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는데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형 누나들을 많이 따르고, 춥다고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어주는 등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날은 쌀쌀 했지만 훈훈한 분위기로 중간 중간 쉬지도 않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바닥 화 그리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동아리 부원들에게 후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어른들만 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해보니깐 사실 별것도 아니었다. 라는 말이 많았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가끔 가다 그런 걸 학생이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또 어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길을 지나면서 많이 봤던 바닥 화를 직접 그려보니 재미있었다. 나의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 좋았다. 라는 후기가 많았다.

우선 모든 것을 통틀어 나는 청소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좋았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고 충분히 노력해 주시지만 조금 더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지운 | 만안청소년수련관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헤민 스님은 “나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말고 내 안에서 뭘 원하는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해서 사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본다. 학교에서 꽤 자주 진행되는 동아리에 봉사를 적용한 세이프로드 동아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교외 활동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유해한 환경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시내 큰 길 한가운데가 누군가에겐 두려운 공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집 주변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방학 중에도 봉사는 계속 되어 바닥화 그리기 작업도 진행되었다. 우리가 전문적인 미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이틀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보니 여러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만큼 많이 다쳐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본연의 의미는 지워지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유해 환경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캠페인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철 캠페인을 하고 있던 고등학생 언니들이 있었다. 우리처럼 봉사하는 다른 학생들도 많은 거 같아 뿌듯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봉사 동아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만하다.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사는 대에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했다. 다른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쉬고 있을 때 먼저 깨어서 문을 두드려주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여러 곳을 다니며 다른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다.



## 협 up을 하면서 내가 배운것

이연호 |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점도 알게 되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께서 현재 경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협동조합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저는 원래 같은 학교 친구들과 신청을 했는데 친구들이 안 나오면서 다른 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져서 프로젝트를 끝낼때에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좋았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처음 써봤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사업 계획서가 채워지는걸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신기함도 느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전 처음 해보는 일도 해서 좋았다.

예를 들면 잘 알지 못했던 인문학도 배워 보았고 가구에 의미도 입혀보고 못질도 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기도 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온 활동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협 up 프로젝트 덕분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는 정했지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협 up 프로젝트 덕분에 꿈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프로젝트가 일차서 얻어 가는게 많아서 정말 좋았다.



자신 당신을 위해

## 나를 변화시킨 그로잉-업!

임재은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인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캘리그래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저는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환경과 매우 달라 적응하기 힘들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열등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유학년제로 참여하게 된 판교청소년수련관 "지역은 살아있는 학교 그로잉 업"진로 프로그램 중 '알짜배기'워크북을 하면서 저의 꿈에 대해 더욱 확고해졌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판교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제가 꿈꾸던 직업을 하고 계신 멘토를 직접 만나 궁금했던 점들을 인터넷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클라우드 펀딩 교육을 들으면서 저는 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저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 당시 저와 같은 모습 이었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요즘 청소년들이 쉽게 겪고 있는 대화단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신청서가 저희 팀에게 선정되었다는 소식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판교청소년수련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있어 다른팀 들의 의견도 듣고 클라우드펀딩을 컨설팅해주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 의견을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고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마지막으로 최종 5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준비해왔던 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계획을 짜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준비하면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극복하면서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캘리그래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졌고 그로 인해 많은 서포터들이 참여해주시면서 저희 팀의 목표에 많이 가까워져 갔지만 최종적으로는 목표금액을 못 채우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만큼이나 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다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웠고 앞으로의 꿈을 위해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시작점으로 팀원들과 함께한 '마음을 전해주는 따뜻한 캘리그래피' 프로젝트를 시도한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 노(는 물은 달라도)·바(라는 대로 서로의)·디(딤들이 되어보자)얼썩!\_민요&난타 신명나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

이수인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동아리 정기회의 때 “2017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 동아리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바·디 얼썩! 는 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 우리(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관계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민요동아리인 할머니들과 함께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 오전에 두 시간동안 하는데 활동종료 후 공연을 한다고 안내해 주셨다. 마음 같아선 바로 신청을 했겠지만 다른 일정이랑 겹치는 날이 있어서 고민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중학교에 다닐 때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난타를 접해본 후 라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에서 이러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다양성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중학생 때 배웠던 것 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계속 하다 보니 저절로 몸에 익혀졌다. 난타를 치는 동안은 웬지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참여하는 동아리 원 중 여자는 혼자라서 쓸쓸하고, 약간 외롭기도 했다.

난타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고, 민요를 배울 때는 장소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겨서 민요동아리인 할머니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 하였다. 민요선생님께서 민요에 대한 장단과 노랫가락을 알려 주셨는데 부르기가 꽤 힘들었다.

사실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세월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요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불러보는 것은 낯설고 어색하였다. 하지만 민요에 얽힌 이야기와 노랫가락의 장단을 배우며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뭉클함이 느껴졌다.

날씨도 무척 더운 여름!!



우리를 만나실 때 마다 반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잘 한다고 칭찬해주시면서 할머니들께서는 모두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는 바쁜 일정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할머니들이 많이 속상해 하셨다.

그리고 민요와 난타를 함께 연습할 때는 할머니들께서 다음에는 우리도 난타를 가르쳐달라고 하신다. 예전에 다듬이 방망이로 잘 두드려서 이것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청소년)들 보다는 더 열정적인 할머니들의 모습에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드시기도 하셨다.

어색했던 수업시간도 차츰 시간이 흐르니 할머니들과 우리는 서로의 안부도 묻고, 간식도 챙겨주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계획하였던 일정이 변경되어 우리는 본격적인 공연 준비를 위한 총연습에 들어갔다. 노래와 난타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연습하고, 다시 하고, 시간이 왜 이리 빨리도 지나가는지 어느 덧 시간은 가고 마지막 날 인 공연의 시간이 다가왔다. 할머니들께서는 예쁜 분홍색의 한복을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무대 공연이 처음인 나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을 눈치 채셨는지 할머니들께서는 “걱정하지 말어 우리만 믿고 한 번 멋지게 보여주자!!”라고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무대에 오르기 전 지금까지 함께 하며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우리들은 준비한 코사지(카네이션)를 할머니들 가슴에 꽂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대로 향했다. 드디어 행사를 알리는 오프닝 공연이 시작되고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며 혹여나 틀리지 않을까? 란 생각에 조마조마 하며 했다. 너무나 긴장이 되어 박자도 놓치고 자신감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 우리는 그렇게 공연을 마무리 하였다.

5개월의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연습해온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시며 수업에 참여하여 함께 노래 부르며 연습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어르신들 저희가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아리담당선생님, 함께한 민요동아리 어르신들과 난타, 국악 선생님, 함께해온 친구들과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 용기를 부딪혀보자!

윤승현 | 슬내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용기를 부딪혀보자’ 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접해보았다. 초반에는 기적놀이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해나갔다. 가장 먼저 북 치는 것을 배웠는데 휘모리장단을 쳐 보니 박력 있고 경쾌했다. 그렇게 인사와 휘모리장단을 배운 다음 상쇠와 맞춰 삼채와 반삼채를 “딩! 텅!” 치다보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더 힘차게 쳤고 그 기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었다.

드디어 길굿을 배웠는데 상쇠가 박자 맞춰서 치니까 “좋다!”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장단에서는 친구들이 장구를 치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딩쿵따 쿵쿵따쿵 덩쿵쿵따 쿵쿵따쿵” 나는 이 소리를 내는 장단이 제일 좋았다. 나는 배우는 도중 북을 맡아서 치다가 징으로 역할을 바꾸었다. 징을 딱 보았을 때 북보다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웬지 다른 악기보다 소리가 클 것 같았다.

청소년수련관 지하 풍물실에서 기적놀이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3층 다목적홀로 올라가서 징을 치며 걷는 것을 연습해보았다. 그때부터 장구와 북을 맡은 친구들은 악기에 끈을 매달아서 허리나 어깨에 달아서 사용하였다. 근데 나는 징을 한 팔에 들어서 쳤는데 무거운데다가 어깨까지 아팠다. 그래도 공연 날을 생각하면서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공연날이 왔다. 한옥마을 남천교 정연루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는데 먼저 온 엄마께서 나와 친구들의 의상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셨다. 그날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몹시 추웠다. 그래서 내복도 입고, 털옷도 입으며 준비를 단단히 했다. 게다가 거기에 햇빰까지 불어서 야외공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상쇠의 시작하는 신호와 함께 한옥마을에서의 거리공연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휘모리장단으로 시작했는데 “딩쿵따쿵 덩쿵따쿵...” 이 장단을 계속 반복하다가 길굿으로 넘어갔다. 저번에 배운 “좋다!” 소리가 좋아서 내가 제일 크게 말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용기를 든 친구와 형이 걸어가고 나는 용기 바로 뒤에 있었다.

중앙에서 재민이와 재준이 형이 용기를 돌리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재민이가 묘기를 부리자 사람들이 용기에 집중했다. 그래도 나는 용기에 거의 집중하지 않고 상쇠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쇠가 다른 가락을 치면 따라 치어하기 때문이다. 휘모리, 삼채 등 다양한 장단을 연주하면서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재준이 형 용기가 이길까, 다른 사람의 용기가 이길까 궁금했다. 싸움을 하는 중에는 장구를 쳤다. 모든 악기의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결국 재준이 형이 이기고, 우리는 퇴장하면서 공연이 끝났다. 수련관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

## 청정구역(청소년의 정책을 구현하는 역발상)에 빠지다

성유진 | 안양시 민안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 1. 청정구역이 시작되다

2016년 민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늘봄 위원으로 활동하다 2017년 늘봄 9기 위원장이 되었다. 늘봄에서는 수련관 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위원들과 상의하여 작년 청소년 정책서 제작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증을 주제로 조금 더 의미있는 활동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 2. 청소년증 활용이 왜 안되고 있을까?

나도 일찍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기는 했지만, 그 혜택을 몰라 사용도 못했고 친구들은 청소년증이 있는 줄도 몰랐다. 학생증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청소년증인데 전체 청소년 인구 중 단 2% 정도만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다는 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동일하게 영화관 할인, 교통카드 기능을 했고 실질적인 차별화가 없었다.



〈청소년증 인식조사 및 단체발급이벤트〉

### 3. 한걸음이 열걸음이 된다!

다른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첫 번째로 사회 참여교육에서 들은 대로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청소년 축제같은 지역축계에 부스를 운영하고 올 초 유행했던 ‘맛지’를 개사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늘봄페이지에 올려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가게 연계를 통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청소년중 활인가맹점 협약 및 명패 수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변화가 내의 만화카페, 사진관과 같은 가게 10곳을 방문해 '착한 가게'라는 협약을 맺고 학생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메뉴판에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늘려갔다. 가게 운영에 있어 이윤과 연관되다 보니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었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연락을 통해 지역 내 가게들과 연계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다. 지역주민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착한 가게 1호점'에서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과 활동내용들을 지역신문에도 실렸다. 발로 뛰는 일들이 많아 힘들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더 값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안양 8동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청소년중 발급이벤트를 진행하며 약 200명의 청소년이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안양의 청소년증을 발급물이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동아리, 영상기자단, 동아리연합회 등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었다.

#### 4. 크레센도, 더 크게 울려 퍼지길

나는 우리의 이런 활동들을 토대로 외국인 가정과 같은 상대적으로 교육적 기회가 적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 주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같이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막막하지만 했던 1년이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점점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을 보니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있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바뀌어나가는 그 성취감이 더 큰 것 같다. 내가 활동했던 것처럼 다른 청소년들도 청정구역에 빠져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무모한 도전'이라 쓰고 '추억'이라 읽는다.

조민지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조분야

나는 올해 처음 시작이라는 발걸음을 뒀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곳에 발 디디었다. 그곳에서 처음이라서 두렵고 어려운 일을 곁에서 응원해주고 끝까지 같이 믿고 갈 수 있는 청소년운영 위원회를 만났다.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나의 많은 것들을 바꿔게 만들었다.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던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협동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내는 성과와 기쁨을 만들어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의 어느 점이 부족하고 이러한 점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해환경의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몽'의 대표 사업인 '청소년 만세(만들어가는 세상)'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실행하기 전 다양한 교육을 배웠고 워크숍 때 진행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서로 협력하는 방법, 다른 이를 존중하는 방법,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들은 모여서 함께 설문지와 퀴즈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 지역사회 축제에서 캠페인활동과 체험부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결과물로 만들어냈다. 청소년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것을 건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청소년 만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서구 어린이·청소년 정책참여토론회'에 발표자로 참가한 것이다.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서구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친구들과 지역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뜻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들은 청소년들의 뜻만이 아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큰 미래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좋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불편한 요소들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었고, 혼자가 안 될 때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더욱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먼저 나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활동은 나를 가꾸고 나를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결과에 치우치지 않은 과정을 밟아오면서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을 내 품에 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1년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뜻 깊은 것은 억만금을 쥐도 못 얻을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라는 선물과 경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 ‘청소년에 의한 하나 되는 마을, 서구’

배소리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몽’을 활동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선 “청소년 만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의집 근처에 모텔, 술집 등 유해업소가 많으며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쉽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 근처에 있는 유해업소의 간판은 여성이 야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간판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이끌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은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막고 있지만 불법으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밤 10시 이후로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집 환경을 보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시작하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의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유해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유해환경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프로그램에 있는 스피치 전문교육을 통해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배우고 발음 연습 등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방법과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 조사 설문지와 유해환경 관련 퀴즈를 직접 만들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설문조사 및 캠페인활동을 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이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인식은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유해환경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며, 저희도 정확히 유해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편견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시 유해환경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의견을 내어서 주변사람은 물론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서구청소년창의진로박람회'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부스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어른들에게 청소년 친화적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혼자서 하려는 버릇과 낯을 가리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즐겁게 활동하면서 혼자하기에 버거운 것도 협동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유해업소가 쉽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관심에서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알리고 다 함께 참여하면 지역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값진 경험을 선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윤미리 | 인천동구청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저는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전성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전성시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현대시장 상인 약 350명, 지역사회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4월~11월) 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활동 구성은 전반기 현대시장 탐구, 후반기 시장 활성화 캠페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의 활동 내용은 청소년 참여와 시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현대시장 이해 교육을 받았습다. 또한 현대시장을 직접 탐방하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환경 및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상인 분들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현대 시장의 역사, 장점, 개선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 상인체험으로 살아있는 시장을 느낄 수 있었고, 환경정화 및 어른진 장보기를 도와드리으로써 인성영역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의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래내시장을 탐방하였습니다. 탐방 한 후에, 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장 활성화 캠페인 사전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 조는 현대 시장의 지리적 위치, 지역 연령대, 상인 분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 산업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비교 시장으로 탐방한 모래내시장은 이미 먹거리 장터로 유명세를 치른

시장으로써 좋은 사례로 작용하였고, 지역 연령대의 격차를 감안한 먹거리를 공략해야 한다는 보완책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캠페인 활동 중에서 현대 시장의 지역주민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대시장에 대한 만족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1년간 문전성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해 직접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탐구를 통해 이론적 탐구를 통한 객관적 이해뿐만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몸소 체험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저의 진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모든 활동이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문전성시 활동이 단순히 동아리활동을 넘어서 진로, 인성 등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 담당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전성시 활동은 저의 학창시절에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꿀벌과 Plan Bee

신은서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Plan Bee 활동을 참여 전에는 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따라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벌에 대한 기본적 상식과 조금은 깊숙이 들어가 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벌꿀의 프로폴리스 등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수분크림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부스운영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전에 배운 수분크림 만들기와 벌꿀 모히또를 만드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다른 사람들이 더운 여름 벌꿀 모히또와 수분크림을 전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작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올해 Plan Bee 활동은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내년에도 또 Plan Bee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내 인생의 전환점, 문전성시

최은혁 | 인천동구청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2년 동안 문전성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전성시를 1학년 때부터 해온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해왔고, 동아리 부장을 맡아 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문전성시 동아리를 들어온 이유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그냥 흥미로울 것 같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전성시 동아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표를 두었지만

이때까지 저는 정말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연관점이나 접점이라 해봤자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명절음식 재료를 사러가거나 잠시 길을 지나가는 통로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전성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전성시의 활동은 제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전성시에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문전성시 활동 중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적었을 때 저는 전통시장을 부흥시키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전통시장에 방문 할 때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랑 부딪칠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장할수록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점점 퇴보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에서 전통시장 부흥이라는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전성시 활동 중 상인의 성공기를 듣는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상점 이름은 '태산물류'였습니다. 태산물류는 다양한 식자재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었습니다. 상인 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먼저 선뜻 말을 걸어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며 저희에게

정성껏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왜 전통시장이 퇴보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장보다는 마트를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하셨고, 최근에 대형마트가 현대시장 옆에 들어오는 바람에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인 분들과 뜻깊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직접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하는 일은 상상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조금 한 자루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었고 그 추운 냉장고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상인체험이 끝난 후 수련관에 돌아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피켓도 제작하며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자치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취합하는 것이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문전성시 부원들이 다함께 전통시장을 생각해서 직접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해서 캠페인을 기획한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전성시는 마지막 활동 날 저희가 직접 계획한 캠페인을 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었고 그 활동들이 직접 기획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 우수 동아리로 뽑히게 되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받게 되면서 더욱더 보람찬 활동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 문전성시 활동은 더 많은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모래내시장에 가서 다른 전통시장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답사도 다녀왔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구청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는 청소년 축제에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저희 문전성시를 더욱더 알리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까지 정말 아무런 목표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목표 없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매일 매일이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문전성시의 활동을 한 뒤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상도 받아보고 저와 친구들이 직접 기획한 캠페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실현되는걸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느껴서 이제는 모든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깊이 저를 이렇게 바꾸어준 문전성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동아리를 참여하게 되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에 변화를 준 문전성시가 끝나다니 아쉬움이 많이 남고 곧 3학년이 되어 더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문전성시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문전성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졸업하고라도 지원하여 멘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꿈과 더 나은 세상

꿈과 더 나은 세상

##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Plan Bee

한해진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Plan Bee 활동은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게 된 동아리 활동인 만큼 처음 Plan Bee를 갔을 때 진짜 설레었다. 처음에 갔을 때 벌에 대해서 배웠는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집어가며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서 벌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좋았다. 벌들을 보러 버스를 타고 양봉장에 이동했을 때 벌이 많으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여왕벌도 관찰하고, 수벌도 보고 진짜 재미있었다.

평소에 지나가는 벌 한 두 마리정도 봤을 때 자세히 관찰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부스 체험할 때 피부에 좋은 프로폴리스를 넣은 수분크림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2017년도 Plan Bee 활동이 끝나서 너무 아쉽고 나중에 또 활동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할 것이다.



## 문전성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답이다.

김다빈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오늘날에는 대형마트에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 문전성시 동아리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장 활성화 캠페인, 상인 인터뷰, 전통시장 탐방 및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현대시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해보기 위해 인근 전통시장 성공사례인 '모래내시장'에 방문해보았습니다. 두 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대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마지막인 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시장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송현근린공원이라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부스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내 전통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문전성시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자 서민생활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전성시 동아리



## 여왕벌을 찾으며

방은서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처음 양봉을 한다고 해서 힘들고 재미도 없으며 위험할 줄 알았지만 도시양봉 프로젝트 Plan Bee를 통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며, 여왕벌 · 일벌 · 수벌을 찾고 역할과 수명 등 잘 알지 못 했던 교육을 받으며 벌이 모아 온 화분과 꿀을 맛도 보고 먹이도 주며, 양초와 수분크림도 만들어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벌이 날아드는 소리만 들려도 피하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고 벌 덕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은 재료와 시간,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나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Plan Bee 활동으로 인하여 꿀, 화분,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친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내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선생님,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자랑스런 우리 동아리, 문전성시.

최은제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내가 처음 문전성시를 접하게 된 때는 고1 동아리활동시간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들어갈 동아리를 찾다가 전통시장탐방(문전성시)라는 이름을 발견해 친구들과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생소했고 동아리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 재미없을 것 같았다. 첫 동아리 활동으로 현대시장을 가서 제일 먼저 상인회 실장님을 만나 뵈었다. 그리고 현대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즘 대형마트들이 이곳저곳 생겨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일 상인체험, 상인과의 인터뷰 등의 활동을 했고 동아리활동의 후반부에는 전통시장(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모색했다. 그 결과 우리는 현대시장을 찾아주시는 손님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담요 등을 선물로 드렸다. 캠페인 활동 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사공연, 피켓활동, 설문조사(현대시장의 장점과 개선할 점), 따뜻한 차 나눔 등을 실천했다. 내가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서 시장이 활기차지고, 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까 의문이 있었는데, 캠페인 활동을 한 뒤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손님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추운데 고생한다, 애들아.”하고 따뜻한 말과 함께 오히려 따뜻한 차도 주셔서 1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 모두에 대한 보상을 받듯 알차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에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 내 첫 동아리가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1년이였다. 그렇게 동아리활동을 끝마치고 2017년 고2 동아리활동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전성시를 선택했다. 2년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대시장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전통시장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처

전통시장 성공사례인 모래내시장을 방문하였다. 가서 텀별 온누리상품권 체험활동도하고, 모래내시장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현대시장과 비교분석을 했다. 내가 본 모래내시장은 현대시장보다 활성화 돼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관으로 돌아와 현대시장에 제안할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떡메치기 인절미를 만들어 나눠드리면서 현대시장을 홍보했고 전통시장(현대시장)의 장점을 알려드렸다. 예상보다 호응도가 높아, 떡은 금방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팔씨름 투호 등 다양한 재미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장바구니를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우리와 같은 또래가 많이 모인 공간에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니 더욱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는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끝마쳤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2년의 시간동안 동아리활동하면서 나의 시장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마트를 선호했던 나는, 그동안 시장에서 파는 식품들은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모든 제품들은 신선도가 좋았고 원산지표기, 가격표기 등이 매우 잘되어있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정과 인심이 가장 좋았다. 나는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우리 동아리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후배들이 동아리선택을 고민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문전성시를 추천할 것이다!



## 주는 것이 아닌 받아가는 문전성시 동아리 활동

안수홍 |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고등학교를 처음 입학 할 당시 첫 동아리를 선택할 때 동아리는 중학교 때처럼 그저 시간 때우기 활동이라 생각하고 아무 기대 없이 문전성시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동아리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닌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문전성시는 그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동아리가 아닌 같이 회의 하고 우리가 직접 전통시장으로 가서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인들의 일을 도움으로써 전통시장의 중요성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하여 더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이바지 하였고 상인협회와의 우리가 만들어간 전통시장 이벤트는 비록 처음 하는 것과 많은 이들 앞에 서야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과의 협력과 지도 선생님의 조언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인 분들과 손님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벤트를 문제없이 끝내면서 1년을 끝맺음 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전 비록 집안의 부탁으로 이과를 가게 되었지만 문전성시처럼 잘 짜여있는 동아리는 없다고 생각하여 동아리를 바꾸지 않고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겨울 방학 후 저의 무대인 현대시장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암울할수록 우리 동아리가 더욱더 힘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막 들어온 1학년 후배들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상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1학년과의 장벽은 빠르게 허물어지고 동아리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큰 규모의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 전학 활동은 우리 청소년들의 시야로는 보기 힘든 점을 상인회회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래내시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시장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시장 상인회에 건의 하여 현대시장의 어두운 분위기에 조금은 활력이 되고자 하였고 우리 청소년들도 노력을 한다면 사회에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활동 장소를 옮겨 전통시장 홍보를 위하여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시장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떡메치기, 전통놀이, 현대시장의 장점소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부스운영을 하였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저의 마지막 동아리 활동을 끝맺었습니다. 2년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문전성시 동아리는 후배들에게 잘 넘겨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동아리는 따분한 것이라는 생각을 깨 주었고, 조금 소심했던 저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친구들과 선, 후배들과 상인분들과의 유대를 배우게 되었으며 전통시장만의 따뜻한 정까지 받아간 이 동아리 활동은 저에게 뜻있었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 서로의 빛으로 합주를 하다.

## - 처음보다 더 빛나는 우리들

안종일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조분야



활동수기 작성에 앞서 천문역사단 멘토 경험을 하게 해준 창동청소년문화의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Forte (포르테)** : 천문과 한국사는 제가 가장 좋아했고 수험생 생활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던 이유도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매우 상기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잔뜩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멘티들을 만났습니다!

**Decrescendo (데크레센도)** : 그러나 멘티들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저의 상황이 기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밝고 자유분방한 행동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매우 순수하고 밝았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치는 장난도 제대로 받아주질 못하고 그저 수업에만 집중 시키려는 생각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Pianissimo (피아니시모)** : 저는 아이들의 행동에 주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빛을 더욱더 발산했습니다. 그 빛을 본 저는 자신에 대해 되돌아 봤습니다. '아이들이 발산하는 빛을 더욱 빛나게 하지는 못할망정 빛을 내는 행동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야한다.'

**Piano (피아노)** : 그때부터 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멘티들의 빛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그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와 함께 서로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와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합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남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다가가라.'와 '누군가를 위한 행동에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들을 자주 들었지만 딱히 몸에 다가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들은 이 말들을 몸소 겪게 하고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 저 자신에게 교훈을 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Crescendo (크레센도)** : 이제 점점 저와 아이들의 빛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이들과의 합주가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그 누구보다도 서로와 열심히 소통하였고 교류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냥 5조'라는 조를 '꿈과 희망의 5조'로 고치는데 성공하였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흡사 친한 형과 동생들이 되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 나갔습니다!

**Fortissimo (포르티시모)** : 저는 현재 우리 상황이 결실의 정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서로가 발산하는 빛이 뛰어나고 독특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로가 각자의 뛰어나고 독특한 개성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합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저는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에 합당하는 결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멘티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천문역사단 대학생 멘토님들과 강사님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천사단(천문역사단) 멘티 모두가 그 칭찬과 격려의 대상입니다.



## 알바생 활동을 마치며..

엄현진 | 청동청소년문화의집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프로젝트 알(변)바(꿔)는(환)을 통해 노동인권 & 모니터링 전문교육, 캠페인과 모니터링 준비, 안심알바가능 사업장 발굴, 캠페인 활동, 사업장 모니터링 활동, 청소년 안심알바가능 사업장 지도 & 현판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를 캠페인 활동이라고 뽑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하기 전에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어서 '내가 과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캠페인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캠페인 활동이 시작되고 주눅주눅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점점 하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면'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고 '알바생'의 취지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알바생활을 참여하게 된 계기도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할당량을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 중에 '알바생'의 내용을 보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리고 알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활동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정보 포함 다른 정보들도 잘 모르는 사실, 심지어 사업주들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모든 정보를 알고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만 사업주한테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안심알바가능 사업장을 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업주께서 이 정보들을 다른 많은 사업주들도 모르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다 아는 정보들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하였고 이런 정보들을 따로 제공해주지 않아 모른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 포함된 사업주 교육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업주들이 이 활동을 참여해주시고 참여를 못해주시더라고 다들 알고 있으면 서로서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활동이나 교육이 많아지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사업주 모두 다 지킬 건 지키면서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언젠가는 오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청소년 근로환경정보화단 알바생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안전하고 의미 있는, 보람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영조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알바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유혁재 | 청동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처음 '알바생'공모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때, 현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꼈다. 2016년 기준으로 청소년들 열 명 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근로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쉽사리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보호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 역시 청소년 역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다.



동시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알바생'이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일지라도 근로라는 활동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끼어들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실제로도 청소년 안심알바 가능 사업장 섭외를 위해 사업자들과 동화를 할 때 수신 거부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공모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알바생'모두가 너무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 보호라는 민감하고 동시에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활동 종료 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준 '알바생'청소년 여러분들 덕분이다.

이런 '알바생'들과 함께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바로 캠페인이다. 창동역 근처에서만 두 번의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처음 캠페인을 나갔을 때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었다. 그랬던 친구들이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잘 다가가고 청소년들의 근로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해 잘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활동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친해질 기회가 적었던 점이다. 5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15회기의 활동을 하면서 토요일 2-3시간만 만났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 서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알바생'끼리 놀면서 친해질 기회가 있었다면 보다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멘토를 두었음에도 항상 웃으며 활동해준 조원인 홍준, 민하, 유리, 은주에게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싶다. 물론 담당선생님인 영조선생님과 각 조 멘토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알바생'활동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 활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청소년의 노동이 당연한 행위를 인식하게 만들고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 알바생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조유리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매주 토요일, 저에게는 매주 토요일은 그저 주중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그저 잉여스러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소개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 활동은 제게 토요일을 뜻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우선 최저시급도 정확히 모르는 제가 청소년 노동 권리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초반 노무사님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될 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안심 알바 가능 사업장' 발굴을 위하여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조사 할 때마다 친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임금체불도 경험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근로단 캠페인 활동에 대해 더 열심히 참여 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청소년 근로 현실이 얼마나 심각 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체 활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 다른 학년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나 회의를 할 때, 의견 통합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의 주도 아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진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힘이 들어가는 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을 위해서 담당 청소년지도사 김영조 선생님과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같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이 발 벗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협조를 통해 달성되는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다양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양한 배울 점을 준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 활동이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할아버지 분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고, 토요일 4시라는 애매한 시간 때문에 가기 싫은 마음도 문득문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잘 격려 해주고 주변 친구들의 근로 환경을 내가 개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잘 추스르고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 활동을 끝까지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뜻 깊게 기획되어진 사업을 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만들어진 현관을 선생님께서 단체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셨을 때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근로환경보호단 알바생 같은 뜻 깊은 활동이 많이 생겨 청소년들의 근로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천사(천문역사)단 활동을 하고 나서

이선아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나는 천문역사단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천문역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천문에 대해서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태양, 달 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천문지식이 쌓였고 천문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천문역사단 활동을 하면서 먼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갔다. 내가 박물관 문화재들 중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립민속박물관의 신구법천문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신구법천문도는 조선시대의 문화재들인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천문이 발달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1박 2일로 떠난 천문역사캠프 중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서는 정약용선생님께서 만드신 <가중기>를 보았다. 수원 화성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다산정약용 유적지의 아쉬웠던 점은 방문 당시 다산정약용의 생각이 공사 중이었다. 다음에 방문할 때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볼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중미산 천문캠프! 역시 최고로 재미있었다. 관측활동을 했지만 구름이 많은 날씨여서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속이 상했다. 목적 달성은 못했지만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지 않고 멀리 다녀온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중미산천문대에서 배웠던 내용 덕분에 나는 요즘 우주학교에서 달과 별 우주수업에 참여할 때 수업내용이 더 즐겁다. 질문에 답변도 크게 할 수 있게 되어 으쓱해질 때도 많다.

천문역사단을 통해서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보고 싶어지는게 많아졌다.

엄마는 힘들다고 투덜 하셨지만 나는 계속 즐리서 우주학교에 특별 별관찰도 다녀오고 독서에 있는 자벌레에 가서 달도 보고 토성도 보았다. 너무 신비로웠다. 가까이에 있는 송암스페이스센터에도 가보자고 즐리지만 비용 때문에 엄마는 계속 고민하신다. 진작 다녀온 친구 혜주가 부러웠고 언젠가는 용돈을 모아 다녀올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에서 별이 가장 안 보이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두번째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별이 잘 보이는 나라 뉴질랜드에 어른이 되면 꼭 가볼 것이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다시 신청하고 싶고 다른 친구에게도 꼭 해보라고 추천도 해주고 싶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 은하 밖에 있는 행성, 은하 등 여러 천문에 관련된 것들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 멘토 언니오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앞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릴 것이다.

# 꿈을 향해 달려가는 16살.

엄선화 |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 1. 계기 (배우의 꿈을 꾸던 아이)

연기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인 '역사 GO'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지만 주는 연기가 아닌 역사이기도 하여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집이랑 매우 먼 거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역사와 함께 연기도 배워볼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2. 프로그램의 7개월, 반년간의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로웠던 아이)

같은 반 친구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한달에 3번, 방학때 5번씩 주말마다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선생님들에게 연기의 기초를 배우고 연기연습을 하며 역사 기념관 탐방, 연극관람,

퍼포먼스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날이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라 지루한 줄 모르게 반년이 사라졌습니다.

## 3.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던나, 더욱 알고싶어(역사가 재미있는 아이)

제목이 '역사GO'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역사는 저에게 재미있는 분야였습니다. 다른 활동에 참여해본적이 없었으나 마냥 연기, 연극만이 아닌 역사도 같이 배워 조금 더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금더 깊고 폭넓게 역사에 대해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 4. 공모사업 '역사GO'에 참여 전과 후(한결음 더 내딛은 아이)

활동하며 2번의 퍼포먼스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주제로 뮤지컬 퍼포먼스, 위안부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나비의 꿈 퍼포먼스. 만약 이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들과 마음가짐,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 없었기에 정말 참여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 전의 나는 꿈은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참여 후 역사에 대해 배우며, 연기의 꿈을 향해 한발 더 내딛고 방향을 잡아 준 선생님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5. 프로그램의 마무리 역사 창작극(미래를 생각하는 아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역사 창작극'나비의 길'을 공연하게 되었고 위안부라는 주제로 뜻 깊은 공연을 하게되어 행복했습니다. 소원하던 연기를 펼칠 수 있었고, 200백여명의 관객들을 만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정말로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이날은 마지막 공연일이자 프로그램 마지막날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한 여성가족부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꿈에 대해 한발짝 더 다가갈수있었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고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참여, 주변에 100% 추천할 것입니다.



꿈과 단정함의 여정

##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역사GO에서!

신채영 |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 [새로운 경험을 수련관에서]

먼저 제가 역사GO!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된 계기는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권유를 받은 후 과연 내가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참여 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 [좋아하는 것들이 1+1]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역사를 주제로 해서 연극을 한다는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고 연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운 저는 과연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그러한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것에 뿌듯함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생은 실천!]

프로그램을 하면서 두 번의 플래시몹을 하였는데 그중 8월에 했던 플래시몹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수요집회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서 연극의 주제인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던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8개월간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올린 11월4~5일입니다. 처음으로 극장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고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올린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 떨렸지만 하면서는 정말 즐거웠고 실수는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잘 마쳤기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연극의 소재가 일본군위안부이다보니까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몰랐던 것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 [공모사업 역사GO! 나도함께 GO!]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연기와 연극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라는 저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게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자신이 여러방면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좋고 다음에 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거듭나길

안소정 |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14년, 짧은 시간 내가 겪어온 일들 중에 역사와 관련된 경험을 적으려면, 아마 올해 했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공모사업 '역사GO!' 활동 일 것이다. 이곳에서 나의 경험을 적어보려고 한다.

### 1. 나는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나는 역사를 주제로 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제로 한 위안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연극의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깊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연기를 위해 조사를 시작하던 것이, 연기를 위한 조사가 아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바라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의 아픈 역사에 무지했던 것이다.



### 2.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한 연극을 준비하며,

사업의 마무리인 연극을 위해 약 3개월간 친구들과 주말마다 만나서 3~4시간정도 꾸준히 연습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나비의 길'이라는 연극공연에 임하였다. 당대 상황을 직접 알 수는 없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할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먹먹함이 느껴졌다.

위안부라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며 알게 된 면모를 나만 알고 넘어가는게 아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위안부가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을 이겨내게 하였다. 또 이런 목적을 연극을 통해 달성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신감과 보람을 얻었다.

### 3. '역사GO!'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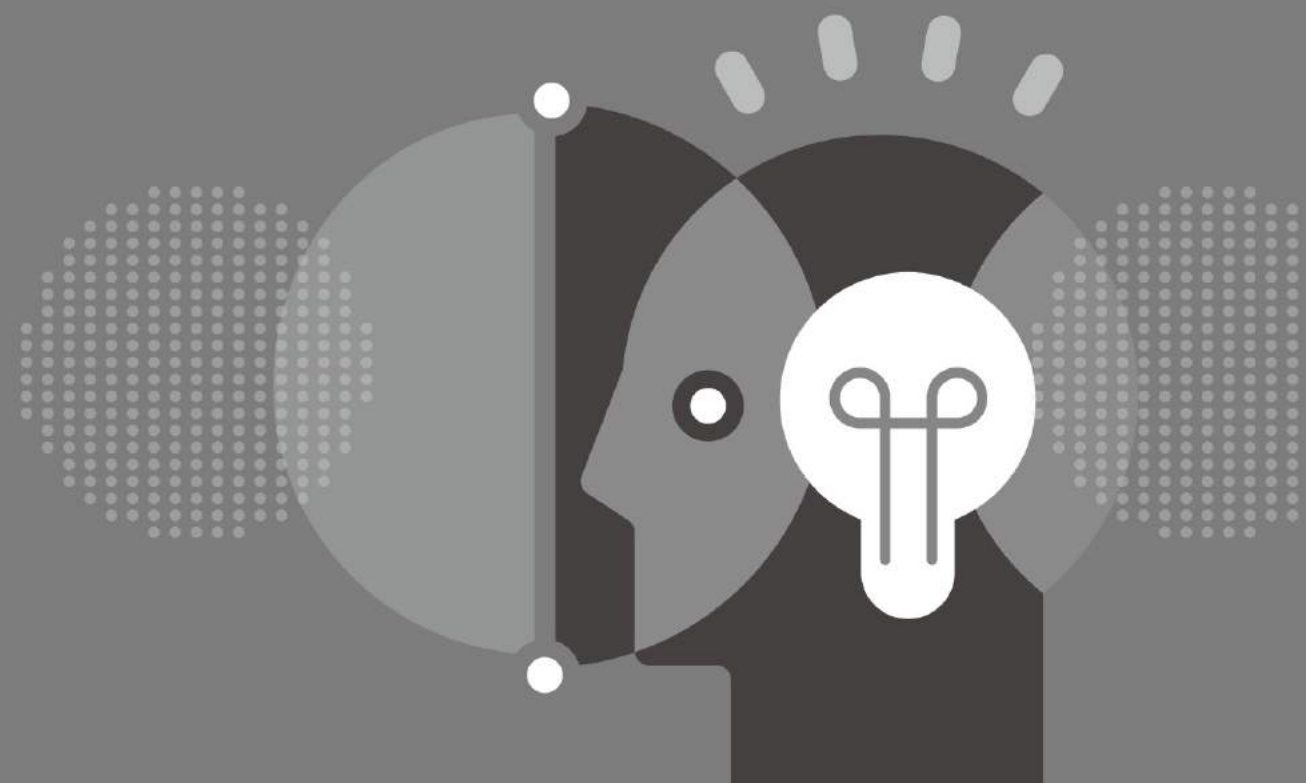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나는 이전에 '역사'라는 주제가 그저 옛날이야기, 전쟁하는 이야기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해나가면서 나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일깨우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노력했음지도 모르겠다. '역사GO!'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었다.

### 4. '역사GO!' 활동을 마무리 하며.

연극 외에 더 기억나는 것을 꼽으라면 연극 전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는 '수요 집회'에 참가했던 것이다. 내가 직접 참가하면서 나의 작은 행동 자체에도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느낀 아주 감명 깊었던 활동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남들은 느끼지 못할 감정들을 겪고 느끼면서 얻게 된 것은 나의 마음을 더 성숙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나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수업시간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워 잘 알려지지 못한 위안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기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청소년지도자 부문



# 청소년, 현 신발로 새로운 희망을 거닐다!



전희주 | 디딤청소년활동센터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 제1막, 현 신발이 희망으로 다가온 봄!

2017년 봄, 청소년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마음 곳곳에 심는 활동인 2017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마을의 버려진 신발로 만드는 유스메이커무브먼트「소하리 희망로드」(이하 소하리 희망로드)에 꼭 필요한 재료인 현 신발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만 관심을 가져주던 지역 주민들 및 유관 기관이, 자원의 재사용 및 청소년이 직접 마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들고 삼삼오오 신발을 기부해주셔서 모아진 신발이 약 160여 켤레가 되었습니다.

현 신발 모으는 것이 이번 활동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 활동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는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이 많이 생겨난 것에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제2막, 청소년 기획단 희망을 말하다!

2017년 5월 20일, 청소년 희망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인원인 50명 모집이 힘들겠다고 생각하였지만, 현 신발 모으기 운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였고 총 54명의 청소년이 기획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불 때,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참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단순 교육과 체험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과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번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이 필수지만 딱딱하지 않은 교육을 위해 참여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발대식 이후 1회차부터 활동에 필요한 '메이커무브먼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를 섭외하여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생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여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초기부터 청소년들이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회차에서는 이론 교육을 통해 머릿속에 정리 되지 않았던 '메이커무브먼트'에 대한 생각을 실제 창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며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론으로 익힌 후 현장을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익히는 것이 청소년들의 학습적으로 더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제3막, 현 신발에 청소년의 희망의 숨을 불어넣다!

2017년 7월~9월, 10회에 걸쳐 청소년들과 정크아트 제작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유관기관이 기부해준 약 160개의 현 신발에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창의성을 보태어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현 신발에 꽃을 심어 회분을 만드는 '희망꽃길팀'과 LED조명을 심어 환한 불빛을 만들어내는 '희망조명팀'과 청소년들이 직접 적은 희망이 문구를 심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메세지팀'으로 나뉘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소년들과 기존의 있는 작품이 아닌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낸다고 계획하였을 때에는, 청소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였지만 실제로 작품 제작에 들어가보니 청소년들이 다양한 손재주와 창의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 신발에 페인트칠을 하고 공예품을 붙이면서 꽃을 심지 않아도, 신발 그 자체만으로 예술품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의 재능은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사와 함께 약 160개의 정크아트를 제작하면서 청소년들 또한 스스로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활동과는 달리 재료부터 만들기까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담당지도자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 제4막,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만든 희망을 수놓다!

2017년 9월에는 청소년들이 만든 정크아트를 지역사회에 선보이고자 '정크아트갤러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에서 기부해준 신발이 청소년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창작품으로 거듭난 것을 모두에게



널리 알리며 청소년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갤러리를 운영할 시, 자신이 만든 작품은 스스로 설명하며 큐레이터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갤러리'를 운영하며 마을의 곳곳에 정크아트를 배포하며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도 희망을 뿌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정크아트가 쓰레기로 보이지 않도록 관리도 하였습니다. 길거리 갤러리를 통해 약 2,000여명이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활동을 공유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이커페어'를 통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정크아트 제작활동을 해봄으로써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커페어'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창작품으로 재 탄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라고 참가소감을 말해주었다.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거듭 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희망 매거진'을 발행하고 지역에 배포하면서 청소년들이 약 7개월간 활동해온 발자취를 공유하면서 지역 사회내에서 청소년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화를 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활동을 해나가면, 지역의 관심도 높아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표본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힘을 가진 청소년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활동이 된 것 같아 더욱 뿌듯하였다. 헌 신발에 청소년만의 희망을 넣어 새롭게 재 탄생시켰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고, 청소년 스스로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며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많이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사업이었다.



##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 활동에 머문 기억의 풍경



홍유라 |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조분야

동행 활동은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을 길을 열어준 사업이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멘토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은 청소년과 멘토가 함께 “동행”하였던 시간이며, 또 그들의 기억이 머문 그곳의 풍경들이 마지막 사진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또 그 소소함 속에 있는 잔잔한 감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이 있었던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들어보실래요?



입사하자마자 하게 되었던 “동행”은 막연하고도 어려웠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제목의 “동행”은 제가 이사업과 “동행”할 수 있게 틈틈이 제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동행은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문멘토들을 만나 멘토-멘티의 1:1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활동과 조금 더 색달랐던 점은 멘토들이 전문 상담을 하시던 역량있는 선생님이라는 것과, ‘사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멘토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감동과 성장을 준 활동이었으나 그 처음의 시작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막연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난감했던 것은 모집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 활동에 원활히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잘 따라오지 않던 청소년들로 인해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터에 멘토선생님들의 소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자발성이 높은 청소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인 그들은 학교 안에서도 위계관계에서부터 또래관계, 규칙생활이 어려웠는데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여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멘토선생님이 보고싶고 재밌는 선생님은 아니었던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되는게 어떨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라는 고민을 멘토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는 회의시간들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었고 덕분에 월 1회 계획했던 회의는 월 2회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이 전달되었던 건지 청소년들이 뭐 이정도면 한번 저주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청소년들은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우리는 “동행”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과 진정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멘토 선생님들의 활동일지를 보고, 또 청소년들의 촬영 사진들을 보며 직접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진귀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행”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의미있는 장소를 가서 자신만의 문화를 발견하거나, 문화가 있는 장소에 가서 경험하며 지역사회 내의 문화 속에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보며 “동행”이 청소년활동의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예술에 정확히 맞게 흘러갔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문화를 경험하며 지역사회 내의 자신을 경험하는 것, 이를 사진촬영이라는 예술활동으로 남겨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말 건강한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의 “동행”활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제목은 더 길게 있었거든요.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 감성힐링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촬영 사진은 활동일자 별로 모아 사진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상담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을 모아 만든 사진첩은 정말 하나의 동화책이자 역사책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있으며 그리고 내가 바라왔던 세상의 사진들이 촬영되어있고 나아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한 다짐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책들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동행 사진전이었습니다. 사진전의 초기 제목은 “같이 걷기”였으나 “기억이 머문 풍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미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힘겹게 살아온 삶,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짐하며 같이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낸 시간들과 그림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풍경으로 바라보며 다음 발을 내딛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감성힐링프로젝트 동행의 사진전 “기억이 머문 풍경”은 뷔페를 빌려 홀에서 진행되었고 이 활동의 정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뷰와 찍은 사진들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동영상은 모두를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만들어진 동영상 2분 30초였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꿈을 찾고, 친구관계를 회복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진학하기로 한 각기 목표를 이룬 청소년들,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며 상담에 있어서도 활동에 있어서도 역량강화가 되었던 멘토선생님들, 그리고 ‘사진’이라는 매개가 흥미롭게 다가와 새로운 길을 꿈꾸기 시작한 저에게도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동영상이었기에 모두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끝으로 짧고도 긴 여정을 함께 했던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삶을 보듬으셨던 멘토선생님들, 함께 다닌 않았지만 동행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저와 그 자리에 참석해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동행”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머문 풍경”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다.

## 초짜배기 신입 청소년지도사, 가치 발견의 힘을 맛보다.



서희주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올 해 청소년활동 문화예술 분야에 <청소년문화감성충전소 Crush On Art>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극히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아이들이 이 좋은 취미를 왜 즐기 못할까에 대한 사소한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의문에 대한 답도 시답지 않게 간단했다. 재미가 없어서. 시험에 나올만한 구절에 밑줄을 쳐가며 획일화된 답을 알려주는 한국 문학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문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이 배제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분야는 바로 흥미도였다. 그에 따라 독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욕구가 높은 뮤지컬, 영화를 회기에 삼입했고, 팝아트, DIY, 도예아트, 플라워아트 등의 관심도가 높은 공예활동을 문학의 주제와 소재에 맞춰 접목하였다. 또한 스스로 발견한 가치 및 재능을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봉사, 나눔, 기획에 테마를 맞춰 캠페인 활동, 작은도서관 재능나눔 활동, 토크쇼 기획활동을 병행하였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좋은 문학의 조건은 시대성을 초월한 가치 공유 및 이를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나는 사진에 선정한 작품들이 자아발견, 동물학대, 성차별, 세대차이 등 현대 문제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모종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는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과 관계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했던 문학토론은 실패한 경험이 있던 지라 이번 프로그램의 문학토론은 내가 직접 진행했다. 매 번 자료를 만들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학 토론은 이번 프로그램의 근간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바와 같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였다. 그에 따라 강연식으로 진행된 토론활동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소규모 모둠 활동으로 변경하였고, 모둠 별 미션활동, 본인의 경험 이야기해보기 등의 쉬운 주제에서부터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꾸준히 지속하였다.

가슴 벅차게도 끊임없는 고민과 진심이 아이들에게 통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극히 자제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생각을, 그리고 가치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성인으로서의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기발한 생각들,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들, 그리고 그것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처리하는 능력들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서 배운 공예활동을 봉사 및 작은 도서관에 재능 나눔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캠페인 활동 전개 시에는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작은 도서관 재능 나눔 활동 시에는 배운 것들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몸소 맛보았다. 아마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성취가 성장의 중요한 키포인트였을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은 토크쇼에서 확연히 들어났다. 시민초대로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아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진지하게 고민했고, 이를 무대 앞에 패널로 나와 내 생각 전문가로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본 지역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으나, 호응적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토크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적극성은 새로운 토크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토크쇼에서 스피커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이미 문화토론으로 특화된 토크들과 내 생각 전문가 패널들이 이어나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수준만으로도 토크쇼가 풍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빌 그로스는 '발전이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한 힘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은 몸이 아파도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의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단 세 가지만 가르쳐주었다. 정답이 없는 사회에서 나의 가치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가치를 존중할 것, 상황에 예민하되 표현에는 신중을 가할 것,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 그 이후의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발견하여 배운 가치들이었다.

기관의 막내인 나에게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도전이었으며 성취였고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장구였다.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옳다고 주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사 만큼은 서로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보고 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번 기회로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을 얻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나의 첫 공모사업 Youth 2642(이웃사이)

김경미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함께 시작하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의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함께 정기회의 때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3월이었습니다.

회의 전, 위원들한테 미리 공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사해가지고 오라는 과제를 내주었고 20명의 위원 중 6명이 이슈였던 "경비원 감질"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흔히 말해 잘사는 부자동네에서 상한음식을 먹으라고 아파트 5층에서 음식을 던져준 입주민으로부터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경비원사건과 경비원 자살한 사건 등 다양한 경비원을 향한 씨늘한 시선과 부당한 대우들을 예로 들며 청소년들은 적극 공감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 시작되었습니다.



### 한명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 서명운동 전개

단순 캠페인 활동이 아닌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서명을 받고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 활동 취지를 설명하였다.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매회 평가회의를 하면서 느낀점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모습이 대견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처음(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주눅주눅 말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하반기)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적극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뜨거운 9월의 서구청소년 진로박람회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험부스운영과 서명운동, 캠페인활동을 하면서 더운 날씨 덕에 쉬면서 하라고 말했지만 몇몇의 청소년은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한명에게라도 더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경비원분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알려야한다면 쉬지않고 활동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늘 활동 시작 전, 청소년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해면서 활동에 임하기에 청소년들은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칫 부끄러울 수도 있는 서명운동과 캠페인활동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습니다.

### 경비원 대상 “나눔의 2642”활동 전개

나눔의 2642 활동으로 경비원분들 대상으로 직접 아파트에 찾아가서 여름철에는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부채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포장한 간식, 겨울철 장갑선물로 경비원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선물을 드릴 때 봉사하러 왔다고 말하여서 한 경비원분이 “왜 우리에게 봉사를 하나면서”화가 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봉사가 아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러 왔다면서 경비원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는 쿠키 유통기한이 짧다는 걸 알고 뉴스에서 경비원분들에게 상한음식이나 유통기한 임박한걸 주는 입주민들도 있다면서 혹여나 경비원분들이 원래 짧은건데 오해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직접 만든 쿠키여서 쿠키의 유통기한은 짧고 다른 간식들은 유통기한이 넉넉합니다.”라며 말하자는 청소년의 뜻대로 청소년들의 방식으로 선물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걸 느꼈던 나눔의 2642 활동이었습니다.

나눔은 경비원분들에게만 전달해드린 것이 아닌, 우리들 마음속에도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첫 공모사업

청소년지도사로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활동팀으로 넘어와서 맡게 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저의 첫 공모사업으로 “우리는 Youth2642(이웃사이)”는 저에게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늘 초등학생만 상대해오던 저는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청소년들과 활동하고 나면 다음의 활동이 기대되고, 다음엔 또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서로 피드백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의 역량에 감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외부활동을 할때에도, “짧은 우리도 이렇게 추운데 아파트를 위해 고생하는 경비원분들은 얼마나 더 추울까?”라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서명운동과 캠페인 활동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알려야한다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보면서 지역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었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고맙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으며 내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어떠한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 나에게 공모사업은 마중물이다. 왜~? 지금도 ing니깐!

이용진 |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저는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이후 많은 분들이 “아~거기”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입니다. 영화에서는 신비로운 사건과 사고가 있는 지역으로 나오지만, 영화와는 다르게 평화롭고 조용한 신촌지역입니다.



곡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놀란 점은 제가 도시에서 청소년 관련 일을 하면서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곡성에는 오락실이 없습니다. 보세 옷집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없고, 영화관이 없습니다. 지역의 환경이 이렇다보니 청소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지역 특성상 청소년이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데, 학교까지 다니지 않으니 학교밖청소년들은 더욱 움추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 기반 부족에 감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자”로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고, 곡성에는 독거노인이 많고, 세계장미축제라는 인지도 있는 축제가 있다’는 3가지 포인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어른들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예선생님께 천연비누와 식고방향제 만드는 법을 배웠고, 세계장미축제 때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센터에 함께 모여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곡성역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팀을 짜 매일 돌아가면서 천연비누와 식고방향제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수익금으로 갈비탕이 먹고 싶다는 어르신, 오토바이 탈 때 필요한 멋진 방한 장갑이 필요하다는



어르신, 거동을 하지 못해 옷을 사고 싶는데 못 사신다는 어르신, 허리가 아파 보호 밴드가 필요하다는 어르신, 머리 염색이 소원인 어르신 등 21가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동아리 친구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 전달하고, 때로는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나와서 옷을 사고, 염색이 소원인 할머니에게 미용자격증이 있는 학교밖청소년이 직접 염색과 머리 손질을 해드렸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8개월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밝아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편견어린 시선에 위축되어있던 아이들의 발걸음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는 힘이 실렸습니다.

나에게 공모사업은 이렇게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입니다. 아직은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어질 우리의 활동은 더 멋진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 꿈이 현실이 된 청소년 이야기 “청소년 꿈의 온도”

김문주 |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청소년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Youth Mappist)을 아시나요?  
단순 정해진, 답이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함께 삶의 다양한 길을 걸어보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삶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업적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가슴 따뜻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김문주입니다.

이러한 저의 직업적 비전이 바탕이 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꿈을 향한 청소년들의 열정은 몇도 일까요?  
우리의 어느 멋진날 “ONE FINE DAY” 함께하시죠~!



### 〈시작하기 전 지도자의 마음가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감사하게도 2016. 여성가족부 공모사업(활동분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한번 더 지원을 받게 된 프로그램이라 전체적인 매뉴얼과 실행 계획들이 잘 나와져 있기에... 올해도 똑같이 진행해볼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었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벅참을 느꼈던 작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평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환류시켜 또 다른 변화를 준다면? 뭔가 더 단단해지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2017년 8개월 간의 긴 대장정! 우리의 어느 멋진날이 시작되었다.

### 〈설레이는 첫걸음—우리의 꿈의 온도는 과연 몇도일까?〉

꽃향기 가득한 봄내음 나는 4월 안양시 관내 중학교 대상 홍보를 통해

기관과 협업이 잘되고, 청소년활동에 이해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하여  
귀인중학교 24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직업군을 탐색·체험해보고, 실제 직업인이 되어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는 자기주도형 진로프로그램으로 처음 마주한 아이들의 얼굴은 설레임과 긴장감이 함께  
물어있었다.

제대로 된 진로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어 온 친구, 무작정 친구 따라 온 친구,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온 친구 등  
각자 저마다의 색과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벌써부터 나를 설레고,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참여, 행복한 변화-꿈의 온도를 높이다〉

정확한 목표를 갖고 참여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야만 친구들도 있기에

단순 일회성 진로를 체험해보는 목적이 아닌, 활동을 통해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명 한명에게 "역할분담"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막연하게 의무감으로 참여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도자로서 아이들 의견 반영에 따른 행정절차(계획 및 예산 변경 보고 등)가 가끔 벽차기도 했으나,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도자인 나는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욕심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 더욱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루함보다는 행복한 웃음과

새로운 도전에 설레어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쩍  
더 많아진 질문들과, 시끄러워 끼려고 싶은 정도로 밤새도록  
올리는 단체 카톡방에서의 활동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  
방과후에 따로 조별로 모여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 뿌듯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음에 참  
안타까웠다.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  
학과 멘토링, 방학기간을 이용한 전문가 멘토들과 현장실습,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로고송·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변화속에서 발견된 뜨겁게 끓는 우리의 꿈의 온도〉

활동의 최종 마무리 단계 "성장발표회"에서는 학교 친구들,  
부모님, 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들의 목표대비 성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발표회에 필요한 물품 구입부터  
시간대별 시나리오 작성, 운영(MC) 등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활동의 끝맺음이라  
생각하니 담당 지도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아이들도 느꼈는지 시작도 전에 눈물을  
쏟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만 했다.

한명 한명 무대위로 올라 연간활동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단순  
진로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했다던 아이, 이렇게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지 몰랐다는 아이,  
진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협동심·협업을  
배웠다던 아이" 등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변화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청소년지도사 하길  
잘했다는 마음을 들게 했다.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된, 뜨겁게 달궈진  
아이들의 진실된 꿈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이 뜨거웠던 우리의  
온도를 기억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에게 원동력, 힘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멘토로서, 감사하게 빛났던 여름.

설윤정 |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올해 2017년 여름은 무더운 만큼 빛났습니다. 대학생은 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진로멘토가 되어주겠다는 기대와, 농산어촌 청소년들은 서울에서의 진로체험의 기대, 그리고 담당학교교사는 다소 진로체험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 등 서로간의 기대와 바람이 가득 찼던 여름이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로서 대학생들을 관리, 준비시키면서 농산어촌 청소년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보람된 일 인 만큼 준비과정에서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았지만 올 해는 대학생멘토들도 수련관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고, 연계된 담당 학교교사 또한 진심을 다해 함께 준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처음 진행한 농산어촌 진로멘토링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만큼 멘토링프로그램은 재밌고 신나게, 보람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한차례 진행 후 한달여 뒤 멘토들과 진남 여수의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또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대학생멘토단 20명들이 전공하는 학과를 체험해볼 수

있는 학과박람회를 진행하였고, 25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저희가 불때도 굉장히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으 볼 수 있었고, 종종 자신이 궁금해 하는 진로에 대해 해당학과 대학생멘토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진로멘토링 캠프를 진행 한 멘티들의 자신의 진로스토리텔링 7분 스피치 시간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발표한 멘티 뿐만 아니라, 청중으로 들던



청소년, 대학생, 학교 교사들에게 큰 의미로 진로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학교의 교사들의 평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수화양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외부 강사, 멘토들이 방문해 주는 기회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서울에 진로캠프를 갈 수 있었던 40명 뿐만 아니라 1,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미있게 활동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2시간 넘게 강단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자극이 필요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서울에 있는 정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저희 진로프로그램과 자주 연계되는 학교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저희 청소년지도사 및 대학생들을 기억하고 반가워 할 만큼입니다.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학교교사 모두 익숙해 있던 진로프로그램을 농산어촌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진행해보니 진로프로그램의 격차가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청소년지도사로서 익숙했지만 계속 해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정책실현으로 꿈꾸는 청소년과 지도사

방지혜 |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 청소년 정책실현의 우수사례, 그 비법은?

나는 입사하고부터 현재까지 자치조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청소년자치조직이 정책실현을 주제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비결이 무엇인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머라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사실 청소년 정책실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해주는 것이 청소년지도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정책실현

첫 도전은 청소년정책 의무화였다. 정기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보니 '청소년정책서 의무화' 제안활동이었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이들도 어려운 주제였지만 나에게도 쉽지 않은 주제였다. 그때부터 청소년정책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함께 활동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과 이 사회에 대해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훨씬 더 성숙한 존재였다.

두 번째는 정책 실현이었다. 작년에 이어 청소년중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하였다. 사실 국가에서도 발급확산의 어려움을 겪다보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실패할 것 같은 시도를 할 때에는 지도자가 개입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갈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다보니 그 실패와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아이들의 도전의식과 성취감은 더욱 빛났다.

### 청소년, 미래의 희망? 현재도 빛나는 존재!

항상 청소년에 대해 미래 우리나라의 희망이라 말한다. 나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과 만나며 현재에도 빛나고 있는 보석이라고 말한다. 또한 청소년은 그 자체로도 빛나는 존재이지만 상상하고 꿈꿀 때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된다. 나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고자 노력한다.

### 재미에서 꿈으로 이어지는 청소년활동

작년활동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청소년정책서 제작, 올해는 국가청소년정책 '청소년중 발급확산'이었다. 활동하며 홍보팀장은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올해 회장은 청소년정책연구원, 부회장과 서기는 청소년지도사로 진로를 정했다. 다양한 경험,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을 넘어 이제 진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청소년참여공모사업! 또 하나의 기회

위의 말처럼 청소년참여공모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참여동아리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과 지도사가 함께 고민한다면 작게는 우리 일상생활, 지역사회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는 참여가 적은 청소년 정책과제 실현분야에도 참여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필요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실현되어 갔으면 좋겠다.

## 청소년지도자가 행복하면 청소년들은 더 행복하다.

이재영 | 한국청소년연맹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공모사업 활동수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정확하게 저는 참여청소년도아 아니고 청소년지도자도 아닌 참여청소년지도자가 맞습니다.

12년 동안 청소년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7년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힐링을 하였기에 저와 같은 청소년지도자가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이렇게 활동수기를 작성하겠습니다.

항상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고 연구하며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지도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활하는 게 당연한 청소년지도자에게 2017년 새로운 모집공고(안)이 떴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재충전·힐링 프로젝트 '휴(休), 그리고 가족愛' 참가자 모집 공고 다른 기관 청소년지도자가 알려준 이 모집공고를 본 순간 이걸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쓴다고 되긴 하겠어?

의문과 희망을 가지고 저는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고문을 보고도 참여 신청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목적은 격무에 시달리는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돕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함, 사업취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밤낮 그리고 주말 없이 일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배우자, 아빠, 엄마로 두어 늘 주말을 양보해야만 했던 그 가족들에게, 행복한 주말도 돌려주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읽는 순간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주변에 청소년지도자들이다.

느꼈고 줄줄이 참가신청서와 신청사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지도자와 가족들을 힐링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항상 지도자로만 있었던 청소년지도자들이 참가자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은 3가지로 나뉘는데 일본 홋카이도, 부산/거제, 제주도 이렇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일본 홋카이도를 신청했습니다. 한 번도 일본을 가보지 않았고 이왕이면 해외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절주절 사안을 다 쓰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아하!!!

일본여행은 청소년지도자만 가는 것이고 부산/거제, 제주도가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건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홋카이도 가족여행 갈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도 해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사안이 채택된다면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안을 쓴다고 다 채택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김칫국을 사발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대만 하고 있던 저에게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사안이 채택되어 일본 홋카이도를 가게 되었다고!!

그때 당시 잔금도 안 되고 인사이동도 되어 사무룩한 저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거 같았습니다.

힘내서 청소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고^^

2017.6.9.(금) ~ 12(월) 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전국 청소년지도자 30명이 일본 자연탐방, 힐링타임, 청소년활동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도자들이 해외로 가는데 사전모임을 하기 힘들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인사도 하고 프로그램 일정도 공유하면서 여행준비를 하였지만 별 문제없이 우리 모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만났지만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같은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삿포로 도야에 도착하여 도야호 유람 선을 타고 나가지마섬에 가는 것을 시작으로 3박4일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본이라는 장소보단 힐링을 목적으로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자연을 보는 것이 80%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홋카이도는 정말 청정지역 공기가 맑고 깨끗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노천탕에서 바라보는 도야호수 불꽃놀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 이었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또한 즐거움이자 힐링이었습니다. 결혼식, 아이 돌잔치, 수련관 프로그램 등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긴장되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참여자가 되니깐 그 느낌이 확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느껴봐야 한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3박4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건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가야할 시간에 버스에서 잠을 자지 않고 30명 청소년지도자들이 앞에 나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지만 역시 청소년지도자들답게 마이크만 잡으니 사연들이 술술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다른 청소년지도자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정이란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서 수학여행 온 일본 여자고등학생들과 찍은 사진은 가장 아끼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너무 순수했어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준비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힐링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그 혜택을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플러스 되는 아주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지도자들 파이팅!!



# 토마토(Together Make Top)가 만드는 함께 하는 세상

박영지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청소년의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2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공고는 아이들에게 한해를 시작하는 도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지원하면 좋을지,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문제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공모사업 지원까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과 수차례 회의 끝,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현재의 안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인식개선'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 조금은 무거운 수 있는 주제이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실행가능한 선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의 시간동안 우리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경제활동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사람을 상대하고 특정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기획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로인해 아이들은 실망하기도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현장에서 만나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고마움의 표현들이 아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스스로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하는 사회가 주는 의미를 몸소 깨닫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대리어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관계개선'이라는 영역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운영 청소년들은 어린 동생에서부터 또래 청소년,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 수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게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적어주신 폐지수거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부정적이었던 시각을 긍정적이게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나눔장터는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물건들을 기부해주셨고, 장터에 찾아오셔서 물건을 구입해주신 덕분에 폐지수거 어르신들께 저울질 꼭 필요한 방한용품들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명함배포 및 기타 활동에서 만난 지역주민분들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이 예쁘다', '아이디어가 좋다' 등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고 프로젝트가 더욱 빛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세상,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성장**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저에게도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된 '어르신', 한번도 가본 적 없던 낯설기만 한 '고물상'이라는 장소, 처음 시도하는 '자원순환가' 직업명칭 등 모든 것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프로젝트인만큼 저에게도 도전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직면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다시금 일으켜준 것은 바로 함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이 프로그램에서 만큼은 참가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직접 발로 뛰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참여활동을 직접 이끌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획하고 아이들을 이끌어나갔던 프로그램 경험보다, 아이들이 방향을 잡고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더욱 가치있게 느껴졌고, 청소년들의 가능성이 무한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2017년, '찾아가는 안전한 대리어가 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나의 방향성을 설정 하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지도자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심미보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호분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 행복한 고민**

올해 1월 나는, 가족행복을 바라는 우리시의 희망으로 행복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공모사업을 위한 조사에서 가볍지 않은 문제들은 내가 '행복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사회는 이미 이혼율 증가, 저 출산 등의 사회변화로 가구의 유형별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고위험 청소년비율도 높았고 덩달아 부모와의 대화도 단절되어 갔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작은 씨앗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계속된 연구서적 서치로 찾아 낸 정보는 '가족자원봉사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이다. "그래! 바로 가족자원봉사 활동이야!"

**기부문화는 한 개의 기부열매로 시작**

가족자원봉사(재능기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세부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었다. 석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목공소를 찾았고 우연히 꽤 널찍한 목공소를 찾았다. 무작정 사장님을 붙들고 가족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다행히 좋은 일에 동조하시겠다고 흔쾌히 승낙해주셨다. 힘을 얻어 다음 기부할 곳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안양시에는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무작정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입소문이 났는지 문화의집으로 한 통의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가구를 기부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석수동의 꿈터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였다. 책장이 주저앉아 임시방편으로 책을 쌓아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센터장의 말에 나는

기부할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목공소와 지역아동센터를 수시로 오가며 기부할 책장의 사이즈와 개수를 협의하여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입소문은

꿈터 (지역아동센터)

꿈터 (지역아동센터)

이 뿐만이 아니었다. 9회기가 끝날 즈음, 안양시 홍보실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행복공예가 가족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였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 가장 활동이 우수했던 가족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역간행물인 우리안양 시정지 12월 호에 실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작은 한 개의 기부열매가 다시 열매를 맺는 일이 생긴 것이다.

####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참가 가족

‘WIN WIN’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구나!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행복공예가이다. 지도자들은 본인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의 첫 만남 때의 분위기와 표정이 지도자들을 ‘들었다 놓았다’할 정도로 예민하다. 청소년지도사라면 누구나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엄마 손에 억지로 끌려 온 자녀와 그저 무뎠던 아버지들의 표정은 처음엔 나를 실망시켰다. 정말 힘이 빠지는 표정.

나는 그들이 작은 흥미라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고, 그 작은 고민들은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충분했다. 회 차가 거듭 될 수록 엄마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색칠하고 못질하고 사포질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모습은 더운 여름날 힘이 빠지는 나를 다시 힘을 내어 지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한 우리가족들의 요청으로 마을축제에서 공예재능기부를 한 회 차 더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참가가족들에게는 나누는 행복을, 지역사회는 함께하는 행복을, 그런 가족을 지도하는 나에게도 더 없는 행복을”

#### 청소년 가족을 지도하고 있는 나는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엄마

5월부터 11월까지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의 주말을 참가가족들과 함께 지나다 보니 어느새 자녀이야기, 반찬이야기 등 사사로운 수다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 있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같은 부모의 입장이 되니 참가 가족들이 부러워졌다.

“나도 우리가족과 함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다.”



## 재미난 길거리 그려내기, 슈퍼 그뤼잇!

장은지 |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수분야

사무실보다 길거리에 있는 날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편-어라운드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의 예술 작품들을 “예쁘다”고 말할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편-어라운드는 길거리에 볼거리가 있는 생동감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해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자의 기획은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놀이 공간 조성은 길거리에서 놀이를 한다고 타인의 보행을 막아선 안 되며, 공터는 주차 공간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이유로 기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장소 모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행다락)과 대로변의 큰 계단이라는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초보다 좋은 기획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본래 기획 장소에 비해 많은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장소였고, 안전하며,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네 번의 공공미술 활동 중 3차 활동이었던 대로변 계단에 시트지 래핑 작업은 의미가 남다른 활동이었습니다. 인근 학교·예술전문기관·공공행정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건물주와 주민까지도 합심해 완성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로서 공공미술의 결과물보다 더 고무적인 성과는 활동을 함께한 청소년들의 성장입니다.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예술봉사단 청소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과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가 자신의 성장을 지원해주고, 개발한 재능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긍정적 순환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 ‘내 성적이 올랐다’거나, 지역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저 ‘혜택을 받았다’는 데서 생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봉사단으로 활동한 청소년들은 “내 손으로 마을을 바꿀 수 있고, 또래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장한 것은 단원들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20여 명의 단원으로는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1~2회 단기로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매회 30~40여 명씩 모집했습니다. 이 서포터즈 청소년들 또한 대다수가 본 활동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마을 내 공공미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미술 활동에 정보가 없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처음으로 정보를 얻는 기회였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첫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작은 계기도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는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청소년에게 지역 봉사의 참여 계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한 이 서포터즈 활동이 편-어라운드 의 가장 큰 성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변화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어느 공동체에서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마을에 벽화마을을 조성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그러한 사업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공공미술로 보일지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다행이도 이 기획이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주민들 사이에서 내년에도 다른 계단과 더 많은 벤치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나아가 큰 조형물에 예쁜 마을 지도를 그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편-어라운드의 올해 활동은 끝났지만, 활동을 환영하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활발하게 마을을 그려 나갈 예정입니다. 예술문화가 자라나는 길거리로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여성가족부 청소년공모사업에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수기를 마칩니다.



## 꿈꾸는 청소년들 아름다운 제주를 그려내다

김선미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매직브러쉬”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조분야



청소년동아리 “매직브러쉬팀”은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소속 경제, 경영 동아리 “B2IM”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바람” 위원들이 뜻을 함께하여 연합해서 만든 지역사회참여 재능기부 봉사 동아리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매직브러쉬팀에게 제주지역 구도심권의 낙후된 상권실태에 대해 설명해주며 신제주지역과 비교되는 구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로 회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능기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POP(예쁜손글씨)와 제주문화교육을 받아 노후 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메뉴판 또는 제주어 게시물등을 무료로 제작·배부해서 노후 된 업체의 분위기도 바꾸고 홍보도 하면 조금이나마 상권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들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하여 “붓-topia 제주의 꿈을 그리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제작팀원들이 POP(예쁜손글씨)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서로 서먹서먹하여 일이 쉽게 진행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선 굵기부터 원 그리기를 열심히 배우다보니 글씨도 예쁘게 써지고 제주어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며 팀원간의 서먹한 분위기도 사라지고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커져갔다.

한편, 매직브러쉬 홍보팀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업체를 찾으러 구도심권의 낙후된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를 할 때 청소년활동에 대해 인지가 낮은 업주분들을 만나면 활동에 대해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매물차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 기획할 때 모든 어른들이 우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날 때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속상했고 시작할 때의 열정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걱정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청소년들과 어떻게 하면 지역업주들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안을 낸 결과 우리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들어 사전에 연습하고 명함 및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후 업체를 재방문하는 과정에서 호응을 얻어내고 심지어 좋은 활동을 한다는 업주민들의 칭찬을 듣자 팀원들은 보람을 느낀다며 활동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홍보팀 대부분이 처음에는 지역 업주민들과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업체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로 미루었는데 횡수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업무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작품을 주문받아올 수 있게 되어 활동에 대한 열의도 커져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청소년들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붓-topia 제주의 꿈을 그리다” 프로젝트는 단회기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월 4회 이상 POP연습을 해야만 실력을 키워작품을 제작 할 수 있는데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간에 학사일정으로 변변히 참여가 안 되는 팀원들이 있어 사기도 떨어지고 갈등이 생겨 활동 중간에 평가회의를 통해 제작팀과 홍보팀을 나누어 일정을 조율하면서 참여의 효율도 높이고 책임감 있게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이런 회의를 통해 우리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팀워크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상반기 작품제작을 마치고 정성이 가득 담긴 메뉴판과 제주어 게시물들을 약속된 날짜에 맞춰 업무분들에게 전달할 때 만족스러운 미소로 열심히 잘했다며 칭찬해주자 팀원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이 모두 보람으로 변하는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또한 업무분들께서 선뜻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쓰여 질 기부금 전용저금통(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부 기부)을 건네받으며 ‘함께 기부에 참여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얘기할 실 때 우리의 작은 재능기부활동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나눔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겼다.

처음 매직브러쉬 팀원을 구성하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우리활동이 “지역참여형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던 팀원들이 이제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한다.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 우선 우리의 “참여의지”이며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 대한 관심”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은 나만의 약속 아닌 “우리와의 약속”이라고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며 앞으로 나눔의 의미를 되살려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매직브러쉬”동아리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고 이렇게 작은 재능이지만 함께 나누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제주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이야기 한다.

비록 활동을 하며 다양한 갈등으로 성장통을 느꼈겠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작은 꿈으로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청소년지도사로서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끼며 청소년들의 바람처럼 이 활동이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멘토-멘티 함께 성장했던 아름다운 날을 돌이켜 보다!

최은진 | 중원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수분야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해봅니다.

처음 다문화 사업을 기획했을 때 잘 집하지 않았던 대상이기에 막연했고 프로그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며 기대감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기획단 회의 및 평가회 7회, 캠페인 3회, 세계문화 및 직업체험 활동 12회 운영 등 긴 시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우리가 꿈을 이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려’ 프로그램이 많은 자원들 참여 속에 아름다운 막을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풍부했던 인적 자원’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국제학생회 연계로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생 멘토 모집 · 선발하였고, 중 · 고등학생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이어리 기획단을 구축하였습니다. 멘토가 되는 기획단 친구들은 수차례 모여 회의를 하고 자료를 찾아가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문화 교육봉사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 음식, 풍습을 알아보고 미래 원하는 직업 체험도 하며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소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을 때도 많았으나 1:1 멘토링으로 멘티 청소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주어 함께하도록 이끌었고, 청소년들의 이해도, 친밀도가 차츰차츰 쌓여갔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고 할까요. 어쩌면 학교에서는 특별할지도 모르는 이들,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자존감 높고 누구보다 평범한 아이들로 활짝 웃으며 참여하였습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 마지막 날, 이번 프로그램이 어땠어? 물어보았을 때 ‘참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 ‘주말이 기다려졌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멘토인 청소년, 지도자인

저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다이어리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평가회를 하는 자리에서 멘토인 청소년들은 '가치 있는 활동', '나도 멘토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생각도 넓어지고 인식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청소년 참여활동이 아닌, 멘토-멘티가 하나 되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누구하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없었던 부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우리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느끼고, 인식이 변화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생각보다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었지만...

우리가 틀린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마을학교는 인생학교, 사람이 책이다.

김창울 | 진해청소년수련관

활동분야 | 참여분야 | 보조분야



나는 참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왔다. 얼마 전 마무리했던 덕산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이전에 했던 업무는 교육문화 수강생들을 관리하고 수련관의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보람이 있는 일이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행복감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수련관 내부적으로 새롭게 업무분장이 되었고, 덕산마을학교 공모사업 담당자로 담당업무가 변경이 되었다. 덕산마을학교 사업은 2016년 5월에 내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다가 그 해 6월에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인수했던 사업인데다가 변경된 담당자를 도와서 함께 지원해 왔던 사업이라 내게 그렇게 낯설거나 당혹스러운 업무는 아니었다.

2017년 7월 1일 그렇게 나는 덕산마을학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만감이 교차하였다. 기대감도 있었고 막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진행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미 진행된 것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대로 진행해 나가기로 마음을 잡았다. 일단 지금까지 참여하시기로 확정해 주셨던 마을학교 선생님들께 인사와 함께 재차 참여여부 확인을 드리면서, 멘토협의회 2차 모임도 안내드리고 아직 참여확정을 주시지 않으신 마을학교선생님께도 연락드리는 것으로 부터 사업의 첫 단추를 채워 나갔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주시는 분들, 아예 기억을 하시기 힘들 정도로 바빠하시는 분들...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았다.

2017년 7월 14일 멘토협의회 2차 모임 날이었다. 그렇게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는 나날을 보내면서 드디어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이 되었다. 오랜만에 뵈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친근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고마웠고 사업을 잘 운영해야겠다고 다짐도 새롭게 해보았다. 1주일 후 마을학교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는 마을학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좋다. 자문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비옥해지고 금방이라도 나무가 열매들로 가득할 것 같아진다. 내가 왜 이사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한 생각들로 채워지는 시간,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내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들이다.

마을학교 선생님협의회 모임과 자문위원회 진행 및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바로 마을학교 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의 만남이다. 사업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는 덕산마을에 주거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덕산동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과 진해청소년수련관과 MOU제갈을 맺고 사업을 함께 해 나가고 계시는 글로벌청소년지도자협회 선생님, 그리고 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해남중학교와 웅동중학교 학부모회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정말 참말로 감사한 분들이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나는 또 행복해 진다. 어려운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나에게 고생 많다고 격려해 주시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알아서들 바로 잡아주신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기운이 난다. 행복해 진다.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모두 생업으로 인해 한 날에 모일 수 있는 날을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매마침 곧 추석이 다가 오고 있고, 수련관에서는 추석선물로 청굴정을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마을학교 선생님들께 추석인사도 전해드릴 겸, 사전교육도 드릴 겸 한분 한분 방문드리는 것을 마음을 결정했다. 미리 연락을 드려서 약속시간을 정하고 한분 한분 뵙기를 56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소모되었지만, 사업하기 전에 직접 한분 한분 뵙고 나니 마음이 더 놓이고 참 좋았다. 물론 내내에도 이렇게 사전교육을 개별로 하라고 한다면... 그건 불음표로 돌리고 싶다.. ㅋㅋㅋ..

10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었고, 사전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드디어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모두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한활동을 위해 안전교육과 성추행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당일 체험활동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이들이 아무도 안즐고있었다.. 이진 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만큼 참여 청소년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었다. 참말로 행복했다.

10월 11일 첫 덕산마을학교 직업체험을 시작으로 10월 31일, 11월 11일에 덕산마을학교 직업체험이 실시되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아이들을 만나 체험처 별로 모이기 시작했다. 들떠있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하기 위해 애쓰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생동감 넘치는 마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다. 체험처별 이모저모를 사진에 담아 보았다. 미용실에서는 헤어컷팅하는 방법, 파마하는 방법, 염색하는 방법, 헤어감는 방법, 헤어 말리는 방법을 보고듣고 체험해 보는 미용실체험처 아이들.. 볼링장에서 진지하게 사업 설명을 듣고 볼링도 체험해보고 있는 아이들, 플로리스트가 꿈인 친구들은 꽃집에서 다양한 꽃에 대한 설명과 꽃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요건등을 설명듣고 자신만의 꽃다발을 만들어 보고 있었다. 체육특기생을 꿈꾸는 아이들은 행복한 태권도장에 방문하여 사범님께 특훈을 받아보는 영광도 누리보고 있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상황실 안내를 해 보는 체험, 수갑을 채워보고 총도 만져보며 정말 신기한 표정을 감출 수 없어하는 아이들, 치킨집에서 바른 먹거리를 제공을 위한 가치철학도 배우고 직접 건강하고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보는 아이들, 네일아트, 피부미용실, 다양한 공예체험, 마트운영체험, 은행업무체험, 우체국업무체험, 구청공무원 체험, 식당운영체험, 다도체험, 자동차 정비체험, 제빵체험, 바리스타체험, 사진작가체험, 약국에서 약사체험,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체험 및 치위생사체험,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체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체험, 도서관에서 사서체험, 체육시설에서 댄스지도사체험, 종합문구도매점에서 문구점운영체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체험, 인테리어 가게에서 인테리어 현장체험, 인쇄디자인 가게에서 인쇄와 디자인 체험하고 자신만의 공익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체험, 법무사무소에서 법무사체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체험,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체험, 헬스장에서 헬스지도 체험 등. 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들에 자신의 꿈에 맞는 곳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전문체험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다. 아니나 다를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97%이상이 본 체험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고, “직접와서 해 볼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알기 힘들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 “가면 갈수록 체험기회는 적어지고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체험 활동은 미래 직업을 선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없고 완전 좋았어요.”, “2학년 때도 이걸 해 보고 싶다.”,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다.”, “약사의 꿈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후배도 이와 같이 배우면 좋겠다.” 등과 같이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며서 참 뿌듯하고 행복하였다.

덕산마을학교 사업을 통해서 참가청소년들의 직업인식도가 향상되었고,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마을학교 선생님들의 협의체가 구성된 것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우리 덕산마을학교 사업의 핵심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간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덕산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마을학교 사업은 참만남이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직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그 직업에 종사해 오신 직업 선배님과의 참만남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왜 이 직업을 해오고 있는지? 그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매개로 서로 몰랐던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단절되었던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철수’였지만, ‘우리 철수’가 되는 것이고, 철수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 철수를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서 메말라가던 우리 사회가 보다 촉촉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소중한 사업이 바로 덕산마을학교 사업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낯설어 보였던 덕산마을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껴진다. 도로위에 우리 마을학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행복한테런도 봉고차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리 양보를 해드린다. 그리고 마을학교 선생님 가게 앞에 서성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오셨는지 여쭙보고 선생님께 연락도 해드린다. 그러면서 나는 또 참이웃을 만나는 경험을 해 보게된다.

“덕산마을학교는 인생학교”이다. 이곳에서 만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한권의 소중한 책이다. 참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남’이었던 사람이 ‘남’이 되고 ‘너와 나만 덩그러니 남았던 곳에 ‘우리’라는 가치가 자리하게 되고, 서로가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이 ‘협력’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생(共生)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덕산마을학교 사업담당자로서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고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덕산마을학교사업을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죽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염원해 본다. 나는 참 행복하다.

## 천(天) 지(知)와의 소중한 만남 - 천사단과 알바생과의 소중한 만남

김영조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활동분야

참여분야

보호분야



2017년 3월 오후.. 갑자기 사무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안내데스크에 있던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 비명 소리가 바로 나를 천사단과 알바생을 만나게 해줄 행복한 비명소리였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3개 분야 선정!! 기쁨도 잠시 활동과 보호 분야에 선정된 나는 걱정부터 앞섰고 과연 내가 2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대상과 내용이 다른, 분야도 다른, 모든 게 다른 2개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시작된 1차 컨설팅.. 이 컨설팅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행복한 비명소리를 계속 맴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먼저, 활동분야 컨설팅을 받으며 실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서로 발전했고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또한, 보호분야 컨설팅 위원님을 만나고 계획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때 행복한 비명소리가 또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의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천사단과 알바생을 만날 준비를 열심히 시작했다. 먼저, 천사단을 만나기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천사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사전에 공모사업 선정 홍보가 진행되며 이미 부모님들 사이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모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30명의 천사들과 만남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첫 만남의 아이들 표정이 선명히 기억난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참여한 아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역사는 주제가 흥미 없었고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이들은 ‘언제 끝나요’를 반복했다. 이렇게 시작된 천사단과의 첫 만남 이후 아이들의 질문에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 끝나요’가 아닌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다음 활동은 뭐예요’ 등 활동을 점점 기다리기 시작했고, 부모님보다 앞장서서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강조했던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이 아이들을 점점 변화시켰고 안전하고 즐거운 11회기 천문역사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반면 보호분야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열심히 학교와 사업주를 모집했지만 학사 일정이 확정된 학교와 교육에는 관심 없는 사업주들.. 모집방법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 때부터 서울 강북 지역



학교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선생님들과 사업주들을 이해시키기 시작했다. 다녀온 학교와 사업장에서 하나둘씩 연락이 왔고 우여곡절 끝에 모든 모집이 끝났다. 힘든 시작이었지만 교육에 참여한 학교에서 추가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와 소중한 인연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나와 알바생들의 만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신청이 이어졌고 곧 목표 인원인

30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알바생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청소년들이어서 그런지 약속된 일정 외에도 자발적으로 활동을 준비해 나갔다. 캠페인과 사업장 모니터링이 시작되고 알바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자발적, 주체적 참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진행된 2개 프로그램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었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활동 영상을 제작했고 전시회를 운영하며 그동안 활동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활동 보고회 속 천사단과 알바생의 표정들.. 천사단은 내년을 약속했고 알바생은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알바생은 지금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초·중·고·대학생을 모두 만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고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체계성을 더한 활동분야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7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고, 보호 프로그램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이야기에 수록되며 전국적으로 알바생들의 노력을 알릴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도자에게는 역량강화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 참가의 기회를.. 주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와 소중한 인연이 된 천사단과 알바생들의 가슴 속에 2017년 활동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2017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인쇄 2017년 12월  
발행 2017년 12월  
발행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TEL. 02-330-2848 FAX. 02-6430-0968  
www.kywa.or.kr / wsp.mogef.go.kr

편집디자인 디자인인

비매품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